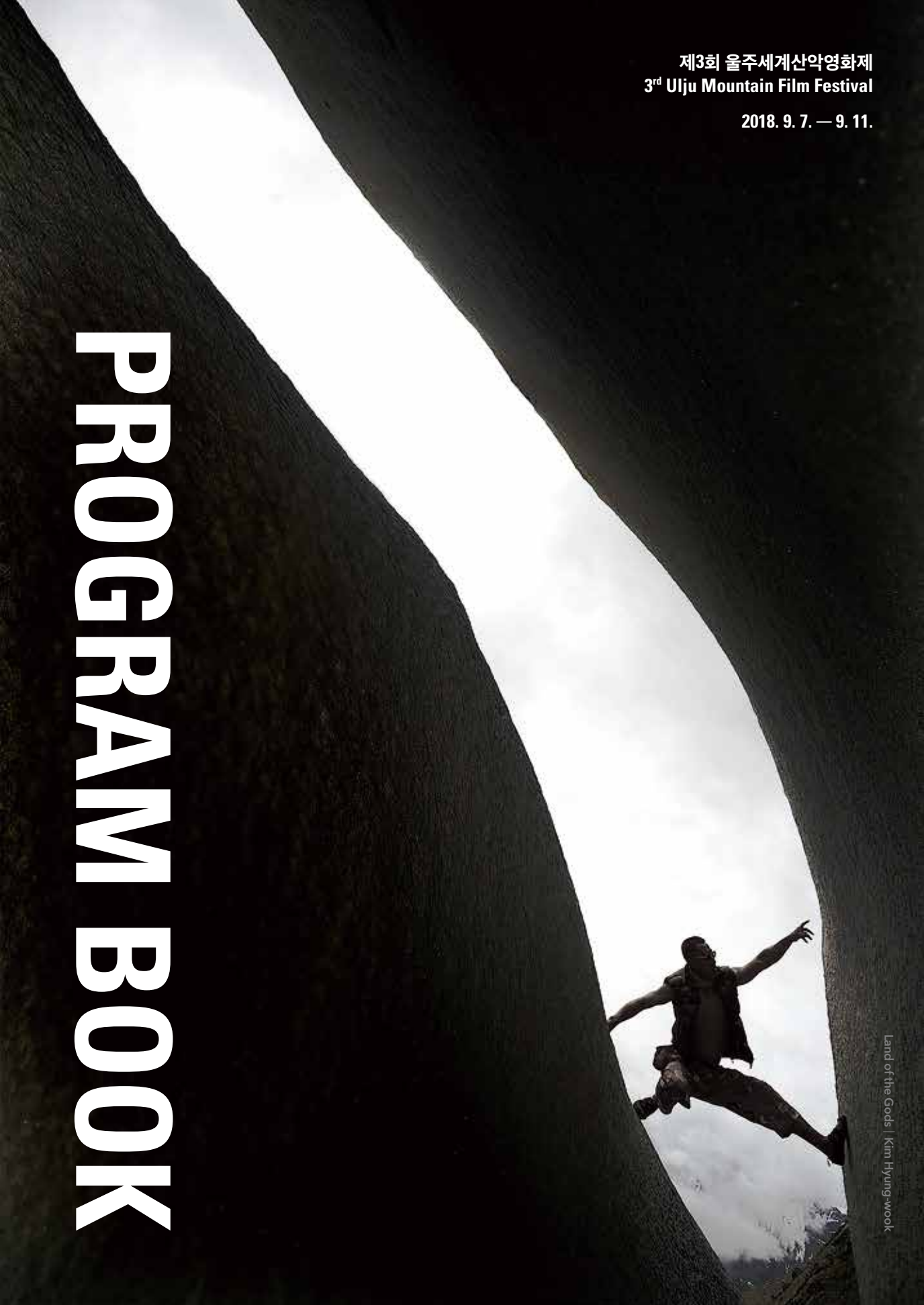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18. 9. 7. — 9. 11.

PROGRAM BOOK



Land of the Gods | Kim Hyung-wook

NH All100 플랜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209호
(2018.07.23~2019.06.30)

NongHyup Bank 3.1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은행

똑똑한 절세기회, 안정적인 노후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함께!

절세에 노후준비 까지~

세금혜택 최대(*)

1,155,000원 환급

*세금혜택 최대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 매년 최대 1,155,000원 세금환급 가능

[연 7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효과]

소득별 구분	최대 절세금액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700만원 × 16.5% = 1,155,000 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700만원 × 13.2% = 924,000 원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 30% 절세!

-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및 가입기간 5년 유지 후
  - 연금수령 한도내 연금수령시 절세(연금수령한도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 징수)
  - 퇴직금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 요건 제외
  (퇴직금이 있을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가능)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은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적용세율은 표 참고
-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연금外 인출인 경우 기타소득세율 16.5%과세

* 타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과세대상

연금수령나이	세율 (지방소득세포함)
70세미만	5.5 %
70세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NH농협은행 NH All100 플랜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상품(펀드)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행은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1588-5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공식 스폰서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I주I 새울원자력본부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천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해상풍력, 삼랑진양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솔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PREMIUM QUALITY
TREVIER SINCE 2003
트레비어

수제

영화볼땐 맥주한잔

울산대표맥주 트레비어

TREVIER®

정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2017 ★
CUPPERS AWARD
1

2018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식커피 선정

AG COFFEE

2017 드립백커피어워드
에티오피아
1★위

커피의 기원지
에티오피아
The Origin of Coffee, Ethiopia

에티오피아 게데오 메시나*
Ethiopia Gedeo MESINA
게데오 존 | 1800m | 자연혼합종
아프리칸 베드에서 햇빛에 의한 자연건조방식

* 메시나 커피는 2017-2018 AG COFFEE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커피 Best seller 입니다.

판매처 AG COFFEE 052-273-5577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48-16 | www.agcoffee.co.kr

AG COFFEE

WE ARE DREAMING OF DEVELPOING WEIGHTLESS EQUIPMENT.

NEVERTHELESS, WE ARE SORRY TO EARTH.

우리는 무게없는 장비 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에 미안합니다.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18. 9. 7. — 9. 11.

목차 Contents

8	인사말 및 축사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12	2018 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2018
14	공식 포스터&트레일러	Official Poster & Trailer
15	홍보대사 움피니스트	UMFFinist
16	상영 및 티켓 안내	Screening & Ticket Information
17	상영시간표 가이드 &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Guide
22	행사장 안내도	Festival Map
24	셔틀버스 안내	Shuttle Bus Information
25	경쟁부문	Competition
32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35	알피니즘	Alpinism
42	클라이밍	Climbing
48	모험과 탐험	Adventure & Exploration
56	자연과 사람	Nature & People
66	움프 포커스	UMFF Focus
86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94	움프 라이프	UMFF Life
114	이벤트	Event
126	작품 색인	Index of Films
128	감독 색인	Index of Directors
130	상영본 제공처	Contacts
131	도움주신 분들	Acknowledgements
132	조직 & 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주최 | 주관 Presented by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Ulju Mountain Film Festival

후원 Supportor

울주군의회

산림청

주한네팔대사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협찬 Sponsor

Premier Sponsor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SAMSUNG

NH 농협

Festival Sponsor

AG COFFEE

TREVIER SINCE 2003

STANLEY

FURMO DT

ZEROGRAM GO LIGHT GET MORE

TRANGO

lamadang

좋은데이

대한민국 No.1 Green Car

KOLPING

HITEJINRO

HONEST FOOD

BUTORA

인사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
이선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리는 영남알프스 산자락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악영화제를 함께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찾아와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화제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슬로건은 '새로운 도전(New Journey)' 입니다. 험준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등반 자체가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이듯이, 우리 삶도 또 다른 내일을 위해 매번 새롭게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도 이제 법인화로 재탄생되어 새로운 영화구성, 새로운 공간구성,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UMFF만이 가진 고유한 멋과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세 번째 도전을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산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올수 있는 영화의 장르를 추가하여 대중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악문화 형성에 메카로 다가설 수 있도록 구심점으로서 본 영화제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때입니다. 작년에 국제산악영화협회 가입과 더불어 올해 아시아영화진흥기구에 가입되어, 국제적으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위상과 인지도가 상향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울주군은 "사람이 희망인 울주" 사람중심의 문화생활을 기반으로 산악영화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속의 산악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곳 영화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UMFF Chairman
LEE Sun-ho

I am very pleased to be with you here today at the foot of Yeongnam Alps, which is blessed with natural beauty, and is also home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I also warmly welcome all of you who have come from far and wide to join us in our mountain film festival. My deep gratitude goes to everyone who has labored and helped us in preparing the film festival.

UMFF's slogan this year is "New Journey". Just as every moment of climbing a steep and dangerous mountain is a new journey, our life is also a new journey into a new tomorrow.

UMFF was newly incorporated in 2018, and comes to you with new films, new locations, and a new program. We have prepared hard for our third journey to show you UMFF's unique flavor and appeal.

Beginning this year, we have added various, original experience programs through business agreements with organizations such as Korea Forest Service. We also added film genres to become more inviting to not only mountaineer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increasing popular appeal. This will help our film festival play a pivotal role as a mecca in the development of mountain culture.

This is a time to become a world-wide film festival. Having joined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last year, and the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n Cinema this year, I believe the international status and awareness of UMFF has been elevated.

"People are the future of Ulju" – our culture is centered around the people. Ulju-gun will continue to put its best effort to promote the progress of this mountain film festival, and to help it solidify an international footing as a film festival.

Thank you once again for coming. I hope that you can make beautiful memories here. Thank you.

인사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창호

저는 우리나라가 산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형의 70%가 산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거의 모든 마을과 대도시에도 산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신선한 대기와 산의 소산물을 혜택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산을 찾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삶을 위한 산입니다.

지난 4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산악영화라는 장르가 있어 세계 각국에 20여 군데의 산악영화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악영화란 등반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담은 알피니즘에 입각한 영화, 암벽 클라이밍을 다룬 영화, 그리고 산 자체를 소재로 한 영화나 산과 인간의 삶과의 관계를 그린 영화 등으로 광범위한 장르입니다.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는 산악영화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하여 자연과 탐험에 관한 영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히말라야-네팔전도 준비하였고 세계적인 영국인 등반가인 크리스 보닝턴 경이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차 영화제에 참석하여 그의 영화와 함께 강연도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스펜서 트레이시 주연의 <산>의 줄거리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알프스의 어느 험준한 겨울 산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고 승객들은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인공인 등반안내인 스펜서 트레이시에게는 탐욕적인 성격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추락한 비행기의 사망한 승객들의 귀중품이나 보석을 챙길 욕심으로 무리한 등반을 나서자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형은 할 수없이 함께 위험한 등반길에 오릅니다. 이 영화를 기억에 떠올리며 히말라야 8,000미터급 16좌 완등 기록을 가진 엄홍길 대장의 글이 생각났습니다."산 앞에서 인간의 욕심은 무용지물이다. 산은 절대로, 자연은 절대로 욕심을 가진 인간을 용납하지 않는다."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남알프스 산 밑에서 산악인, 영화인,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영화제가 되길 바라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Greetings

UMFF Festival Director
BAE Chang-ho

I believe that Korea is a country of mountains. Not only because 70% of our land is made up of mountains, but because almost every town, even major cities, are surrounded by mountains, allowing us to hike, breathe fresh air, and eat its produce. We also turn to our mountains to heal. They are not something to conquer, but a part of our lives.

When I became the director fo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n April, I learned that mountain film is a genre, and that there are about 20 mountain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This genre encompasses films that deal with mountaineering, including alpinism, rock climbing, mountain itself, and fil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ountain. The main program of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mountain films, and also introduces films about nature and adventure. Himalaya-Nepal will be showcased as a special program, and world class climber Sir Chris Bonington from England will attend to tell us about his films and to be awarded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I faintly remember watching *The Mountain* starring Spencer Tracy as a youth. An airplane crashes in the middle of the Alps in the dead of winter and most of the passengers are presumed dead. Tracy plays the role of a mountain guide with a greedy brother. When this greedy brother decides to find the plane to rob the dead, Tracy's character reluctantly follows to protect him. The film reminded me of the words of Korean mountaineer, Um Hong-gil, who holds a record for climbing the 16 highest points on Earth. "On the mountain, greed is quite useless. The mountain never, and nature also never, allows the greedy."

Thank you for all who visited and helped our film festival. I hope that mountaineers, filmmakers, and the audience can all enjoy the film festival here under the Yeongnam Alps.

축사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푸른 보석, 영남알프스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푸름의 절정에서 <새로운 도전, New Journey>를 주제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의 막이 올라 더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여름 내내 수고하신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선호 이사장님, 배창호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42개국 388편의 영화를 출품하신 세계 각국의 영화인, 시민과 영화팬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UMFF는 올해 세 번째입니다.

처음 우리는 기대로 막을 열었고, 두 번째는 희망의 막을 열었으며, 올해는 두 번의 성공 위에서 더 큰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영화를 위한 산이 아니라 산을 위한 영화, 산을 통한 공감을 공유하려는 기대에서 시작했고, 두 번의 영화제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울산의 영남알프스는 국민의 산이 되었고, 세계인의 산이 되었으며, UMFF는 환경, 생명, 자연,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즐기는 세계인의 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UMFF가 울주의 큰 자랑이면서 울산이 계속 지키고 키워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UMFF가 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이어 모두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유례없이 무더웠던 여름 내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울산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Congratulations

Mayor of Ulsan Metropolitan City
SONG Cheol-ho

A new season is coming to Yeongnam Alps, the blue jewel of Ulsan. At the peak of blueness,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held under the theme of New Journey, which makes me delighted and proud.

I congratulate and welcome you with all my heart.

To chairman Lee Sun-ho, director Bae Chang-ho, and the entire staff of the UMFF, I feel grateful for their huge efforts through the summer.

I also appreciate citizens and film fans as well as cineastes from 42 nations, who submitted 388 films.

As we all know, the UMFF has reached its third edition.

We held the first edition with expectations, the second edition with hope. This year, we bear confidence in a bigger success on top of the two previous occasions.

We first started up with expectations to share films for mountains, not mountains for films, and sympathize with people through mountains, and we found hope during two editions.

By now, Yeongnam Alps of Ulsan have become mountains for Koreans and global citizens, and the UMFF has become a festival where the values of environment, life, nature and coexistence are shared.

It takes a leap to the position of a worldwide festival for anyone who loves films and mountains.

Hence, I believe the UMFF is a big pride of Ulju, and it is a precious property that people of Ulsan have to preserve and foster.

I expect the UMFF held in autumn to connect people with mountains, people with others, and people with culture, so it is engraved deep in every person's heart.

Once again, I appreciate and welcome all those who made contributions through the unprecedentedly hot summer.

I hope you to be always healthy and become happier in Ulsan.

Thank you.

축사

울주군의회 의장
간정태

아름다운 영남알프스를 스크린 삼아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영화제를 찾아주신 국내외 산악영화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산악 전문 국제영화제로서 산악문화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개최 2년만에 국제산악영화협회(IAMF) 정식 회원 등록, 산악영화제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 회원 가입 등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나름의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인 출범 원년을 맞아 열리게 되며, 한국영화계 거장 배창호 감독을 중심으로 새로이 정비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개최되기에 영화제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남알프스의 가을 배경을 병풍삼아 펼쳐지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인상과 좋은 추억 남겨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화제 준비에 힘써주신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선호 이사장님과 배창호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영화제를 찾은 모든 분들이 산악영화가 주는 감동을 안고 돌아가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Chairman of Ulju Council
GAN Jeong-tae

Congratulations upon holding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 also would like to welcome all the viewers and visitor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mountain films.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s the first and only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in Korea, has been greatly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mountaineering culture.

Within just two years since the beginning, it has made great achievements such as being registered as an offici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and becoming a member of the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n Cinema.

This year especially is the year of foundation of the corporate body and the personnel has been reorganized along with Korean film master Bae Chang-ho at the center, so a successful outcome is anticipated.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held with the beautiful autumn of Yeongnam Alps in the background and as such will certainly leave a deep impression and give great memories to all the visitors.

I appreciate the efforts of all the related people as well as chairman Lee Sun-ho and director Bae Chang-ho, and hope everyone visiting the festival will be moved by the mountain films.

Thank you.

2018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은 전 세계 자연과 환경, 등반, 영화, 문학 등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등반과 관련하여 등반상, 문화상 등 분야별 상은 존재하지만 여러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상은 극히 드물며,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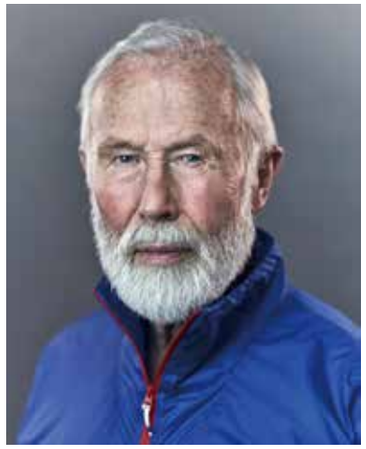
2017년 처음 시행된 울주세계산악문화상에는 '지구의 아들' 릭 리지웨이가 선정되었다.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2018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is awarded to those who have made exceptional contributions to the progress of mountain culture, such as nature, environment, climbing, films, and literature. There are many awards around the globe related to different fields of climbing(climbing award, culture award, etc.), but those that encompass all these fields are rare, an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the first to attempt it.

The first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was awarded to "son of earth" Rick Ridgeway in 2017.

크리스 보닝턴 경



Sir Chris BONINGTON

2018년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의 주인공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알피니즘의 살아있는 전설, 크리스 보닝턴 경이 선정되었다.

1996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은 크리스 보닝턴 경은 미래 지향적 등반을 추구해온 최초의 프로 산악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16세에 암벽등반을 시작한 이래 안나푸르나 남벽, 에베레스트 남서벽 초등을 이끌어 전 세계인들에게 모험과 개척 정신을 일깨워 주었으며, 수많은 저서와 영상으로 등산의 대중화를 이끈 산악인으로, 올해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 중 진행되며, 기자회견 및 특별강연, 전시, 영화 상영 후 게스트와의 만남으로 다양하게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The recipient of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2018 is the living legend of alpinism, Sir Chris Bonington.

Sir Chris Bonington was knighted by the Queen of England in 1996, and is known for being the first future oriented professional mountaineer. He began climbing at the age of 16, and has since led the first ascent expeditions to the south face of Annapurna and the south-west face of Mount Everest, awakening people around the world to the adventure and pioneering spirit. He has also contributed to the popularization of climbing by publishing numerous books and videos.

The award ceremony will be held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Bonington will hold various sessions to interact with the audience, including a press conference, special lecture, exhibition, and Guest Visit after film screening.

크리스 보닝턴 경 행사 참여 일정

기자회견
일시 9월 7일(금) 13:00 ~ 14:3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내용 핸드프린팅 행사 및 기자 회견

특별 강연
일시 9월 8일(토) 16:00 ~ 18: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내용 크리스 보닝턴 경의 삶과 등반, 저술, 영화에 관한 강연과 질의 응답

영화 <크리스 보닝턴-산악인>상영
일시 9월 9일(일) 10:00 ~ 12:00
장소 신불산 시네마
내용 크리스 보닝턴 경의 삶, 등반에 대한 영화
영화 상영 후 게스트와의 만남 진행

특별 전시
일시 9월 7일(금) ~ 11일(화) 10:00 ~ 19: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복도
내용 크리스 보닝턴 경의 삶과 등반에 관한 사진, 영상 전시

Schedule of Sir Chris BONINGTON

Press Conference
Time Sep. 7(Fri) 13:00 ~ 14:3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Content Hand printing event and press conference.

Special Lecture
Time Sep. 8(Sat) 16:00 ~ 18: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Content Lecture, and Q&A session about the life, mountaineering, writings and videos of Sir Chris Bonington

Screening of *Bonington Mountaineer*
Time Sep. 9(Sun) 10:00 ~ 12:00
Venue Sinbulsan Cinema
Content A film about the life and mountaineering of Sir Chris Bonington
There will be a GV (Guest Visit) after the screening.

Special Exhibition
Time Sep. 7(Fri) ~ 11(Tue) 10:00 ~ 19:00
Venue 2nd floor corridor, Mountain Culture Center
Content An exhibit of pictures and videos about the life and mountaineering of Sir Chris Bonington

선정위원

김영도
한국산서회 고문

최중기
한국산서회 회장 겸 서울대 문리대 산악회원

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사)대한산악연맹 회장 역임

정호진
(주)넬슨 스포츠 대표이사, (사)한국대학 산악연맹 자문위원

Selection Committee

KIM Young-do
Advisor to the Korean Alpen Book Club

CHOI Joong-ki
President of Korean Alpen Book Club, and member of alpine club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CHUNG Young-mok
Curat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of Korean Alpine Federation

JUNG Ho-Jin
Director of Nelson Sports Inc
Consultant to the Korea Student Alpine Federation

실무위원

김동수
(사)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 한국산서회 이사

배경미
(사)대한산악연맹 국제교류 이사, 아시아산악연맹 사무총장

Administrative Committee

KIM Dong-soo
Vice President of Korea Student Alpine Federation;
Director of Korean Alpen Book Club

Christine PAE
Director of Korean Alpine Feder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General Secretary, UAAA

공식 포스터

Official Poster

사진작가 김형욱
작품명 신들의 땅

Photographer Kim Hyung-wook
Title Land of the Gods

긴 여정을 시작하는 한 걸음. 미지의 길을 떠나는 설레고 도전적인 마음을 담은 김형욱 작가의 '신들의 땅'이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공식 포스터 원작으로 선정되었다. 가파르고 거대한 암벽과 그 사이를 힘있게 가르는 메루피크 한국원정대 왕준호의 역동적인 동작은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첫걸음과 닮았다.

One step into a long journey. Photographer Kim Hyung-wook's "Land of the Gods", which portrays the exciting and defiant spirit as one steps into the unknown, has been selected as the official poster for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The dynamic movement of Wang Jun-ho moving between the steep and gigantic rock is akin to the adventurous and challenging first step of the 3rd UMFF. We hope to relay through this poster the stories of "New Journey," people, and nature.

공식 트레일러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지만, 본연의 모습을 한껏 보여 주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단 하나뿐이다. 등산을 할 때는 산에 오르는 사람의 내적인 심리-의심, 두려움, 희망, 희열-만큼이나 산의 외적인 풍경 - 바위, 나무, 물줄기, 하늘- 또한 중요하다. 시각적 대비를 보여 주는 2018 울주산악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네덜란드 출신 예술가 M.C. Escher의 무한쌍곡선 구조(끝없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진 계단을 표현한 석판화로 유명)로부터 영향을 받은 공식 트레일러에는 다양한 모습의 자신을 공유하는 등산로 위의 외로운 등반가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다소 자연주의적으로 보여지는 공간은 점차 추상적인 모습이 된다. 산은 점점 줄어들어 몇 개의 바위로 변하는가 싶더니 마침내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등반가의 모습이 보인다. 산 정상도 멀리서 보면 결국 지평선 위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

Official Trailer

Humane Nature

감독 심세부
출연 이동규
음악 클레망 샤르동, 주리앙 쿠트레
음악편집 한재권

Director Sébastien Simon
Actor Lee Dong-gyu
Music Clément Chardon, Julien Coutret
Music Editor HAN Jae-kwon

While there may be many different paths that can lead to a mountaintop, there usually is only one good way to reveal and nurture a true sense of self. Indeed, mountain climbing is as much about the outer landscape - rocks, trees, streams and sky - as it is about the climber's inner landscape - doubts, fears, hopes and joys. Inspired by UMFF 2018's visually-contrasted official poster, and influenced by Dutch graphic artist M.C. Escher's work on infinity and hyperbolic geometry (particularly his famous lithographies of endless, impossible stairs), the main trailer features a lone climber who finds himself sharing the trail with multiple versions of himself. From rather naturalistic at first, the space becomes more and more abstract; the mountain reduces to a few boulders until the climber eventually stands atop a single rock. From afar, even a summit, after all, becomes a mere point on the horizon.

움피니스트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홍보대사를 일컫는 단어로 영화제 약칭인 '움프(UMFF)'와 알피니즘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등반인을 뜻하는 '알피니스트(Alpinist)'의 합성어다.

역대 움피니스트로는 2015년 프레페스티벌에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다희가 함께 하였으며 1회는 클라이머 김자인, 배우 서준영이, 지난해 2회 영화제에는 산악인 김창호 대장과 배우 예지원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함께 했다.

프레페스티벌에서 첫 인연을 맺었던 엄홍길 대장은 올해부터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특별한 동행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엄홍길 대장은 2018년부터 영화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함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교류 사업 및 기부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올해 또 한명의 움피니스트는 배우 안소희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누비며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배우 안소희는, 2018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잘 어울리는 배우다.

UMFFinist

The word UMFFinist refers to the honorary ambassador fo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t is a combination of "UMFF" (abbreviation of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Alpinist" (a mountaineer holding fast to the spirit and tradition of Alpinism).

Past UMFFinists were mountaineer Um Hong-gil and actress Lee Da-hee at the Pre-Festival 2015; climber Kim Ja-in and Actor Seo Jun-young at the first UMFF; and mountaineer Kim Chang-ho and actress Ye Ji-won at the second UMFF.

Um Hong-gil from the Pre-Festival will be rejoining UMFF this year in a more permanent role. Beginning in 2018, he will not only be working as the film festival's honorary ambassador, but will also take charge of the charity and cultural exchange services for the culturally alienated groups.

Another UMFFinist working alongside Um Hong-gil this year is actress An So-hee. Having surprised with her dynamic activities on screen and TV, An So-hee well suits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embarking on a new challenge this year.

상영 및 티켓안내

알려드립니다!

2018년부터 예매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매 후 사전 취소 없이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매 기간을 한정하고, 행사기간에는 현장 발권만 운영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영관 운영 안내

- 모든 상영관은 선착순 비지정 좌석제입니다.
- 모든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UMFF시네마는 티켓 발권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상영시작 15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정시상영이 원칙이며, 상영 시작 후 상영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제한합니다.
- 영화상영 중 이동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상영 중 사진 및 영상촬영은 불가합니다.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티켓 안내

- 티켓은 무료로 발권됩니다.
- 온라인 예매는 홈페이지에서 상영회차별 1인 4매까지 가능합니다.
- 예매한 티켓은 해당 상영관 입구에서 상영시작 20분 전까지 발권 가능하며, 미수령 시 자동 취소됩니다.
- 당일 상영관별 입구에서 15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 단체 예매는 15인 이상부터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 받습니다. (052 248 6452)
- 발권 후 관람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관람을 원하는 다른 관객을 위하여 입장권을 해당 상영관 입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매 안내

- **사전예매** 8월 15일(수) ~ 9월 4일(화)
- **현장발권** 9월 7일(금) ~ 11일(화)

	사전 예매	현장 발권
장소	공식홈페이지 (www.umff.kr)	움프 시네마를 제외한 모든 상영관
발권매수	1인 4매	
운영기간	8월 15일(수) ~ 9월 4일(화)	9월 7일(금) ~ 11일(화)
운영시간	24시간(예매오픈부터)	09:00 ~ 상영관별 마지막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발권	해당 상영관 입구에서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발권	해당 상영관 입구에서 15분 전부터 선착순 발권
취소	해당 영화 상영 전일 24시까지 단,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발권하지 않은 티켓은 자동 취소 됨	발권 후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 상영관 입구로 반환

티켓문의 For more information

- 공식 홈페이지 (www.umff.kr) '1:1문의' 게시판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상영관운영팀 (052 248 6452)
- Official Homepage (www.umff.kr) '1:1 Q&A' board
-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inema Operation Team (052 248 6452)

Screening & Ticket Information

Notice

Please note 2018 New ticket reservation policy. In order to prevent no-shows after making an online reservation, the pre-reservation period will be limited,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festival, only on-site ticketing will be available.

Theater Information

- There is no seat number on your ticket.
  You can select your own seat upon arrival in all theaters.
- Tickets are required at all theaters for admission except for the UMFF Cinema, the outdoor venue.
- Admissions will begin from 15 minutes prior to your screening.
- All the screenings will start on time. Once the screening starts, entering cinema will be limi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 Refrain from moving to other seats and reentering the theater during screenings.
- All audio, video recording and/or photography is strictly prohibited at all screenings.
-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in the theater.
- Ratings must be strictly observed.

Ticket Information

- Tickets are free of charge.
- The online ticket reservation site on the festival's homepage allows a maximum of four tickets per person for each screening.
- Tickets reserved online will be printed in front of each theater until 2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starts. Tickets not printed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 Tickets will be distributed by the order or arrival from 15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in front of each theater.
- Groups of 15 or more people can apply for group-tickets by telephone. (052 248 6452)
- If you want to cancel your tickets after you receive them, please return them to the staff charge in front of each theater so that other audiences can enjoy the screenings instead.

Booking Info

- **Pre-reservation** Aug. 15(Wed) ~ Sep. 4(Tue)
- **On-site ticketing** Sep.7(Fri) ~ 11(Tue)

	Pre-reservation	On-site ticketing
Place	Official Homepage (www.umff.kr)	At all the theaters except for UMFF Cinema
Number of tickets	Max. 4 per person	
Period	Aug. 15(Wed) ~ Sep. 4(Tue)	Sep. 7(Fri) ~ 11(Tue)
Time	24 Hours (from the date reservation opens)	09:00 ~ until 20 minutes prior to the last screening at each theater
Ticketing	Available until 20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in front of each theater	Available from 15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by order of arrival in front of each theater
Cancellation	Available until 24:00 of the day before the screening date. Tickets not printed until 20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Any audiences who want to cancel the tickets are encouraged to return them staff in charge in front of each theater.

상영시간표 가이드

안내 Notice

- 게스트와의 만남은 사전 고지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사가 있는 모든 상영작에는 영어, 한국어 자막 및 대사가 지원됩니다.
  단, <벨과 세바스찬>, <사샤의 북극 대모험>은 영어 자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Guest Visi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 All dialogue films will be provided English and Korean subtitle or dialogue except *Belle and Sebastien* and *Long Way North*.

등급 Rate

G	전체관람가	General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18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GV	게스트와의 만남	Guest Visit

Screening Schedule Guide

상영관 Theater

UC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AC	알프스 시네마	Alps Cinema
SC	신불산 시네마	Sinbulsan Cinema
GC	가지산 시네마	Gajisan Cinema
HC	히말라야-네팔관	Himalaya-Nepal Cinema
WUC	우리들의 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SL	별빛 극장	Starlight Cinema
FR	숲속 극장	Forest Cinema
SR	세미나실	Seminar Room

09.07 (FRI)

상영관 Theater	시간 Time	국문제목 Korean Title	영문제목 English Title	GV	러닝타임 R/T	등급 Rate	페이지 Pag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8:30	그린 카펫	Green Carpet Ceremony		30		
	19:00	개막식	Opening Ceremony		30		
	19:30	개막 공연: 김연우	Opening Performance: KIM Yeon-woo		30		
	20:00	개막작: 던월	Opening Film: The Dawn Wall		100	G	32
알프스 시네마 Alps Cinema	12:30	오르다	Ascend		78	12	53
		루낙 리	Lunag Ri				39
		화이트 워터	The White Waters				51
	15:00	댐	The Dam		79	15	73
		신의 그림자	A God's Shadow				73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서	In a Beautiful and Quiet Location				74
		칼리파트리아	CALIPATRIA				74
		황혼의 로맨스	Late Season				73
신불산 시네마 Sinbulsan Cinema	12:30	보쉬 프로젝트	The Bothy Project		92	12	52
		고래의 섬, 페로	The Islands and the Whales				59
	15:00	야생과 함께 살기	Living with Wildlife	GV	85	15	63
		사선에서	Conflict Tiger				58
가지산 시네마 Gajisan Cinema	12:30	드날리의 파일럿	Denali's Raven		83	12	78
		알라마르	Alamar				62
	15:00	푸른 심장	Blue Heart		87	G	64
		늑대를 찾아서	Alone with Wolves				61
히말라야-네팔관 Himalaya-Nepal Cinema	12:00	결(結)	CRUX		92	12	83
	15:00	흔들리는 산	Trembling Mountain	GV	82	15	68
우리들의 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12:00	수도원 아이들	A Little Wisdom		90	15	99
	14:30	레지나	Resina		90	18	83
숲속 극장 Forest Cinema	20:00	유니콘 원정대: 비밀의 다이어리	The Shonku Diaries-A Unicorn Adventure		92	G	113

09.08 (SAT)

상영관 Theater	시간 Time	국문제목 Korean Title	영문제목 English Title	GV	러닝타임 R/T	등급 Rate	페이지 Pag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8:30	히말라야 토크	The Himalayas Talk	GV	30	G	
	19:00	히말라야	The Himalayas		124	12	113
	21:05	자연에서 노래하다: 김창완 밴드	Singing in Nature: KIMCHANGWAN BAND		60		
알프스 시네마 Alps Cinem	10:30	드림라이드 2	DreamRide 2		86	G	52
		바람의 땅	Land of the Wind	GV			62
		고산중독	Addicted to Altitude				36
	13:30	카일라스 가는 길	Journey to Kailash	GV	89	G	87
	16:30	산적의 꿈	Bandit's Dream	GV	100	G	87
	19:30	몬타니스타스	Mountaineers		87	12	39
		니콜라스 뮐러의 삶과 꿈	Fruition, The Life and Dreams of Nicolas Müller	GV			49
신불산 시네마 Sinbulsan Cinema	10:00	경이로운 자연	A Sense of Wonder		90	G	60
		땡큐 포 더 레인	Thank You for the Rain	GV			57
	13:30	아이스 콜링	Ice Calling	GV	77	G	45
		수직의 마법사-하인즈 잭	Heinz Zak-A Free Spirit in the Vertical World				53
	16:30	서핑 유럽	The Endless Winter II; Surfing Europe		93	12	50
가지산 시네마 Gajisan Cinema	10:30	시험의 길	Viacruxis		88	G	40
		알타이 스키 어드벤처	Altay Wild Snow				53
		바다를 품은 사람들	Fishpeople				52
	13:30	놀라운 적응력: 방글라데시	Adaptation: Bangladesh-Sea Level Rise		85	G	60
		최후의 벌꿀 사냥꾼	The Last Honey Hunter				63
		학교 가는 길	The Lonely Road	GV			64
	16:30	사이코 버티컬	Psycho Vertical		94	12	37
		W	W	GV			43
히말라야-네팔관 Himalaya-Nepal Cinema	11:00	패널 토크 1: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	Panel Talk 1: Keeper of the Himalayas-Elizabeth HAWLEY		120		
	14:00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소설가 김훈	Reading in Nature: KIM Hoon		120		
	17:00	산속의 숨겨진 보물	Hidden Treasures in the Mountain	GV	110	12	98
우리들의 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10:00	보물섬	Tesoros		96	G	97
	13:30	하이디	Heidi		88	G	109
	16:00	바람과 함께 걷다	Walking with the Wind		79	12	96
세미나실 Seminar Room	16:00	세계산악문화상 강연: 크리스 보닝턴 경	UMCA's Lecture: Sir Chris BONINGTON		120		
별빛 극장 Starlight Cinema	20:00	벨과 세바스찬 (영어자막 없음)	Belle and Sebastien (No English Subtitle)		98	G	112
숲속 극장 Forest Cinema	20:00	나의 붉은 고래	Big Fish & Begonia		102	G	111

09.09 (SUN)

상영관 Theater	시간 Time	국문제목 Korean Title	영문제목 English Title	GV	러닝타임 R/T	등급 RATE	페이지 Pag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9:00	자연에서 노래하다: 푸른곰팡이	Singing in Nature: Penicilliumusic		90		
	20:30	리틀 포레스트	Little Forest		103	G	111
알프스 시네마 Alps Cinema	10:30	던월	The Dawn Wall		100	G	32
	13:30	돌아서지 않는다	Hansjörg Auer- No Turning Back		91	12	39
		도착하면 안 돼	Never Arrive, Ever	GV			49
	16:30	더트백: 프레드 베키의 전설	Dirtbag: The Legend of Fred Beckey	GV	96	15	36
	19:30	세뇨리따 마리아	Miss Maria, Skirting the Mountain	GV	90	12	59
신불산 시네마 Sinbulsan Cinema	10:00	크리스 보닝턴-산악인	Bonington-Mountaineer	GV	80	G	38
	13:30	부가부 우루카 II	Uruca II-Bugaboos Edition	GV	80	15	44
		윈터서프 2	The Winter Surf 2: Passion	GV			54
		동강이	Stumped				43
		안전제삼	Safety Third				45
	16:30	이미지네이션	Imagination: Tom Wallisch		89	G	54
		울트라	Ultra	GV			51
가지산 시네마 Gajisan Cinema	10:30	몬타니스타스	Mountaineers	GV	87	12	39
		니콜라스 뮐러의 삶과 꿈	Fruition, The Life and Dreams of Nicolas Müller				49
	13:30	아파 셰르파의 이야기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85	G	40
		아름다운 패자들	Wonderful Losers: A Different World	GV			50
	16:30	베른트 아놀드-내면의 소리	Inwards		83	G	44
		마지막 사냥꾼	The Last Ice Hunters	GV			57
히말라야-네팔관 Himalaya-Nepal Cinema	10:30	산을 움직이는 강한 햇살	Sunshine that Can Move Mountains		107	15	98
	14:00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시인 정호승	Reading in Nature: JUNG Ho-seung		90		
	16:00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시인 이동순	Reading in Nature: LEE Dong-soon		90		
우리들의 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10:00	세 농부와 아들	Three Farmers and a Son		72	18	72
	13:00	산	The Mountain		105	12	109
	16:00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172	G	108
세미나실 Seminar Room	13:00	패널 토크 2: 여성 그리고 등반	Panel Talk 2: Women and Mountaineering		120		
	17:00	워크숍: 크리슬 라이트의 어드벤처 사진 촬영	Workshop: Krystle WRIGHT's Adventure Photography		120		
별빛 극장 Starlight Cinema	20:00	사샤의 북극 대모험 (영어자막 없음)	Long Way North (No English Subtitle)		81	G	112

09.10 (MON)

상영관 Theater	시간 Time	국문제목 Korean Title	영문제목 English Title	GV	러닝타임 R/T	등급 Rate	페이지 Pag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3:00	자연에서 놀다: 울주人 한마당	Playing in Nature: Ulju IN Festival		300		
	19:00	자연에서 노래하다: 여행 스케치	Singing in Nature: Journey Sketch		60		
	20:00	걷기왕	Queen of Walking		93	12	110
알프스 시네마 Alps Cinema	10:30	반란의 계곡	Valley Uprising		99	15	46
	13:30	여자들은 다 어디갔지?	Where the Wild Things Play	GV	84	G	80
		끝없는 모험	In Perpetual Motion	GV			77
		마운틴	Mountain				37
	16:30	라이프 코치	Life Coach		86	G	44
		눈의 끝	The End of Snow				61
		에베레스트 그린	Everest Green	GV			40
	19:30	꿈꾸는 자전거	The Little House Wip		58	G	77
		크리스 샤마의 딥워터 솔로잉	Above the Sea				46
		홋카이도 스키탐험	Hokkaido Calling				55
		돌파요정	Break on Through				43
신불산 시네마 Sinbulsan Cinema	10:00	로테와 루이즈	Lotte & Luise: Twins on Board		93	G	95
	12:30	징기스칸의 아이들	The Children of Genghis	GV	101	G	100
	16:00	프리스키 전성시대	Generations of Freeskiing		83	12	55
		어머니 산	Mothered by Mountains	GV			79
		코코넛 커넥션	Coconut Connection				45
가지산 시네마 Gajisan Cinema	10:30	고슴도치의 집	Hedgehog's Home		67	G	102
		아이들을 기다리며	The Children Will Come				105
		네거티브 스페이스	Negative Space				102
		날개	Hsiang Yi				102
		빅 피쉬	Big Fish				103
		아마도 외계인?	Maybe Aliens	GV			104
	13:30	하마마와 칼루나	Hamama & Caluna		69	12	106
		32킬로미터-60년	32km-60 Years				101
		산이 말하길	Let the Mountain Speak				104
		붉은 곡	The Red Cave	GV			103
	16:30	나의 아들 이르닉	My Irnik		84	12	60
		리브가 걸어온 길	Liv along the Way				78
		마마	Mama	GV			78
히말라야-네팔관 Himalaya-Nepal Cinema	10:30	바클리	Barkley		88	G	96
	13:30	새로운 도전 모음	New Journey Films		105	12	85
	16:30	검은 닭	The Black Hen	GV	90	15	68
우리들의 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10:00	거인의 길	Way of Giants		49	G	101
		포토제닉	Undiscovered				106
		사냥	The Hunt				104
		목소리 큰 나무	The Gruff-voiced Tree				103
		치리파하스	Chiripajas				106
		개미	Ant				101
		재즈동물원	Jazzoo				105
		우가	Wooga				105
	10:50	자연에서 이야기 하다: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Reading in Nature: BACK Chang-woo & Gulleongsoe-Aideul		30		
	13:00	히말라야-네팔 단편	Himalaya-Nepal Shorts	GV	73	G	69
	16:00	울주플랫폼 & 울주멘터리	Ulju Platform & UljuMentary	GV	70	G	90

09.11 (TUE)

상영관 Theater	시간 Time	국문제목 Korean Title	영문제목 English Title	GV	러닝타임 R/T	등급 Rate	페이지 Page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18:30	폐막식	Closing Ceremony		60		
	19:30	폐막작: 클라우드보이	Closing Film: Cloudboy		77	G	33
	20:50	폐막 공연: 김경호, 김종서, 박완규	Closing Performance: KIM Kyung-ho, KIM Jong-seo, PARK Wan-kyu,		90		
알프스 시네마 Alps Cinema	10:30	젊음의 샘	Fountain of Youth		80	15	54
		사티	Sati				79
		우리들의 이야기	Women's Ways				80
	13:30	헌팅 자이언츠	Hunting Giants		84	12	64
		살아있는 지구 II, 산	Planet Earth II, Mountains				58
	16:30	탈출	Escape		79	12	55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	Keeper of the Mountains				81
		늑대	The Wolf				61
		장남	The Eldest Son				63
신불산 시네마 Sinbulsan Cinema	9:30	바클리	Barkley		88	G	96
	13:00	보물섬	Tesoros		96	G	97
	16:30	바람과 함께 걷다	Walking with the Wind		79	12	96
가지산 시네마 Gajisan Cinema	10:30	고슴도치의 집	Hedgehog's Home		67	G	102
		아이들을 기다리며	The Children Will Come				105
		네거티브 스페이스	Negative Space				102
		날개	Hsiang Yi				102
		빅 피쉬	Big Fish				103
		아마도 외계인?	Maybe Aliens	GV			104
	13:30	오스카의 아메리카	Oskar's America		79	G	100
	16:30	하마마와 칼루나	Hamama & Caluna		69	12	106
		32킬로미터-60년	32km-60 Years				101
		산이 말하길	Let the Mountain Speak				104
		붉은 곡	The Red Cave	GV			103
히말라야-네팔관 Himalaya-Nepal Cinema	10:30	로테와 루이즈	Lotte & Luise: Twins on Board		93	G	95
	13:30	부탄의 후계자들	The Next Guardian		74	15	97
	16:00	에지	Edges		89	G	80
		에베레스트의 그늘에서	In the Shadow of Everest				79
		14+1	14+1				77
우리들의 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10:00	거인의 길	Way of Giants		49	G	101
		포토제닉	Undiscovered				106
		사냥	The Hunt				104
		목소리 큰 나무	The Gruff-voiced Tree				103
		치리파하스	Chiripajas				106
		개미	Ant				101
		재즈동물원	Jazzoo				105
		우가	Wooga				105
	13:00	산 너머 보리밭	Barley Fields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88	15	84
	16:00	부가부 우루카 II	Uruca II-Bugaboos Edition		80	15	44
		윈터서프 2	The Winter Surf 2: Passion				54
		동강이	Stumped				43
		안전제삼	Safety Third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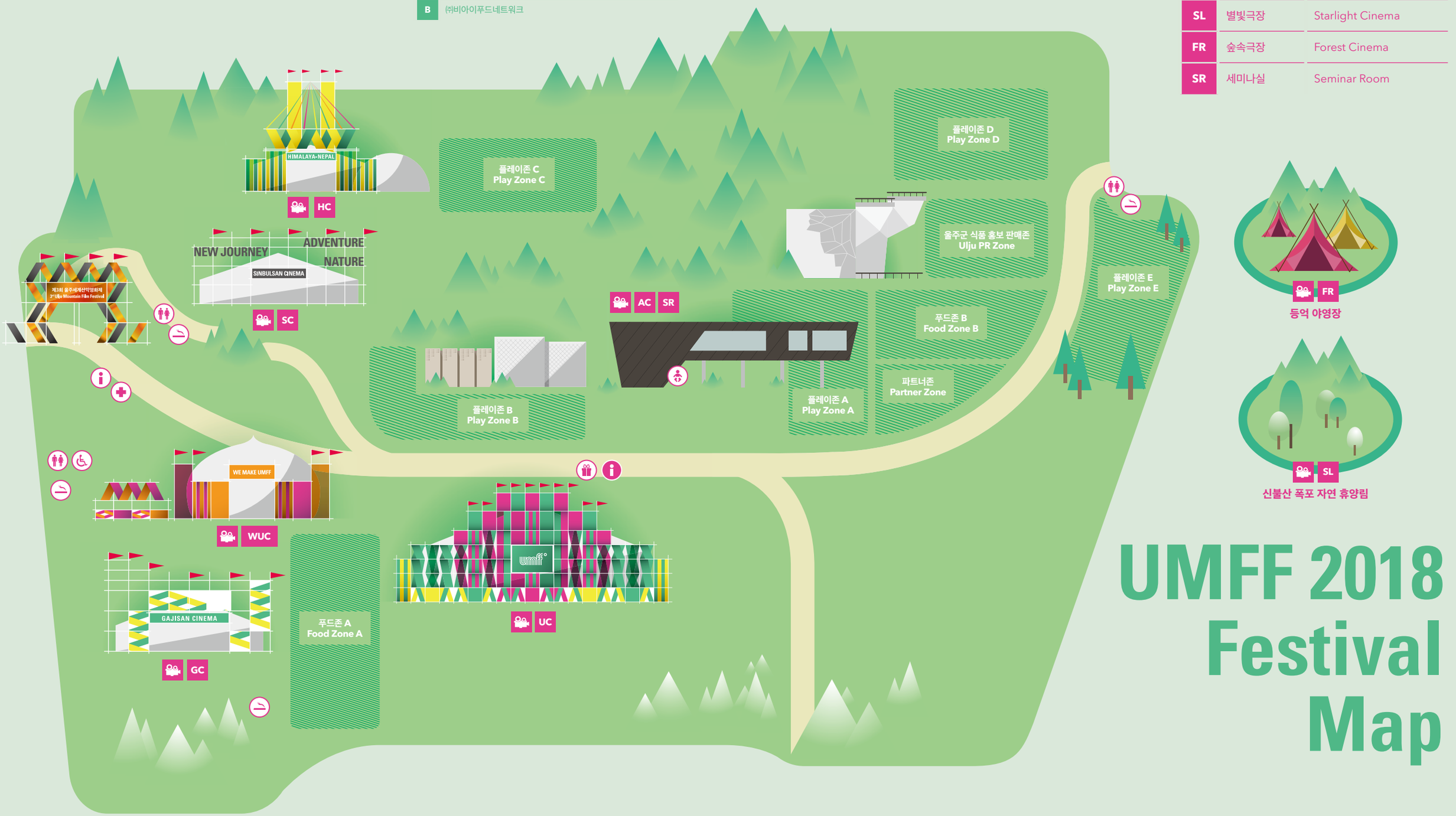
플레이존 Play Zone		
	A	메이크 홀릭 / 수작방 / 손수놓다 / 하우스퀼트 / 나다움
	B	편백세상 / 나무의 꿈/ 울산한지공예방 / 움프라디오
	C	산악장비전시 / VR체험
		사진전(세상 가장자리에서) / 그림전(히말라야의꿈)
	D	클라이밍대회 / 체험
	E	트리클라이밍(웰빙영농조합법인)

파트너존 Partner Zone	
	AG커피 / 스탠리 / 파타고니아 / 하이트진로
	타메쥬·하이퍼옵스 / 그린바나나 / 초록우산
울주군 식품 홍보 판매존 Ulju PR Zone	안전위생과 / 농업정책과 / 울주시니어클럽

푸드존 Food Zone		
	A	알프스온천번영회 / 상북농협주부대학동창회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 / 트레비어 / UIVC
		대림종합식품 / 무주덕유산 반딧골영농조합
		걷다보면café / US밤 / 클럽럽홀릭 / 편의점
	B	㈜비아이푸드네트워크

서비스존 Service Zone			
	A	종합안내	Information
		기념품	Souvenir
		수유실	Nursing Room
	B	안내	Information
		응급의료	Emergency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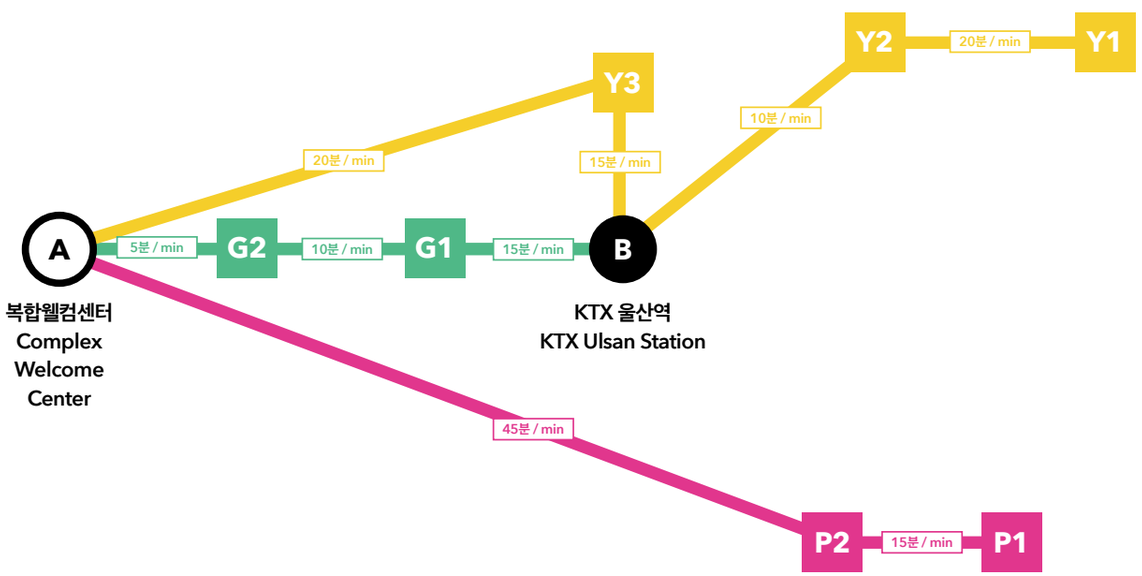
움프존 UMFF Zone		
UC	움프시네마	UMFF Cinema
SC	신불산 시네마	Sinbulsan Cinema
HC	히말라야-네팔관	Himalaya-Nepal Cinema
WUC	우리들의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GC	가지산 시네마	Gajisan Cinema
AC	알프스 시네마	Alps Cinema
SL	별빛극장	Starlight Cinema
FR	숲속극장	Forest Cinema
SR	세미나실	Seminar Room



UMFF 2018 Festival Map

셔틀버스 안내

Shuttle Bus Information



울산시내 순환선 Yellow Line

배차간격 Interval
08:30 ~ 12:30 (60분/min)
13:30 ~ 22:30 (30분/min)

Y1 **신복환승센터**
Shinbok Bus Terminal

Y2 **범서읍행정복지센터**
Beomseo-eup Administrative Service Center

B **KTX 울산역**
KTX Ulsan Station

Y3 **언양공영주차장 (임시언양터미널)**
Eonyang Public Parking Lot

A **복합웰컴센터**
Complex Welcome Center

	Y1 출발 From Y1	A 출발 from A
첫차 First Departure	08:30	14:30
막차 Last Departure	17:45	22:30 (9.7 · 23:00)

울산역 순환선 Green Line

배차간격 Interval
09:00 ~ 22:00 (30분/min)

B **KTX 울산역**
KTX Ulsan Station

G1 **작천정 카페촌**
Jakcheonjeong Cafe Village

G2 **등억야영장(별빛극장)**
Dung-eok Camping Site (Starlight Cinema)

A **복합웰컴센터**
Complex Welcome Center

	B 출발 From B	A 출발 from A
첫차 First Departure	09:00	12:00
막차 Last Departure	18:00	22:00 (9.7 · 23:00)

남창 순환버스 Pink Line

배차간격 Interval
10:00 ~ 21:00 (120분/min)

P1 **남창2교사거리 버스승강장**
Namchang 2Bridge Intersection Bus Stop

P2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버스승강장**
Onsan Administrative Service Center

A **복합웰컴센터**
Complex Welcome Center

	P1 출발 From P1	A 출발 F rom A
첫차 First Departure	10:00	13:00
막차 Last Departure	18:00	21:00 (9.7 · 23:00)

경쟁부문
Competition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국제경쟁 부문은 '산악 영화'라는 독특한 장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다.

올해 국제경쟁 부문에는 2017년보다 128편이 많은 총 388편이 전 세계 42개국에서 출품됐으며, 본선 진출 작은 41개국의 27편이다.

등반과 다양한 산악활동을 통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알피니즘과 클라이밍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또한 방글라데시아, 파타고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의 폐해에 맞서 자연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담은 환경 관련 영화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388편의 전체 출품작 중에서 최종 선정된 27편인만큼 우수한 영화적 완성도는 물론, 다큐멘터리, 극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산악영화가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될 예정이다.

Entries from around the globe are submitted to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s International Competition, even with the very selective genre requirement of "mountain".

This year, there were a total of 388 entries – 128 more than in 2017 – from 42 countries around the world. Of those, 27 films from 41 countries will enter the final competition.

Some of the more noteworthy films give us insight about passionate people challenging themselves endlessly in climbing and in other mountaineering activities, as well as pose in-depth questions about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alpinism and climbing. There are also various environmental films dealing with the dedication and sacrifices by those trying to protect nature from the harmful consequences of global climate changes in places like Bangladesh, Patagonia, and Africa.

The 27 finalists selected among 388 are not only high in quality, but also diverse in genre, bringing documentary, fiction, and animation to our mountain film festival.

국제경쟁 시상 부문 및 상금
International Competition Awards

국제공모를 통해 본선에 오른 출품작을 대상으로 국제경쟁 심사위원회가 대상을 포함한 각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하여 폐막식에서 시상한다.

The films that were collected by an international open call and made into the final list will be reviewed by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They will select winners of each award and present them at the closing ceremory.

대상 Grand Prize	20,000,000 원(KRW)
알피니즘 작품상 Best Alpinism Film	5,000,000 원(KRW)
클라이밍 작품상 Best Climbing Film	5,000,000 원(KRW)
모험과 탐험 작품상 Best Adventure & Exploration Film	5,000,000 원(KRW)
자연과 사람 작품상 Best Nature & People Film	5,000,000 원(KRW)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Prize	5,000,000 원(KRW)
관객상 Audience Award	5,000,000 원(KRW)

예심 심사위원
Preliminary Jury

김세진
김세진은 국문학과 영화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시나리오 컨설팅과 스토리텔링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1970년대 국책영화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나리오와 연출, 영화학에 관한 다양한 강의경력과 칼럼 기고 등 저술도 지속하였으며, 전주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일해왔다.

KIM Se-jin
Kim Se-jin studied in Korean literature and film, and currently works on scenario consulting and storytelling. After majoring in theater and film at Hanyang University, she went to graduate school of the same university to research government-directed films of the 1970s. She has been lecturing about scenario, direction and film studies, and writing columns. She also has participated in the Jeonju IFF and the Busan ISFF as a jury.

한송이
영화평론가, 영화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오랫동안 영상제작과 시나리오 강사로 활동했다. 산악동호회 일원으로 다년간 활동한 바 있으나 무릎부상으로 활동을 접었다. 최근 다시 등반과 트레킹을 꿈꾸는 중이다.

HAN Song-i
Han Song-i has completed a Ph.D degree in film studies and has created films and instructed scenario writing for a while Film Critic. She was a member of a climbing society before she quit due to a knee injury. She has been dreaming recently of returning to climbing and trekking.

국제경쟁 심사위원회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마이클 파우즈
1978년 독일 언론 대학원에서 언론학과 정치학, 역사학을 수료한 후 바이에른 방송국에서 등산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현재까지 15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하고 편집해 오고 있다. 1984년에는 잡지의 알프스 관련 섹션을 담당했으며, 1992년부터 1998년까지는 편집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편집 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부터 독일테겐지국제산악영화제의 예술감독으로 활동중이다.

Michael PAUSE
In 1978, after completing the German School of Journalism and studies of political science as well as history, he began working for the Bavarian Broadcasting Company producing films for the mountaineering show. Since that time he has edited and directed well over 150 films for the show. From its premiere in 2003, he ia artistic director of the Tegernsee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세르지오 판트
이탈리아의 영화 프로그래머. 대학에서 영화학을 수학하고, 영화 기록보관원, 연구원으로서의 경험을 한 후, 시네마 리트로바토 영화제, 페자로영화제, 로마영화제 등등 다수의 영화제를 기획, 큐레이팅을 하며 경력을 이어갔다. 현재 트렌토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이며,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Sergio FANT
Sergio Fant is an Italian film programmer. After graduating in Film Studies and following an experience as film archivist and researcher, he went on conceiving, organizing and curating programs for several venues and festivals, collaborating with, among others, the Cinema Ritrovato Festival, the Pesaro Film Festival, the Rome Film Fest and etc. in Venice. He is a head programmer at Trento Film Festival and programmer of Locarno Film Festival.

파상 라무 셰르파 아키타
솔루쿰부 루클라 출신인 파상 라무 셰르파 아키타는 네팔 최초의 여성 산악 강사다. 네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제 산악 가이드로 활약 중이다. 2016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올해의 모험가로 선정됐으며 K2를 등정한 최초의 네팔 여성 산악인이다.

Pasang Lhamu Sherpa AKITA
Pasang Lhamu Sherpa Akita from Solukhumbu Lukla, is the first Nepalese women mountaineer's instructor. First Nepalese woman who started working as a mountain guide internationally. She was National Geographic's 2016 Adventurer of the Year, and the first Nepalese woman climbed to K2.

이명희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27년간 여성 등반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2001년 히말라야의 미답봉 원정, 2006년 알프스 그랑드조라스 북벽 등반, 2008년 파타고니아 파이네 중앙봉과 세로토레를 등반하였다. 2015년 강적크랙을 여성 최초로 등반한, 알파인 등반과 거벽 등반을 좋아하는 여성 산악인이다.

LEE Myeong-hui
Lee Myeong-hui has been a mountaineer for 27 years since her school days. As a member of The North Face climbing team, she has climbed unclimbed peaks of the Himalayas in 2001, the north face of the Grandes Jorasses of the Alps in 2006, and the central peak of Patagonian Paine and Corre Torre in 2008. In 2015, she became the first female to climb Gangjeok Crack and is deeply interested in alpine climbing and big wall climbing.

이재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김종학프로덕션의 프로듀서이자 ㈜필름몬스터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 「더킹 투하츠」, 영화 <역린>, <완벽한 타인>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하였고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한류드라마 우수작품상, 도쿄 드라마 페스티벌 외국드라마 특별상, MBC 연기대상 연출상 등 다수의 연출상,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LEE Jae-kyoo
Lee Jae-kyoo is now a producer at KIMJONGHAK PRODUCTION Co.,Ltd. and the representative of Film Monster Co.,Ltd. He directed many TV dramas including *Beethoven Virus*(2008) and *The King 2 Hearts*(2012) of MBC as well as films such as *The Fatal Encounter*(2014) and *Intimate Strangers*(2018). He won the best Excellence Award at the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the Special Prize for Foreign Dramas at the International Drama Festival in Tokyo, and many other awards for direction and best work.

국제경쟁 리스트
International Competition List

W
스티븐 슈와블 Steven SCHWABL
Canada | 2016 | 29min | Color, B&W | Fiction

몬타니스타스
Mountaineers
타티아나 그라우예라 Tatiana GRAULLERA
Mexico | 2016 | 22min | Color | Fiction

아파 셰르파의 이야기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에릭 크로슬랜드 Eric CROSLAND
Canada | 2017 | 14min | Color | Documentary

고산중독
Addicted to Altitude
파볼 바라바스 Pavol BARABAS
Slovakia | 2018 | 63min | Color, B&W | Documentary

바람의 땅
Land of the Wind
로라 벨린키 Laura BELINKY
UK, Argentina | 2017 | 18min | Color | Documentary

안전제삼
Safety Third
테일러 키팅, 시더 라이트
Taylor KEATING, Cedar WRIGHT
USA | 2016 | 27min | Color | Documentary

놀라운 적응력: 방글라데시
Adaptation: Bangladesh-Sea Level Rise
저스틴 드쉴즈 Justin DESHIELDS
Bangladesh | 2018 | 13min | Color | Documentary

베른트 아놀드-내면의 소리
Inwards
울프 보겐스타인 Ulf WOGENSTEIN
Germany | 2017 | 12min | Color, B&W | Documentary

울트라
Ultra
발라주 시모니 Balazs SIMONYI
Hungary, Greece | 2017 | 84min | Color | Documentary

니콜라스 뮐러의 삶과 꿈
Fruition, The Life and Dreams of Nicolas Müller
숀 피, 마르틴 룩싱거 Sean FEE, Martin LUCHSINGER
Switzerland | 2016 | 65min | Color, B&W | Documentary

부가부 우루카 II
Uruca II-Bugaboos Edition
에릭 그리고로브스키 Erick GRIGOROVSKI
Brazil, Canada | 2017 | 8min | Color | Animation

윈터서프 2
The Winter Surf 2: Passion
김동기, 김성은 KIM Dong-gi, KIM Seong-eun
Korea | 2018 | 20min | Color | Documentary

더트백: 프레드 베키의 전설
Dirtbag: The Legend of Fred Beckey
데이브 오리스케 Dave O'LESKE
USA | 2017 | 96min | Color | Documentary

사이코 버티컬
Psycho Vertical
젠 랜달 Jen RANDALL
UK | 2017 | 65min | Color, B&W | Documentary

이미지네이션
Imagination: Tom Wallisch
데이브 모솝 Dave MOSSOP
Canada | 2017 | 5min | Color | Fiction

도착하면 안 돼
Never Arrive, Ever
바르토시 리섹 Bartosz LISEK
Poland | 2017 | 61min | Color | Documentary

서핑 유럽
The Endless Winter II; Surfing Europe
매튜 크로커, 제임스 딘 Matthew CROCKER, James DEAN
UK | 2017 | 93min | Color, B&W | Documentary

최후의 벌꿀 사냥꾼
The Last Honey Hunter
벤 나이트 Ben KNIGHT
Nepal, USA | 2017 | 36min | Color | Documentary

돌아서지 않는다
Hansjörg Auer-No Turning Back
다미아노 레바티 Damiano LEVATI
Italy | 2017 | 30min | Color | Documentary

세뇨리따 마리아
Miss Maria, Skirting the Mountain
루벤 멘도자 Rubén MENDOZA
Colombia | 2017 | 90min | Color | Documentary

학교 가는 길
The Lonely Road
모함마드레자 하페지 Mohammadreza HAFEZI
Iran | 2017 | 36min | Color | Documentary

동강이
Stumped
테일러 키팅, 시더 라이트
Taylor KEATING, Cedar WRIGHT
USA | 2017 | 25min | Color | Documentary

수직의 마법사-하인즈 잭
Heinz Zak-A Free Spirit in the Vertical World
말트 로퍼 Malte ROEPER
Austria | 2017 | 47min | Color | Documentary

땡큐 포 더 레인
Thank You for the Rain
줄리아 다르 Julia DAHR
Norway, UK | 2017 | 87min | Color | Documentary

아름다운 패자들
Wonderful Losers: A Different World
아루나스 마텔리스 Arūnas MATELIS
Lithuania, Italy, Switzerland, Belgium, Latvia, UK, Ireland, Spain | 2017 | 71min | Color | Documentary

마지막 사냥꾼
The Last Ice Hunters
주어 브레첼니크, 로즐 브리가
Jure BRECELJNIK, Rožle BREGAR
Slovenia | 2017 | 71min | Color | Documentary

아이스 콜링
Ice Calling
벤야민 소토 페라리스, 크리스토발 드 알바 드 라 페냐
Benjamín SOTO FERRARIS, Cristobal DE ALBA DE LA PEÑA
Canada, Mexico | 2017 | 30min | Color | Documentary

넷팩상
NETPAC Awards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상영작 중 2016년 이후 만들어진 작품으로, 아시아 출신 감독이 만들고 제작국가가 아시아 국가인 작품을 대상으로, 최고의 아시아 영화 1편을 선정한다.

One best Asian film will be selected among those screened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t must have been made after 2016 by an Asian director and produced within Asia.

심사위원
Jury

임대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및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중국영화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등재되었다. 또한 최근 논문으로 「'중국영화발전사'를 넘어서: 중국영화사 기술이 직면한 몇 가지 의제」, 「리안의 초기작 혹은 경합하는 개념들: '전치'와 '트랜스' 개념을 중심으로」,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 개념과 유형」 등이 있다.

LIM Dae-guen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HUF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and Departmen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He gained both Bachelor's and Master's in Chinese language and was granted Ph.D. in Chinese Film Studies at HUFS. He is studying, lecturing and translating about Chinese Cinema, Popular culture and Cultural contents. He is a chairman of Asia Cultural Creativity Institute(ACCI) and appointed in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5~2018.

장센민
장센민은 프랑스 영화학교 페미스 출신으로, 중국독립영화제 조직위원이자 베이징영화학교 교수이다. 또한 그는 독립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배우, 평론가로 현재 중국독립영화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베이징에서 중국 독립영화의 제작지원 및 배급단체인 인디 워크숍과 ㈜헤븐 픽쳐스를 설립, 중국독립영화의 발전과 국제적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영화제의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ZHANG Xianmin
Zhang Xianmin is a graduated of FEMIS in France and is one of organizer of China Independent Film Festival and Prof. of Beijing Film Academy. He is also an independent film producer, actor, critic, and programmer at CIFF, Isaas, Qifang CC. He is founder of Indie Workshop and Heaven Pictures and producing independent films. Also he was a juror at BISFF, Clermont Ferrent, Guangzhou Doc, IFFR and etc. These works are making him the most active figure in Chinese Independent Cinema today.

필립 치아
영화 평론가이자 싱가포르의 팝컬쳐 매거진 빅오의 편집자인 필립 치아는 현재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와 족자-넷팩 아시아영화제와 유라시아영화제, 상하이국제영화제, 하노이국제영화제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동남아시아국제영화제의 공동설립자이며, 아시아 영화계에 대한 그의 공헌을 인정받아 키르기스스탄영화평론가협회, 베트남영화협회, 씨네마닐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다.

Philip CHEAH
Philip Cheah is a film critic and is the editor of BigO, Singapore's only independent pop culture publication. He is Advisory Council member of NETPAC, and is currently program consultant for the Jogja-NETPAC Asian FF, the Eurasia IFF, and Shanghai IFF. He co-founded the South-east Asian FF and is Advisor to the Hanoi IFF. He was given an award for Achievement from the Kyrgyzstan Film Critics in 2010, Vietnam Cinema Association in 2008, 8th Cinemanila IFF in 2006, and 9th Busan IFF in 2004.

넷팩상 리스트
NETPAC Award List

32킬로미터-60년
32km-60 Years
라하 메보우 Laha MEBOW
Taiwan | 2018 | 26min | Color, B&W | Documentary

바람과 함께 걷다
Walking with the Wind
프라빈 모르칼레 Praveen MORCHHALE
India | 2017 | 79min | Color | Fiction

바클리
Barkley
치우 리웨이 CHIU Li-wei
Taiwan, China | 2016 | 88min | Color | Animation

붉은곡
The Red Cave
신나리 SHIN Na-ri
Korea | 2018 | 15min | Color | Documentary

빅 피쉬
Big Fish
박재범, 김정석 PARK Jae-beom, KIM Jeong-seok
Korea | 2017 | 8min | Color | Animation

산속의 숨겨진 보물
Hidden Treasures in the Mountain
왕 다오난 WANG Dao-Nan
Taiwan | 2018 | 110min | Color | Fiction

산을 움직이는 강한 햇살
Sunshine that Can Move Mountains
왕 치앙 WANG Qiang
China | 2017 | 107min | Color | Fiction

수도원 아이들
A Little Wisdom
강우기 KANG Yuqi
Nepal, Canada, China | 2017 | 90min | Color | Documentary

알타이 스키 어드벤처
Altay Wild Snow
슈앙 리 Shuang LI
China | 2017 | 28min | Color | Documentary

윈터서프 2
The Winter Surf 2: Passion
김동기, 김성은 KIM Dong-gi, KIM Seong-eun
Korea | 2018 | 20min | Color | Documentary

징기스칸의 아이들
The Children of Genghis
졸바야르 도르즈 Zolbayar DORJ
Mongolia, USA | 2017 | 101min | Color | Fiction

학교 가는 길
The Lonely Road
모함마드레자 하페지 Mohammadreza HAFEZI
Iran | 2017 | 36min | Color | Documentary

호기심 소녀
A Curious Girl
라제시 프라사드 카트리 Rajesh Prasad KHATRI
Nepal | 2017 | 14min | Color | Fiction

흔들리는 산
Trembling Mountain
케상 체텐 라마 Kesang Tseten LAMA
Nepal | 2016 | 82min | Color | Documentary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가 일구어가는 미디어 숲[林],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 · 장비 등을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 시설입니다.

Contents 1

미디어체험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에 흥미를 갖고 방송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2

미디어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를 읽고 만들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령별, 대상별,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ontents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만든 방송콘텐츠입니다. 창작물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제작단 운영, 멘토링 시스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Contents 4

장비대여 · 시설대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제작 장비 및 제작시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비 숙련자에 한해 정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78
대표전화 052-960-7080
팩 스 052-960-7099
홈페이지 http://kcmf.or.kr/center/ulsan/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개막작 Opening Film

던월 The Dawn Wall

Asian Premiere

USA | 2017 | 100min | Color | Documentary

UC | 09.07 | 20:00
AC | 09.09 | 10:30

세계적인 암벽등반의 성지로 불리는 미국 요세미티 계곡의 엘케피탄, 그 중에서도 900미터가 넘는 직벽 던월은 지금껏 그 누구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불가능한 벽으로 여겨졌다. 지난 6년을 한결같이 던월에 매진한 토미 칼드웰과 케빈 조거슨. 무려 19일 간 벽에 매달린 채 먹고 자며 계속된 이들의 도전에 미디어가 몰려들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세기의 등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원정 등반 중 무장 반군의 포로로 붙잡혔던 트라우마, 이후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이혼까지 많은 고난을 겪은 토미 칼드웰은 던월 등반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토록 바랐던 성공과 동료애 사이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정을 내리는 토미 칼드웰, 그렇게 그는 진정한 등반가이자 어른이 된다. (최선희)

At El Capitan of Yosemite, known as a world attraction of climbing, the Dawn Wall is notorious for its height of over 900m and the angle, seemingly impossible for anyone even to try climbing. Tommy Caldwell and Kevin Jogerson have constantly endeavored to climb the Dawn Wall for the last 6 years. The media takes note of them as they spend 19 days eating and sleeping on the rock face, and the world pays attention to their thrilling and epochal challenge. Before dedicating himself to climbing the Dawn Wall, Tommy Caldwell had been through a series of ordeals including the traumatic incident of being captured by the armed rebel forces during an expedition in Kyrgyzstan, the amputation of a finger, and divorce. However, when Tommy Caldwell is forced to choose between the long-desired goal and his partner, he makes a decision without hesitation. Then he becomes a true climber and a real grown-up. (Billy CHOI)

조시 로웰

빅업프로덕션 창립자 조시 로웰 감독과 공동 감독 피터 모티머의 다큐멘터리 <King Lines>(2007)는 에미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로웰 감독은 형제 브렛과 함께 7년 동안 토미 콜드웰의 던월을 오르는 과정을 촬영했다.

피터 모티머

피터 모티머는 센더필름스를 암벽타기 DIY 비디오 제작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창립하였다. 대학 친구인 닉 로젠이 참여한 후로부터는 다큐멘터리, TV 방송 및 광고까지 제작하는 제작사로 성장했다.

Josh LOWELL

Josh Lowell is the Founder of Big UP Productions. With co-director Peter Mortimer, his documentaries have won awards, Emmys, and aired globally. He and his brother, Brett spent 7 years documenting Tommy Caldwell's quest to climb the Dawn Wall.

Peter MORTIMER

Sender Films started as a DIY rock climbing video by Peter Mortimer. He was joined by his college friend Nick Rosen and have since enlisted an amazing team to help grow into a global company that produces documentaries, TV series and commercials.

폐막작 Closing Film

클라우드보이 Cloudboy

Korean Premiere

Belgium, Sweden, Norway, Netherlands | 2017 | 77min | Color | Fiction

UC | 09.11 | 19:30

벨기에 편부 가정에서 소심한 12세 소년으로 성장한 닐라스, 그 해 여름, 스웨덴 깊은 산속에서 말코손바닥사슴을 키우며 사는 엄마의 재혼 가족을 방문하게 된다. 스웨덴 가족은 환대하지만, 닫힌 마음을 열지 않는 닐라스. 어느 날 닐라스는 가족이 아끼는 사슴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복동생들과 함께 사슴을 찾아 나서면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된다. 주인공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녹음기는 그가 세상과 단절하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도구였지만, 기능을 잃어버린 기계는 세상과 가족에게 마음을 열 신호탄으로 기능한다.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사슴은 닐라스의 현실과 환상의 경계이자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내적 장애물이다. 어린이 가족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감독의 유려한 영화언어는 관객을 백야의 스웨덴 푸르른 산으로 인도한다. (이정진)

Niilas is a shy 12-year-old boy living in a Belgian single father home. In the summer, he visits his mother and her new family living in the deep woods of Sweden raising moose. The Swedish family welcomes him, but Niilas does not open his heart. One day, one of the moose goes missing and Niilas and his stepsiblings embark on an unexpected journey to find it. The recorder that Niilas always carries with him is his tool to cut and withdraw himself from the world, but when it loses its functionality, it becomes a signal flare that indicates his opening up to the family and the world. Also, the moose that keeps appearing at important moments symbolizes the line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as well as an inner obstacle Niilas must overcome. The elegant filmic language of a director specializing in children's films takes us to the white nights of the blue Swedish mountains. (Jinna LEE)

메이케미너 클린크스포

그녀는 벨기에 KASK 영화학교에서 영화공부를 시작했다. 2009년 Jekino Distribution에서 지원받아 제작한 단편영화 <The Wishing Tree>로 졸업했다. 아이들을 위한 몇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고 가장 최근의 영화가 <Ki>이다.

Meikeminne CLINCKSPOOR

She started a film education at the Film School KASK in Belgium, where she graduated in 2009 with her short film *The Wishing Tree* which has been supported by Jekino Distribution. She wrote and directed a few shorts for children. The last one was *Ki*.

알피니즘
Alpinism

전문 산악인들의 등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를 보여주는 섹션으로, 알피니즘은 단순한 고산등반이라는 정의를 벗어나 등정 자체 그리고 등반 과정을 중요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올해 알피니즘 섹션의 상영작은 총 11편으로 산악계에 한 획을 그은 거장 산악인들의 등반 인생을 기리는 전기 영화와 함께 현재 활발하게 등반 중인 젊은 산악인들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들이 주를 이룬다.

알피니즘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크리스 보닝턴의 삶을 조망한 <크리스 보닝턴-산악인>과 미국 등반 계의 이단아이자 전설인 프레드 베키의 등반 열정을 유쾌하게 다룬 <더트백: 프레드 베키의 전설>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21번이나 오른 네팔의 아파 셰르파의 헌신을 아름답게 담아낸 <아파 셰르파의 이야기>를 통해 산악인들의 삶과 등반 철학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또 세상의 모든 산악 활동을 호주 체임버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웅장하게 펼쳐낸 <마운틴> 그리고 에베레스트의 등반 쓰레기 문제를 조명하는 <에베레스트 그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This section showcases the endless challenges and courage by professional mountaineers, especially since alpinism is not merely high-altitude climbing, but an ethical attitude emphasizing the climb itself and the climbing process. This year's Alpinism section will show 11 films. Some will pay tribute to the climbing life of giants in mountaineering, and other will provide deep insight into the inner side of young mountaineers actively climbing today.

There will be films that help us see the life and climbing philosophy of mountaineers: *Bonington-Mountaineer* takes a look into the life of Sir Chris Bonington, a living legend of alpinism; *Dirtbag*: *The Legend of Fred Beckey* is a cheerful film about passionate Fred Beckey, an American climbing maverick and legend; and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makes a beautiful portrayal of the dedication of Apa Sherpa, who has climbed Mount Everest 21 times. Other films add to the variety, including *Mountain*, which brings all the climbing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together in grand harmony with the Australian Chamber Orchestra, and *Everest Green*, which sheds light on the issue of garbage left behind in Mount Everest.

고산중독
Addicted to Altitude

Slovakia | 2018 | 63min | Color, B&W | Documentary

AC | 09.08 | 10:30

Asian Premiere

1980년대 히말라야 고산등반 역사 신기록을 연속으로 갈아치운 체코슬로바키아 산악계의 등반기록과 시대상, 인물들을 통찰력 있게 그려낸 다큐멘터리. 8천 미터 첫 원정인 낭가파르바트의 성공에 이어 마칼루 남서릿지 초등, 마칼루 남벽 초등, 다울라기리 서벽 초등, 남서릿지 알파인 스타일 초등, 초오유 동계 알파인 스타일 초등 등 세계 산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원정대 뒤에는 항상 이반 갈피 대장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지만, 1987년 에베레스트 남서벽 록밴드를 알파인 스타일로 등정한 4명의 최강 정예 등반가들의 실종 사고 이후 슬로바키아의 고산등반은 공산주의 해방과 더불어 중단되는데… (배경미)

Addicted to Altitude is a documentary about the golden age of Slovak Himalaya mountaineering in the 1980s, with an insightful look at their climbing records, the times, and the characters. Following the first successful ascent of the 8,000m Nanga Parbat, Slovak mountaineers continued to impress the world with the first climbs of the southwest ridge and the south face of Mt. Makalu, the west face of Mt. Dhaulagiri and the southwest ridge of Mt. Cho Oyu during the winter. Behind these accomplishments stood Ivan Galfy and his behind-the-scenes dedication. In 1987, the four best climbers go missing during an Alpine style climb of the southwest rock band, and Slovak mountaineering comes to a halt along with the communist liberation. (Christine PAE)

파볼 바라바스

극한의 환경에서의 인간의 생존을 다루는 산악지향 모험영화 작가. 그의 영화들은 접근이 어려운 황무지에서 촬영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Pavol BARABAS

Author of a mountain-oriented and adventure films about people's survival in extreme conditions. His films were shot in inaccessible wilderness and likes to look for stories of the heroes of which go beyond their limits.

더트백: 프레드 베키의 전설
Dirtbag: The Legend of Fred Beckey

USA | 2017 | 96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09 | 16:30 | GV

Korean Premiere

'더트백'은 등반에만 전념하기 위해 모든 사회적 규범은 물론 직업까지 포기하고 유목민적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한다. 2017년 94세로 별세할 때까지 평생을 가족, 친구, 직업도 없이 오로지 등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간 미국 등반 계의 이단아이자 전설인 프레드 베키는 그래서 '더트백' 그 자체로 불린다. 허울뿐인 속세의 규범과 시스템을 천진하게 거부하며 90이 넘는 나이까지도 편법이나 쉬운 길은 생각조차 안하고 등반의 정도만을 고집했던 그의 삶과 순수한 열정에 어느새 고개가 끄덕여 지고 원조 '더트백'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최선희)

'Dirtbag' is addressed to one who discards all the social norms and even jobs to live as a nomad. So the legendary maverick Fred Beckey is a true 'Dirtbag', as he lived only for climbing without family, friends or a job until he passed away in 2017 at the age of 94. You might nod your head and be fascinated by the charm of the original 'Dirtbag' as you watch his life full of pure passion for climbing, innocently refusing secular social norms, as well as expedient and easy ways. (Billy CHOI)

데이브 오리스케

데이브 오리스케는 지난 10년동안 중국, 북미, 태평양 연안 북서부 등지에서 프레드 베키를 촬영했다. 1998년 제작사를 설립했으며 첫번째 다큐멘터리 영화는 텔루라이드 산악영화제와 골든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Dave O'LESKE

He spent the past decade filming the Fred Beckey in China, North America his Pacific Northwest home. He found production company in 1998, and his first documentary won Awards at Mountainfilm in Telluride and Golden Film Festival.

마운틴
Mountain

Australia | 2017 | 74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10 | 13:30

영화와 음악의 멋진 합작. 명망 있는 다큐멘터리 연출가 제니퍼 피돔과 세계 최고의 체임버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호주 체임버 오케스트라(ACO)가 협업해 만들었다. 22개국을 넘나들며 2,000여 시간 동안 촬영한 장엄한 산악 풍경 위에 ACO의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정교하게 오버랩된다. 눈 덮인 봉우리를 오르는 등반 행위를 비롯해 수직과 수평의 산악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산악 활동은 매혹적인 음향 아래 하나의 춤이 되고, 초대형 뮤지컬이 된다. 배우 윌럼 더포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장보영)

This is an excellent mix of film and music. Renowned documentary director Jennifer Peedom and one of the world's best Chamber Orchestras, the Australian Chamber Orchestra (ACO), collaborated for this film. A great performance from ACO delicately overlaps on top of majestic scenes shot for over 2,000 hours from 22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climbing on the peaks covered with snow, every kind of mountaineering activity at horizontal and vertical mountains becomes a dance under fascinating sound and makes a large scale musical. Famous actor Willem Dafoe narrates. (JANG Bo-young)

제니퍼 피돔

피돔은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잘 묘사하기로 알려져 있다. <Sherpa>(2015), <Mirade on Everest>(2008)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Sherpa>(2015)를 촬영하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타기도 했다.

Jennifer PEEDOM

Peedom is well known for her gripping, intimate portraits of people in extreme circumstances. She has multiple internationally renowned documentaries such as *Sherpa*(2015), *Miracle on Everest*(2008). Jen went to Everest to film *Sherpa*(2015).

사이코 버티컬
Psycho Vertical

UK | 2017 | 65min | Color, B&W | Documentary

GC | 09.08 | 16:30

Asian Premiere

영국 웨일스 출신의 클라이머 앤디 커크패트릭의 베스트 셀러 자서전인 『사이코 버티컬』을 바탕으로, 요세미티 남쪽 바다(A4급, 24피치) 루트를 18일간 단독 등반한 스토리. 복잡한 삶과 등반 동기에 대한 날카롭고 감동적인 본인의 내레이션과 벽과의 사투 속에서 시간과 의식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추억들이 스며드는 흥미로운 화면들. 알프스 드류에서 피츠로이, 남극까지, 요세미티 엘케피탄 오로라, 탠저린 트립, 레티센트 월 솔로 등반 등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18일간 벽에서 먹을 물과 식량을 홀링하면서 홀로 포타레지를 펼치고 접는 그만의 고독한 등반이 강렬한 영감의 피사체로 펼쳐진다. (배경미)

Based on the Welsh climber Andy Kirkpatrick's bestselling autobiography of the same name, *Psycho Vertical* is about his 18-day solo ascent in the Yosemite South Seas (grade A4, 24 pitch). Kirkpatrick provides a penetrating and emotional narration about his complicated life and motive for climbing, while the scene changes from his struggles with the big wall to memories from the past. Behind his fantastic career of climbing in the Alpes Dru, Fitz Roy, Antarctica, Yosemite El Capitan Aurora, Tangerine Trip, and Reticent Wall, there is the inspiration of the solitary 18 days in which he alone was hauling food and water, and setting up a portaledge. (Christine PAE)

젠 랜달

젠 랜달 감독은 BBC, Channel 4, 센더필름스와 유명 브랜드인 Black Diamond, Lowe Alpine, Rab과 함께 작업을 했고, 감독의 영화들은 밴쿠버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였다.

Jen RANDALL

Jen Randall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She has worked with BBC, Channel 4, Sender Films, and with brands such as Black Diamond, Lowe Alpine and Rab. Her films were awarded at film festivals including Vancouver and so on.

크리스 보닝턴-산악인
Bonington-Mountaineer

UK | 2017 | 80min | Color | Documentary

SC | 09.09 | 10:00 | GV

Korean Premiere

50여 년간 한결같이 남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미답봉만 골라서 도전한 진정한 알피니스트이자 동시대 최고의 산악인이었던 영국의 크리스 보닝턴 경의 삶과 등반에 대한 이야기. 영국인 최초로 알프스의 아이거 북벽을 오른 그는 히말라야로 진출한다. 파키스탄 히말라야의 바인타브락, 일명 오거봉 등반은 고산 등반가로서 그의 입지를 굳혔다. 이어 안나푸르나 남벽과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으로 히말라야 거벽 등반 시대를 열었다. 겸손한 태도와 진심 가득한 눈빛에서 그의 삶과 등반에 대한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신영철)

A story about the life and mountaineering of a true Alpinist, the British mountaineer Sir Chris Bonington, who for 50 some years has continued to challenge himself to only those mountains not yet ascended. After becoming the first British man to ascend the North Wall of the Eiger in the Alps, he took on the Himalayas. He made himself known as an Alpinist with his ascent to the Baintha Brakk (The Ogre) of the Pakistan Himalayas. Since then, he has paved the way for Himalayan climbing with his expeditions to the South face of Annapurna and the Southwest face of Mount Everest. His humility and honesty is notable as we come to know his philosophy on life and mountaineering in this documentary. (SHIN Young-chul)

브라이언 홀

브라이언 홀은 에베레스트 같은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 가이드이다. 주요 작품들은 BAFTA에서 수상한 <터칭 더 보이드>(2004)가 있고 SteepEdge의 공동 창립자이다.

Brian HALL

Throughout his career Brian Hall has been a Mountain Guide, climbing the highest levels like Everest. He won the BAFTA award for <Touching the Void>(2004) and the recent Everest film. He co-directed the SteepEdge.

키스 패트리지

카메라맨이자 영화 제작자 키스 패트리지는 세계에서 험준하고 멋진 환경을 찍으면서 에미상, BAFTA에서 수상 및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Keith PARTRIDGE

Cameraman and filmmaker Keith Partridge has been to the world's most hostile and spectacular environments, capturing the essence of adventure in numerous extreme films, winning the Emmy, BAFTA and international film awards.

울주세계산악문화상 강연
UMCA's Lecture

일시 9월 8일(토) 16:00 ~ 18: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Time Sep. 8(Sat) 16:00 ~ 18: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울주세계산악문화상 강연: 크리스 보닝턴 경

2018년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세계산악문화상의 수상자 크리스 보닝턴 경의 특별 강연은 9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된다. 1996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은 크리스 보닝턴 경은 알피니즘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등반가이자 모험가이다. 이번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관객들에게 등반과 그의 삶을 들려주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UMCA's Lecture: Sir Chris BONINGTON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18's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recipient Sir Chris Bonington will give a special lecture on Saturday, September 8. As a mountaineer and adventurist, Bonington was knighted by the queen of England in 1996, and is known as a living legend in alpinism. He will visit Korea to tell us about his life and climbing during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크리스 보닝턴 경

1934년 영국의 런던, 햄스테드에서 태어난 크리스 보닝턴 경은 세계적인 알피니스트이자 탐험가, 작가 그리고 사진가이다. 안나푸르나2봉, 몽블랑 프레네이 중앙 필러, 오거, 콩구르 등 많은 루트를 개척했고, 여든의 나이에 올드맨 오브 호이를 재등반했다. 1996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고, 2015년 황금피켈상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Sir Chris BONINGTON

Sir Chris Bonington (born 1934, Hampstead, London, England) is a world class alpinist, explorer, author and photographer. He has pioneered numerous routes including Annapurna II, the Central Pillar of Freney in Mont Blanc, the Ogre, and Kongur. He also reclimbed The Old Man of Hoy when he was 80 years old. He was knighted in 1996, and received the Piolets d'Or Carriere –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s in 2015.

사회 신영철

18차례에 걸쳐 히말라야를 원정한 산악인이자 작가. 1995년 대통령 표창, 2011년 한국산악회 이은상 상을 받았다. 저서로 『히말라야 이야기』, 『가슴속에 핀 에델바이스』, 『걷는 자의 꿈, 존 뮤어 트레일』 등이 있으며, 1989년 월간 「사람과 산」 창간 멤버로 참여해 현재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MBC다큐멘터리 「사람, 산」의 메인 MC로 방송을 이끌고 있다.

Moderator SHIN Young-chul

Shin Young-chul climbed the Himalayas 18 times, and received a presidential citation in 1995 and Lee Eun-sang Awards in 2011. He wrote books including *The story of the Himalayas, Edelweiss Blooming in the Heart and John Muir Trail*. He is the founding member and executive editor of *Monthly Man & Mountain* and worked as the host of a documentary *People, Mountain*

돌아서지 않는다 Hansjörg Auer-No Turning Back

Asian Premiere

Italy | 2017 | 30min | Color | Documentary

세계 최고의 산악인에게 수여하는 황금 피켈상의 후보였으며 알피니즘의 미래라 불리는 전도유망한 등반가 한스요르그 아우어. 그는 요란한 인기나 명성에 흔들리지 않고, 등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지켜 내고자 한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프리 솔로 등반을 놓지 않는다. 산이 주는 감동을 잃지 않으려는 젊은 알피니스트의 고뇌와 노력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최선희)

Hansjörg Auer was a finalist for the Piolets d'or, which is awarded to the world's best mountaineer, and also a promising climber dubbed the future of Alpinism. Not swayed by the fame and popularity, he maintains his pure passion for climbing through perilous free solo climbs. Meet the young Alpinist's sufferings and exertions as he holds fast to the inspiration given by the mountain. (Billy CHOI)

AC | 09.09 | 13:30

다미아노 레바티

친절한 엔지니어인 다미아노 레바티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포토그래퍼이자, 스키어, 사이클리스트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Damiano LEVATI

Damiano Levati, a kindly mannered engineer, is an unconventional photographer, a skier, a cyclist and a father of two.

루낙 리 Lunag Ri

Korean Premiere

Germany, Nepal | 2016 | 19min | Color | Documentary

네팔의 산악가이드였던 아버지와 오스트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비드 라마는 태생적으로 '오름짓을 향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알파인 등반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던 그는 콘래드 앵커와 함께 쿰부지역의 미답봉 루낙리(6,907m)에 도전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인 네팔을 찾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두 사람을 가로막는데… (곽정혜)

Born to an Austrian mother and a father who was a mountain guide in Nepal, David Lama believes that he is born with "DNA geared towards climbing". While testing his limits as an Alpine climber, he returns to Nepal for the first time as an adult with Conrad Anker to face the Lunag Ri(6,907m) in Khumbu that has yet to see a climber reach the summit. However, unexpected difficulties await them... (GWAK Jeong-hye)

AC | 09.07 | 12:30

요아킴 헬링거, 한스 피터 스타우버, 크리스찬 슈미트

헬링거는 스포츠와 야외활동 및 모험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스타우버의 작품은 유럽 산맥의 정상을 고급스럽게 묘사하고 산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준다. 슈미트는 모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하였고,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Joachim HELLINGER, Hans-Peter STAUBER, Christian SCHMIDT

Hellinger specializes in the field of sports, outdoors and adventure. Stauber's film shows the people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mountains. Schmidt is known for his award-winning films that tell about the protagonists in the realm of adventure.

몬타니스타스 Mountaineers

Asian Premiere

Mexico | 2016 | 22min | Color | Fiction

함께 산에 올랐던 등반 동료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구조 작업을 망설이며 남아 있는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그 존재가 서서히 잊혀져 간다. 고산 등반 시 산악인들이 느끼는 동료애와 이기심 사이의 갈등과 혼란, 고립감과 공포를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한 영상과 정적인 연출로 포착해냈다. 등반의 의미와 윤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온다. (최선희)

His fellow climbers disappear one by one, and even the remaining ones hesitating on a rescue slowly forget him. The film talks about mountaineers' feelings of friendship and selfishness, conflict and confusion, isolation and fear – all in a beautiful yet desolate, silent production. The meaning and the basic question about ethics of climbing ring a resonant sound. (Billy CHOI)

AC | 09.08 | 19:30
GC | 09.09 | 10:30 | GV

타티아나 그라우예라

주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시크릿 월드>를 선보였다.

Tatiana GRAULLERA

She has developed mainly as a producer. She is currently producing documentaries. Among her outstanding works in 2012, she premiered *Un Mundo Secreto* at the Berlin IFF.

시험의 길 Viacruxis

Asian Premiere

Spain | 2018 | 11min | Color, B&W | Animation

한걸음 한걸음 암벽을 오르는 지난한 과정, 목숨을 위협하는 낙석, 비좁고 불편한 비박. 험난한 고산등반을 앙증맞은 인형 애니메이션으로 귀엽게 표현해냈다. 하지만 영화는 고산등반의 현실과 본질을 심도 깊게 다룬다. 최고를 향한 경쟁, 이기심, 명성의 허망함을 예리하게 비판하며, 산에 오르는 행위 그 자체가 주는 원초적 즐거움과 동료애의 소중함을 따끔하게 일깨운다. (최선희)

The impossible step-by-step climbing of a rock face, life threatening rockslides, tight and uncomfortable bivouacs; a precipitous mountain climb comes to life as a charming animation in a film that takes an in-depth look at the reality and essence of mountain climbing. There is stern criticism of the futility of fame, selfishness, and competition, as well as a sharp reminder of the value of friendship and happiness from the actual climb. (Billy CHOI)

GC | 09.08 | 10:30

이그나시 로페스 파브레가스
1993년에 바르셀로나의 에스콜라 마사나 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Ignasi LÓPEZ FÀBREGAS
Graduated for Escola Massana in Barcelona 1993.

아파 셰르파의 이야기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Korean Premiere

Canada | 2017 | 14min | Color | Documentary

12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포터로 시작해 전문 셰르파가 되어 21번이나 에베레스트를 오른 히말라야 등반 계의 전설인 아파 셰르파. '네팔의 진정한 보물은 히말라야가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작은 거인 아파 셰르파는 자신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네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한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간다. (최선희)

Apa Sherpa lost his father at 12 and began working as a porter to support his family. He became a professional Sherpa and a Himalayan legend who has climbed Mount Everest 21 times. The little giant believes that "the real treasure of Nepal is not Himalaya, but the people who live under its wings." Not satisfied with his own success, Sherpa continues to take steps to bring a happy future for other Nepali children. (Billy CHOI)

GC | 09.09 | 13:30

에릭 크로슬랜드
캘거리 출신인 크로슬랜드는 셰르파시네마 소속 감독이다. 크로슬랜드는 로키 산맥에서 받은 감동을 영상으로 표현해왔다. 현재까지 TV방송 162편, 장편 10개, 광고 2개를 제작하였다.

Eric CROSLAND
Crosland, Director of Sherpas Cinema is from Calgary Alberta. The Rocky Mountains left an imprint on Crosland's life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his films. He has created over 162 TV episodes, 10 feature length films and 2 broadcast commercials.

에베레스트 그린 Everest Green

Asian Premiere

France | 2017 | 53min | Color | Documentary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는 등반 시즌이면 많은 산악인이 몰려 북적거린다. 네팔정부가 비싼 입산료를 받아도 그 숫자는 매년 늘어 나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감독은 원정대가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그 자체가 많은 예산이 드는 위험한 원정이기도 하다. 클린 등반을 향한 새로운 알피니즘 정신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는 영화. (신영철)

The world's highest mountain, Mount Everest, bustles with mountaineers during the climbing season. Their numbers continue to increase every year even though the Nepali government charges them a hefty sum in royalties. Pollution was sure to follow, and is increasingly getting worse. The director collects the waste left behind by other expeditions, but that in itself is a dangerous and costly expedition. The film begs for a reflection on a new Alpinism spirit for cleaner climbing. (SHIN Young-chul)

AC | 09.10 | 16:30 | GV

장 미셸 조르다
장 미셸 조르다는 네팔의 히말라야부터 페루의 안데스 코르디에라 산맥까지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아내는 것을 사랑한다.

Jean-Michel JORDA
He has travelled all over the world, from the Nepalese Himalayas to the Cordillera mountain range in Peru. He loves meeting people who talk about their areas and representing them in his documentaries.

클라이밍
Climbing

암벽등반, 스포츠 클라이밍, 빙벽등반 등 다양한 분야의 등반영화를 즐길 수 있는 섹션으로 총 11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상영작의 특징을 '도전'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지역적,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클라이머들의 노력과 성취를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여성 최초로 5.15a 급 루트 등반에 성공한 마고 헤이스의 <돌파요정>과 한 손이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등반을 즐기는 여성 클라이머의 이야기인 <동강이>는 여성 클라이머의 뜨거운 열정을 전해준다. 캐나다 최대 빙벽에 도전하는 멕시코 등반가들에 대한 <아이스 콜링>과 북극지역인 캐나다 배핀 섬으로 등반 모험을 떠난 벨기에와 이탈리아 팀의 <코코넛 커넥션>에선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등반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현대 도시인의 고독과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을 라인홀트 메스너의 에베레스트 단독 등반과 코믹하게 조합시킨 참신한 산악영화 <W>도 주목할 만하다.

The section is made up of 11 films about different areas of climbing, including rock climbing, sport climbing, and ice climbing. This year's films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challenge". Most of the films deal with the struggles and accomplishments of the climbers who endlessly challenge themselves to journey beyond their own physical and regional limits.

The heated passion of two women comes through in *Break on Through*, a film about the first woman to climb a route graded 5.15a, Margo Hayes, and *Stumped*, about a woman climber who enjoys climbing despite missing one hand. Meet climbers who never lose their cool and laughter even in extreme conditions in *Ice Calling*, a film about Mexican climbers attempting to climb Canada's largest ice cliff, and *Coconut Connection*, about a team of Belgian and Italian climbers exploring Baffin Island in Northern Canada. Noteworthy is the original mountain film *W*, which brings together with a comical twist Reinhold Messner's solo climb of Mount Everest and a modern city dweller's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and loneliness.

W

Asian Premiere

Canada | 2016 | 29min | Color, B&W | Fiction

산에서 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대도시로 내려와 노동자로의 삶을 시작한 남자. 여전히 혼자이지만 어딜 가던 그를 따라다니는 거대한 광고탑 위의 W 싸인.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추운 겨울날 홀로 그곳을 오르는데… 현대 도시인의 고독과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을 라인홀트 메스너의 에베레스트 단독 등반과 코믹하게 조합시킨 참신한 산악영화. (최선희)

The man moved from the mountains to live among people in the city. Though still alone, everywhere he goes he sees an enormous W sign atop an advertisement tower. To expose its meaning, he begins to climb it on a cold winter day… The film is a comical combination of Reinhold Messner's solo climb of Mount Everest and a lone, modern city dweller's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Billy CHOI)

GC | 09.08 | 16:30 | GV

스티븐 슈와블
스티븐 슈와블은 다재다능한 예술가이다. 작가로서는 소설책 두 권과 여러 연극 대본을 썼고 현재는 록밴드 The del Maestros와 공연하고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제작 준비 중이다.

Steven SCHWABL
Steven Schwabl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He has written two novels and a series of short plays. Currently, he performs with the rock band The del Maestros, acts on stage and is in pre-production for a new documentary film.

돌파요정 Break on Through

Korean Premiere

USA | 2017 | 26min | Color | Documentary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클라이머 중의 한 명인 마고 헤이스. 어린 시절 체조선수로 활동하다 발 부상을 당한 뒤 재활을 위해 클라이밍을 시작한 그는 10살 무렵부터 아예 클라이밍으로 전향한 후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각종 유소년 대회를 휩쓴다.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가진 그는 2017년 2월, 스페인의 '라 람블라' 루트 9a+(5.15a)를 완등한 최초의 여성이 된다. (곽정혜)

World-renowned climber Margo Hayes was a gymnast as a child. She began climbing as a means of rehabilitation when she injured her foot, but began to climb in earnest when she turned 10. Showing a natural talent for climbing, she swept through youth events. This passionate lady becomes the first woman to climb the "La Rambla" route in Spain, graded 9a+ (5.15a). (GWAK Jeong-hye)

AC | 09.10 | 19:30

피터 모티머, 매티 홍, 닉 로젠
센더필름스 창립자 모티머는 대학교 친구인 로젠과 함께 센더필름스를 성공적인 팀으로 성장시켰다. 홍은 타고난 운동실력으로 여러 암벽타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험한 바위산에서의 촬영에 익숙하다.

Peter MORTIMER, Matty HONG, Nick ROSEN
Mortim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and was joined by his college friend Rosen to help grow Sender into a leading adventure film company. Hong was born to climber parents and is a supernaturally talented climber with impressive competition results

동강이 Stumped

Korean Premiere

USA | 2017 | 25min | Color | Documentary

선천적으로 한 손 없이 태어난 여성 클라이머 모린은 자신의 장애를 농담으로 받아 넘길 정도로 밝고 유쾌한 성격이다. 그녀가 바라는 건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인생승리라는 동정과 편견이 깔린 시선이 아니라 그냥 좋은 클라이머가 되는 것이다. 모린을 비롯한 장애인 클라이머들의 등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세상을 향한 솔직한 외침을 유머 가득한 패러디로 발랄하게 담아냈다. (최선희)

Female climber Maureen was born missing an arm, but retains a cheerful disposition. She doesn't want to be known just as a successful one-armed climber, but just as a good climber. The film shares the voice of Maureen and other handicapped climbers' passion for climbing and their honest feelings, full of humor and parodies. (Billy CHOI)

SC | 09.09 | 13:30
WUC | 09.11 | 16:00

테일러 키팅, 시더 라이트
라이트는 노스페이스의 프로 등반가면서 모험과 스토리텔링에 사랑에 빠졌고, 키팅은 수입이 전혀 없는 등반가다. 두 모험가들은 주 5시간 근무시간과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시더라이트프로덕션을 창립하였다.

Taylor KEATING, Cedar WRIGHT
Wright is a longtime professional climber for The North Face and has married his love for adventure and storytelling. Keating is also a climber but makes a grand total of $0 doing so. Together they make up Cedar Wright Productions, a production house dedicated to the 5 hour work week and passion projects.

라이프 코치 Life Coach

Asian Premiere

USA | 2017 | 13min | Color | Documentary

원래는 전문 등반가였으나 현재는 등반 보다는 영화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르넌, 등반을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반면 등반이란 한가지 목표만을 향해 직진하는 십년지기 친구 알렉스는 아무리 힘들어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놓치지는 말라고 조언한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절친 사이의 사려 깊은 배려와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는 아름다운 단편. (최선희)

Renan, originally a professional climber, is frustrated that he is not able to climb anymore while he is focused on making films. His decade old friend Alex, who has walked a straight path to his one goal of climbing, advises him to remember his true self when things get tough. The thoughtful consideration between the two best friends warms the screen in this short. (Billy CHOI)

AC | 09.10 | 16:30

르넌 오즈턱

캠프4콜렉티브 설립자 중 한 명이자, 최근 10년간 노스페이스 선수로 활동 중이다. 자연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가 제작한 산악 영화는 산악 영화계는 물론 세계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Renan OZTURK

One of the founders of Camp4 Collective, and a member of The North Face athlete team for the last 10 years. By telling stories about the connection to the natural world, the films have presence in the mountain filmmaking community and worlds.

베른트 아놀드-내면의 소리 Inwards

Asian Premiere

Germany | 2017 | 12min | Color, B&W | Documentary

일명 맨발 클라이머로 불리는 베른트 아놀드는 2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들을 초등한 장본인이다. 어린 시절부터 독일 작센 주의 사암 봉우리에 900여 개 루트를 개척하고 절친 쿠르트 알버트와 파타고니아 거벽, 피츠로이 중앙봉 등을 등반하며 모험의 세계를 확장해간다. 클라이밍을 존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등반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데… (배경미)

Known as the barefoot climber, Bernd Arnold has made first ascents in the world's most harrowing routes for some 20 years. Since his youth, he has pioneered 900 routes in the Saxonian sandstones in Germany. With his best friend Kurt Albert, he has climbed the Patagonia, the central peak of Fitz Roy, etc. Believing that climbing is at the center of his existence, he focuses on the inner world of climbing. (Christine PAE)

GC | 09.09 | 16:30

울프 보겐스타인

1979년생이다. 2003년 호주여행 이후에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카메라맨, 영화 제작자, 편집자로서 다양한 TV채널, 광고, 뮤직 비디오 등을 만들었다.

Ulf WOGENSTEIN

Born in 1979. In 2003 he traveled around Australia. After this traveling, he got interested in making movies and documentaries. He's been creating images as a cameraman, filmmaker and editor for different TV channels, advertising, music video and so on.

부가부 우루카 II Uruca II-Bugaboos Edition

Korean Premiere

Brazil, Canada | 2017 | 8min | Color | Animation

밴프산악영화제에 게스트로 참가한 브라질의 에릭 그리고로브스키 감독은 캐나다의 거대한 바위산과 자연경관에 영감을 받아 부가부산의 우루카 루트를 등반하는 휴고와 리페를 모델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완성했다. 얼어붙은 고산 거벽에서 펼쳐지는 선등자의 미세한 등반동작과 확보물 이탈, 추락 직전 아슬아슬한 선등자의 심리와 후등자와의 소통문제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배경미)

Brazilian director Erick Grigorovski who was a guest at Banff Mountain Film Festival, has completed an animation film inspired by Canada's majestic landscape and rock mountain, based on the climb of the Bugaboos, Uruca by Hugo and Lipe. Watch for the leader's fine climbing motions, the out-of-control procurement, the leader's mentality when facing a near miss fall, and poor communication. (Christine PAE)

SC | 09.09 | 13:30 | GV
WUC | 09.11 | 16:00

에릭 그리고로브스키

그리고로브스키는 2009년도에 밴프영화제에 게스트로 참여했을 때 캐나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풍경이 좋은 곳들을 찾아다녔다. 특히 부가부에서 영감을 받고 <부가부 우루카 II>를 제작하게 되었다.

Erick GRIGOROVSKI

In 2009, Grigorovski's life changed when he fell in love with Canada while he was a guest at Banff Mountain Film Festival. He moved to Canada permanently and enjoyed the landscapes like the ever-stunning Bugaboos, which inspired the story of *Uruca II-Bugaboos Edition*.

아이스 콜링 Ice Calling

Asian Premiere

Canada, Mexico | 2017 | 30min | Color | Documentary

설산과 빙벽이 전혀 없는 멕시코. 에베레스트 북벽을 오른 최초의 멕시코인 헥터와 그가 등정할 때 9살 소년이었던 빙벽등반 무경험자 다니엘. 둘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빙벽인 '슬립스트림'을 오르기 위해 2016년 4월 캐나다로 향한다. 과거 12명의 사상자를 냈던 등반길이 950미터의 악명높은 이 얼음폭포는 루트 상단에 거대한 세락까지 존재하는데… (배경미)

Mexico has no ice walls or snow-covered mountains. Héctor was the first Mexican to reach the north face summit of Mt. Everest, and Daniel, who was nine when Héctor reached the top has no ice climbing experience. The two head to Canada in April 2016 to climb the world's biggest ice wall, the Slipstream. The infamous 950-meter high icefall with a giant serac at the top has caused 12 casualties thus far... (Christine PAE)

SC | 09.08 | 13:30 | GV

벤야민 소토 페라리스, 크리스토발 드 알바 드 라 페냐

그들은 팀으로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공동 감독하고 촬영했다. 모험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며 모험의 진정한 본질과 캐릭터를 찾았다. 그들의 작업은 경험과 서술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Benjamín SOTO FERRARIS, Cristobal DE ALBA DE LA PEÑA

They have worked as a team, co-directing and co-photographing their most projects. They specialized in adventure sports, finding the real essence of adventure and their characters. Their work focuses in the experience and in the story as the narrative element.

안전제삼 Safety Third

Korean Premiere

USA | 2016 | 27min | Color | Documentary

'일은 최소한, 등반은 최대한'이 인생의 목표인 27세의 브래드에게 등반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열정과 꿈 그 자체이다. 가난하지만 유명세나 스폰서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남들은 몸을 사리는 위험하고 대담한 등반만 골라서 하는 괴짜지만 고수들 사이에선 최고로 인정받는다.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 암벽 등반의 기본 정신임을 유쾌하고 재기발랄한 방식으로 상기시킨다. (최선희)

"Minimum work, maximum climbing" is the life motto of 27-year-old Brad. Climbing is not a mere sport for him, but his dream and his passion. Though poor, he is not interested in fame or sponsors. He chooses only the most dangerous and daring climbs others shy away from. Among the elite, he is recognized as the best. The film is a cheerful and witty reminder that a bit of rashness is one of the fundamental spirits of rock climbing. (Billy CHOI)

SC | 09.09 | 13:30
WUC | 09.11 | 16:00

테일러 키팅, 시더 라이트

라이트는 노스페이스의 프로 등반가면서 모험과 스토리텔링에 사랑에 빠졌고, 키팅은 수입이 전혀 없는 등반가다. 두 모험가들은 주 5시간 근무시간과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시더라이트프로덕션을 창립하였다.

Taylor KEATING, Cedar WRIGHT

Wright is a longtime professional climber for The North Face and has married his love for adventure and storytelling. Keating is also a climber but makes a grand total of $0 doing so. Together they make up Cedar Wright Productions, a production house dedicated to the 5 hour work week and passion projects.

코코넛 커넥션 Coconut Connection

Asian Premiere

Belgium | 2017 | 36min | Color | Documentary

캐나다 북부 배핀섬은 북극권이므로 백야가 있고 날씨가 험하다. 이곳엔 거벽이 존재하기에 골수 클라이머들만 찾는 별천지. 벨기에 클라이머 2명, 이탈리아인 3명이 요트를 타고 거벽에 접근한다. 엄혹한 도전과 자연 속에서도 음악을 즐기는 유쾌한 클라이머들.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을 받은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다. (신영철)

Baffin Island in northern Canada is part of the Arctic range with white nights and rough weather. There are also large mountain cliffs sparkling with stars sought after by hard core climbers. Two Belgian climbers and three Italians approach the cliff on a boat. The cheerful climbers enjoy music even in the face of harsh and brutal nature. This is a new film by Special Jury Prize winner of the 2n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HIN Young-chul)

SC | 09.10 | 16:00

숀 빌라누에바 오드리스콜

숀 빌라누에바 오드리스콜은 암벽 등반 모험가이면서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거벽 등반을 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영화인이다.

Sean VILLANUEVA O'DRISCOLL

He is an adventure rock climber and filmmaker who travels the world in search of free climbing big walls.

반란의 계곡 Valley Uprising

USA | 2014 | 99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10 | 10:30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요세미티 계곡은 한 해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암석인 엘 케피탄과 3,000미터가 넘는 암벽이 즐비한 이곳은 반항심으로 똘똘 뭉친 미국 등반가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등반을 즐기는 자유분방한 등반가들의 모습을 풍성한 자료 영상으로 발랄하게 담아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낸다. 올 봄 향년 73세로 타계한 요세미티 등반 개척의 선구자이자 '독불장군'으로 불렸던 짐 브리드웰의 생전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최선희)

Located in California, Yosemite Valley is one of America's favorite national parks, visited by over three million tourists every year. Home to rows of boulders over 3,000m high and the world's highest rock wall, El Capitan, it is also a sacred climbing ground to American daredevil climbers. The film is a riveting, vivid showcase of free-spirited climbers who have climbed here since the '50s. You'll also get to take a look at the living days of "Top Dog" Jim Bridwell (died spring 2018 at the age of 73), a pioneer of Yosemite climbing. (Billy CHOI)

피터 모티머, 닉 로젠

피터 모티머는 암벽타기 DIY 비디오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센더필름스를 창립하였다. 대학 친구인 닉 로젠이 참여한 후로부터는 다큐멘터리, TV 방송 및 광고까지 제작하는 제작사로 성장하였다.

Peter MORTIMER, Nick ROSEN

Sender Films started as a DIY rock climbing video by Peter Mortimer. He was joined by his college friend Nick Rosen and have since enlisted an amazing team to help grow into a global company that produces documentaries, TV series and commercials.

크리스 샤마의 딥워터 솔로잉 Above the Sea

Korean Premiere

USA | 2017 | 17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10 | 19:30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석회암 해벽을 로프없이 프리 솔로잉 등반하는 세계적인 클라이머 크리스 샤마의 초등 루트들이 짙푸른 지중해 파노라마 위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수직벽을 수십번 추락하면서 어느덧 35살의 가장이 된 그는 '엘 부파도르' 초등, '빅 피쉬' 초등에 이어, 딸에게 바치는 '알라샤' 루트 초등을 이뤄내는데… (배경미)

Globally renowned climber Chris Sharma, who is attempting a Free Solo Climb on a limestone wall on the coast of Majorca in Spain, is shown in panorama on the deep blue Mediterranean. Repeatedly falling from the sheer rock wall standing in the sea, he has become a 35-year-old father and succeeded in climbing on El Bufador, Big Fish and Alasha, which was dedicated to his daughter. (Christine PAE)

조시 로웰

빅업프로덕션 창립자 조시 로웰 감독과 공동 감독 피터 모티머의 다큐멘터리 <King Lines>(2007)은 에미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로웰 감독은 형제 브렛과 함께 7년 동안 토미 콜드웰의 던월을 오르는 과정을 촬영하였다.

Josh LOWELL

Josh Lowell is the Founder of Big UP Productions. With co-director Peter Mortimer, his documentaries have won awards, Emmys, and aired globally. He and his brother, Brett spent 7 years documenting Tommy Caldwell's quest to climb the Dawn Wall.

Stonellery
Jewelry of Rock Art
www.stonellery.com
Stonellery의 이야기는 반구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고객센터 070-4286-0776

모험과 탐험
Adventure & Exploration

다양한 산악 스포츠, 스릴 넘치는 모험과 탐험, 그리고 가슴 설레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으로 총 1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예년에 비해 작품 수가 많아진 만큼 상영작들의 장르는 더 다양해지고, 영화 속 지역은 더 넓어지고, 내용은 더 깊어지고, 상상력은 더 대담해졌다.

한국 서핑영화의 신호탄인 <윈터서프 2>, 스키 역사의 발상지인 중국 신장지구를 담은 <알타이 스키 어드벤처>, 일본 배경의 산악 스키 영화인 <홋카이도 스키탐험>을 통해 아시아의 바다, 설산이 지닌 매력을 듬뿍 느껴볼 수 있다. 또 <프리스키 전성시대>와 <서핑 유럽>은 화려했던 90년대의 프리스키의 시작과 유럽 서핑 원류를 찾아가는 흥겨운 여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늘 패자일 수밖에 없는 지원 전담 사이클 선수들을 7년 넘게 촬영한 <아름다운 패자들>과 아이들과 동심을 잃지 않은 어른들만 공유하는 상상 속 세상을 화려한 스키 장면으로 참신하게 표현해낸 단편 <이미지네이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작품이다.

A total of 18 films will be screened in this section, introducing films about various mountain sports, thrilling adventures and explorations, and people leaving on exciting journeys. Since the number of films has grown from last year, everything else has grown too – more genres, bigger areas within films, deeper contents, and bolder imagination.

Experience the appeal of Asian beaches and snow-covered mountains through *The Winter Surf 2: Passion*, the beginning of Korean surfing films, *Altay Wild Snow*, about China, the birthplace of ski history, and *Hokkaido Calling*, a mountain ski film set in Japan. *Generations of Freeskiing* and *The Endless Winter II; Surfing Europe* will take you on a merry journey to find the beginning of freeskiing in the 90s and the origin of European surfing. Not to miss are also *Wonderful Losers: A Different World*, a film that followed for over 7 years the cycling support teammates whose role is to lose, and *Imagination: Tom Wallisch*, a short film presenting an imaginative world of splendid skiing that only children and the innocent can see.

니콜라스 뮐러의 삶과 꿈
Fruition, The Life and Dreams of Nicolas Müller

Switzerland | 2016 | 65min | Color, B&W | Documentary

AC | 09.08 | 19:30 | GV
GC | 09.09 | 10:30

Korean Premiere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전문 스노우 보더 니콜라스 뮐러의 꿈과 열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일본, 인도, 캐나다, 알래스카, 뉴질랜드, 칠레 등지의 광활한 설원과 설산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니콜라스 뮐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만의 길을 탐색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으며 여러 장애물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스노우 보드란 무엇인지 생생한 영상 언어로 말해주고 있다. 각박한 세상에서의 경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환경주의자로서, 예술가로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도약하는 그의 여정이 눈부시다. (장보영)

A documentary featuring professional snowboarder Nicolas Müller and his passion for the sport. Recorded in the vast snowy fields and snow covered mountains around the world, from Japan to India, Canada, Alaska, New Zealand and Chile, the video is a true testament to Müller's struggles as he searched for his calling from childhood, as well as a vivid message of what the snowboard means to him. His journey is truly beautiful, as he escapes the cruel world of competition and fear to freedom as an environmentalist and artist. (JANG Bo-young)

숀 피, 마르틴 룩싱거

감독이자 촬영감독인 숀 피의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처한 상황의 복잡한 특징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반영한다. 룩싱거는 표현력이 풍부한 그림을 그려내며 예상치 못한 것들을 짚어낸다. 스노보드 영화로 출발했지만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은 수작으로 만들어졌다.

Sean FEE, Martin LUCHSINGER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Fee's storytelling reflects his desire to engage with the complexities of the human condition. Luchsinger draws expressive vignettes and points out the unexpected. What started with snowboard movies became a vision which has recently been rewarded.

도착하면 안 돼
Never Arrive, Ever

Poland | 2017 | 61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09 | 13:30 | GV

International Premiere

20년이 넘게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를 유목하는 폴란드 출신 여행자이자 『잔상』의 저자 표트르 스트제쥐슈의 인생 이야기다. 마흔 중반에 들어섰지만 그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아내도 아이도 없이 그는 자전거를 타고 최대한 적게 소유하고 소비하며 살아간다. 그 길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적은 것이 필요한지, 결국 모든 곳이 집이며 인간은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목적지에 최대한 늦게 도착하기 위해(영원히 도착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페달을 밟는다. (장보영)

This is the life story of Piotr Strzeżysz of Poland, writer of *Powidoki* who has wandered around the world in his bike for over 20 years. Now in his mid-40s, his journey continues. Without a wife or children, he rides his bike, and lives a minimal life. Through this lifestyle, he learns how little is necessary for someone to live with a positive, hopeful attitude, and that home is everywhere while man does not belong anywhere. Even now he pedals "to arrive as late as possible (to never arrive)." (JANG Bo-young)

바르토시 리섹

비디오 편집과 촬영기술을 터득한 후, 프리랜서로 르포타주, 다큐멘터리, 기업관련 영상물 제작, 단편영화 프러덕션 등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하기로 결심한 후 <도착하면 안 돼>를 만들었다.

Bartosz LISEK

After mastering his video editing and cinematography skills, Lisek started freelancing and gained some experience in reportage, documentary, corporate videos and short films. He made *Never Arrive, Ever* after he decided to try documentary directing.

서핑 유럽
The Endless Winter II; Surfing Europe

UK | 2017 | 93min | Color, B&W | Documentary

SC | 09.08 | 16:30

Korean Premiere

프랑스의 비아리츠, 스페인의 문다카,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모로코까지 완벽한 파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유럽의 해안선을 따라 끝없는 모험을 떠났던 초창기 서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서핑 로드 무비. 실제 그 시대 서핑계를 주름잡던 초기 서퍼들의 생생한 인터뷰는 물론 풍성한 자료 영상 속 해변의 과거 모습이 현재와 교차되어, 50년 전 서퍼들이 추구했던 자유로운 스타일과 반항정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유럽 서핑의 문을 열고 길을 닦아준 선배 서퍼이자 개척자들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유쾌한 다큐멘터리. (최선희)

This is a surfing road movie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passionate early surfers who had travelled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the perfect wave - from the beaches of Biarritz in France, Mundaka in Spain, Portugal, and Morocco in Africa. Vivid interviews with these early surfers who pioneered the sport, rich data of how the beaches looked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interwoven to show the enduring freestyle and defiant spirit pursued by surfers fifty years ago. This is a cheerful documentary that pays tribute to the pioneer surfers who have paved the way for surfing. (Billy CHOI)

매튜 크로커, 제임스 딘

크로커와 딘은 정치 사회적 운동이나 조직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와 같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이야기들을 새로우면서도 진실한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그들은 수상 전력이 있는 두 편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와 온라인 단편들을 제작했다.

Matthew CROCKER, James DEAN

Crocker and Dean tell stories in an authentic and fresh way, as they get to the heart of why movements and organizations exist and why that matters. They have two award-winning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and short online productions.

아름다운 패자들
Wonderful Losers: A Different World

Lithuania, Italy, Switzerland, Belgium, Latvia, UK, Ireland, Spain | 2017 | 71min | Color | Documentary

GC | 09.09 | 13:30 | GV

Korean Premiere

알프스와 돌로미티 산맥을 돌아 23일을 달려야 하는 '지로 디탈리아'는 '뚜르드프랑스'와 함께 세계 제3대 도로사이클대회로 꼽힌다. 아루나스 마텔리스 감독은 지로 디탈리아 경주를 7년에 거쳐 촬영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화려한 우승컵을 안는 승자가 아닌 늘 패자일 수밖에 없는 지원 전담 '그레가리오' 선수들을 향해 있다. 감독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수십 년을 헌신해 온 그레가리오 선수들이 사는 그늘 속 세상을 세심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의 진정한 승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최선희)

"Giro d'Italia" is one of cycling's three Grand Tours, which includes "Tour de France." It is a 23-day race through both the Alps and the Dolomiti. Director Arūnas Matelis has filmed this race for the past seven years, and focuses, not on the cup winners, but on the "gregario." They are the supporting members destined to be losers, and the director shows the life of these members who have sacrificed themselves for decades. It is a beautiful documentary shedding light on the real winners we don't see every day. (Billy CHOI)

아루나스 마텔리스

마텔리스의 첫번째 중편 다큐멘터리 영화 <지구로 돌아가기 전에>(2005)는 미국감독조합시상식과 유럽영화상에 후보로 지명되는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아름다운 패자들>은 그의 첫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Arūnas MATELIS

Matelis's 1st medium length documentary *Before Flying Back to the Earth*(2005) received many awards, like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and a European Film Award nomination. *Wonderful Losers: A Different World* is his 1st feature-length documentary.

울트라
Ultra

Hungary, Greece | 2017 | 84min | Color | Documentary

SC | 09.09 | 16:30 | GV

Asian Premiere

스파르타슬론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 스파르타까지 246km를 36시간 안에 골인해야 하는 논스톱 울트라 마라톤 대회로, 매년 전 세계 수백 명의 주자가 도전하지만, 절반 이하만이 완주할 만큼 극한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스파르타슬론을 4년 연속 완주한 헝가리 출신의 감독 발라주 시모니는 자신을 포함해 이 대회를 완주하고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5명의 평범한 선수들을 소개한다. 달리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왜 달릴까? 왜 고통 속에 달리는가? 나는 누구일까? (장보영)

Spartathlon is a nonstop ultra-marathon contest that must be finished within 36 hours, beginning in Athens, Greece, and ending 246km away in Sparta. Each year, hundreds of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ttempt it, but less than half are able to complete it. Hungarian director Balazs Simonyi completed the Spartathlon for four years running from 2013 to 2016, and introduces five ordinary contestants, including himself, who wish to push themselves to the limit. As they run, they ask: Why am I running? In this pain? Who am I? (JANG Bo-young)

발라주 시모니

유럽영화아카데미의 회원이다. 그의 작품들은 주요 영화제들에서 상영 및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영화 <울트라>는 2017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15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Balazs SIMONYI

A member of the European Film Academy, Simonyi's films have been screened at major festivals and won several awards. His film *Ultra* was selected amongst the 15 Best Documentaries of 2017.

화이트 워터
The White Waters

France | 2016 | 53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07 | 12:30

Asian Premiere

카약을 타고 아이슬란드의 화산 지대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프랑스 카약 선수 5인의 이야기. 하늘 아래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모든 종류의 폭포와 강을 거침없이 표류하는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대면하고 가능성을 실험하며 형언할 수 없는 승리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카약 여행을 통해 이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와 우정, 삶을 배운다. (장보영)

A story about five French kayakers travelling freely through the volcanic area in Iceland. Under the blue skies, they eat, sleep, and drift through all kinds of waterfalls and rivers. Constantly facing their limits, and testing their own potential, they gain an indescribable sense of triumph and achievement. The kayak journey teaches them wisdom, friendship, and life that they cannot learn elsewhere. (JANG Bo-young)

휴고 클루조

클루조는 마치 장인처럼 꼼꼼하게 창작 및 프로덕션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독특한 영화를 만들어낸다.

Hugo CLOUZEAU

Clouzeau makes films like a craftsman by making each film unique and by being invested in the whole process of creation and production.

드림라이드 2 DreamRide 2

Canada | 2017 | 5min | Color | Fiction

녹음이 우거진 산길, 거대한 동굴 속, 얼어붙은 강 위, 그리고 검게 굳은 용암 위를 산악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그 무시무시한 속도감과 청량한 쾌감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산악자전거의 귀재인 마이크 홉킨스가 직접 출연하고 연출을 맡은 단편으로, 잠시나마 지구 곳곳의 원시 자연 속을 보는 이가 직접 질주하고 있는 듯한 황홀감을 선사한다. (최선희)

From the green mountainous roads to inside a vast cave, atop a frozen river and above black solidified lava, the film lets us feel firsthand the fearsome speed and refreshing thrill of the bike rider. Master mountain biker Mike Hopkins stars and directs this short film as a gift that lets us feel the ecstasy of racing through the primitive nature from around the world. (Billy CHOI)

AC | 09.08 | 10:30

마이크 홉킨스
홉킨스는 프로 모험가이면서 제작자 및 감독이다. Juicy Studios와 함께 모험을 즐기는 팀을 만들고 세계를 탐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상을 타기도 하였다.

Mike HOPKINS
Hopkins is a professional adventure athlete, producer, and director. By working alongside agencies like Juicy Studios, he has built an adventure loving production team that has won awards and the opportunity to meet people and explore the world.

바다를 품은 사람들 Fishpeople

Korean Premiere

USA | 2017 | 49min | Color | Documentary

호주, 타히티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모두 바다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든 곳들이다. 이곳에 살면서 심해에서 작살 낚시를 하거나, 바다 사진을 찍거나, 서핑을 하는 6명의 이야기가 푸른 바다와 함께 펼쳐진다. 각자 바다에서 하는 활동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는 바다가 주는 평안함과 치유의 힘을 믿고 이를 타인들과 나누기 위해 헌신한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깊고 푸른 바다 속,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거품, 포효하듯 밀려드는 거대한 파도의 이미지가 너무나 시원하고 아름답다. (최선희)

There are places we can't picture without the ocean - Australia, Tahiti, and America's Hawaii, California, and San Francisco. Six people living there tell us their stories, as they spearfish, take pictures, or surf. Each perform different activities in the ocean, but they share in their belief of the peaceful and healing power of the ocean and are dedicated to share this with others. The deep blue sea filling up the screen, crashing white waves, and the roaring thunder of giant waves are truly refreshing and beautiful. (Billy CHOI)

GC | 09.08 | 10:30

키스 말로이
수년간 카메라 렌즈 앞에서 서핑을 해왔던 말로이는 그의 첫번째 보디서핑 영화 <Come Hell or High Water>(2011)를 연출하기 위해 카메라의 뒤로 그의 자리를 옮긴다. <바다를 품은 사람들>(2017)은 그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이다.

Keith MALLOY
After years of surfing in front of the lens, Malloy stepped behind the camera to direct the bodysurf film *Come Hell or High Water*(2011). *Fishpeople*(2017) is his second feature length film.

보쉬 프로젝트 The Bothy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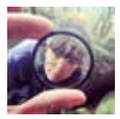
Asian Premiere

UK | 2016 | 10min | Color | Documentary

<모팻과 나>로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찾았던 젠 랜달 감독의 신작. 스코틀랜드 산악지대 곳곳에는 오래 전 목동들의 거처였던 보쉬가 버려진 채 남아있다. 영화제작자 젠과 작가 클레어, 비디오 아티스트 나타샤, 펜 아티스트 테사는 보쉬를 따라 이동하며 제각각 창작활동을 즐긴다. 황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스코틀랜드 특유의 여름 풍경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곽정혜)

A new film by director Jen Randall, whose *Operation Moffat* was featured at the fir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cattered throughout the Scottish Highlands there remains abandoned bothies, which used to be resting places for shepherds long ago. Film producer Randall, writer Claire Carter, video artist Natasha Brooks, and pen artist Tessa Lyons search out these bothies to use them in each one's creative works. The screen is filled with Scotland's uniquely bleak yet dreamy scenery of summer. (GWAK Jeong-hye)

SC | 09.07 | 12:30



젠 랜달
젠 랜달 감독은 BBC, Channel 4, 센더필름스와 유명 브랜드인 Black Diamond, Lowe Alpine, Rab과 함께 작업을 했고, 감독의 영화들은 밴쿠버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였다.

Jen RANDALL
Jen Randall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She has worked with BBC, Channel 4, Sender Films, and with brands such as Black Diamond, Lowe Alpine and Rab. Her films were awarded at film festivals including Vancouver and so on.

수직의 마법사-하인즈 잭 Heinz Zak-A Free Spirit in the Vertical World

Asian Premiere

Austria | 2017 | 47min | Color | Documentary

수직벽에서 자유정신을 실현하는 알프스 티롤 출생의 하인즈는 작은 등반가이자 탐험가, 저자로 클라이밍 사진계의 위대한 선구자다. 아이거 동계등반을 시작으로 세로 토레, 요세미티 세퍼릿트 리앨리티의 프리 솔로잉까지 거침없는 등반을 이어나가며, 등반역사에 남을 명장면들을 사진으로 표현해내는데… 우리 시대 최고 클라이머들의 등반을 엿볼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 (배경미)

Heinz from Tirol of the Alps is a small climber, explorer, writer and great pioneer in photography practicing the spirit of liberty on vertical rock walls. Starting with the winter climbing on Eiger, he performed extreme Free Solo Climbing on Cerro Torre and Yosemite Separate Reality, capturing great scenery to go down in climbing history. This is a precious chance to take a look at the challenges of one of the best climbers of the time. (Christine PAE)

SC | 09.08 | 13:30

말트 로퍼
1962년생 바트 슈바르타우 출신인 로퍼는 작가이자 감독 겸 연출기법의 지도자다. 야외활동과 등산과 관련된 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1996년부터 프리랜서로 작가로서 활동을 해왔다. 현재 Bayerisches Fernsehen에서 근무하고 있다.

Malte ROEPER
Born in 1962 in Bad Schwartau, Roeper is a writer, director, and dramaturgical advisor who specializes in outdoor and mountaineering films. He was been a freelance writer since 1996 and works for Bayerisches Fernsehen Television company since 1999.

알타이 스키 어드벤처 Altay Wild Snow

Korean Premiere

China | 2017 | 28min | Color | Documentary

신장지구의 작은 마을인 해무는 '인류 스키 역사의 발상지'다. 파우더 눈에서 스키를 즐기기 위해 길을 떠난 네 남자는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4시간을 날아 우루무치로 간 뒤, 차를 타고 북쪽으로 1,000km 이동한 끝에 해무에 닿는다. 최고의 스키어인 말리칭과 함께 마키트 산을 활강하는 모습은 짜릿함을 선사하며, 전통 방식으로 털 스키를 만드는 장면은 경외감마저 들게 한다. (곽정혜)

The little town of Hemu in Xinjiang is "the birthplace of the world's ski history." Four men on a journey to enjoy skiing in powder snow start off in Beijing and fly four hours before arriving in Urumqi. From there, they drive 1,000km north to reach Hemu. Top skier Maliqin is electrifying as he flies down Mt. Makit, and the traditional fur ski making scene is awe-inspiring. (GWAK Jeong-hye)

GC | 09.08 | 10:30

슈앙 리
여성 모험 영화 제작자이자 야외 스포츠 애호가이다. 등반, 빙벽 등반, 스키에 관한 모험 영화를 수년 간 만들어 왔다.

Shuang LI
A female adventure film maker, also outdoor sports enthusiasts. Has been making outdoor adventure films about mountaineering, ice climbing and skiing for years.

오르다 Ascend

Asian Premiere

USA | 2017 | 6min | Color | Documentary

암으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산악자전거에 도전해 능숙한 바이커가 된 존 윌슨에 대한 단편 다큐멘터리. 2017년 전 세계의 수많은 산악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으며 수상했던 작품이다. 슬로 모션 화면으로 잡아낸 윌슨의 바이킹 장면은 영감을 준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도전하는 걸까?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면, 영혼을 잃게 될 거예요." 윌슨의 대답이다. (김형석)

A short documentary about Jon Wilson, who lost his left leg to cancer but still became an accomplished mountain biker. It received much acclaim and numerous prizes at mountain film festivals from around the world in 2017. The slow-motion capture of Wilson's biking is truly inspirational. Why does he continue to challenge himself? Wilson answers, "If I don't ride a bike, I will lose my mind." (KIM Hyung-seok)

AC | 09.07 | 12:30

사이먼 퍼키슨
사이먼 퍼킨스는 몬태나에서 플라이낚시와 새 사냥 가이드로 일하던 시기에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에 흥미를 키워왔다.

Simon PERKINS
Perkins' interest in film started during his days as a fly-fishing and bird-hunting guide in Montana. He carried his camera around with him and grew intrigued with trying to capture the moments in the natural world that were out of his control.

윈터서프 2 The Winter Surf 2: Passion

Korea | 2018 | 20min | Color | Documentary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겨울 바다로 뛰어 들어 검푸른 파도에 올라 타는 서퍼. 유럽의 서퍼들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며 익숙한 한국의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지만 장쾌하다. 국내 서핑영화 제작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영화로 파도를 향한 한국 서퍼들의 순수한 열정과 한국 겨울 바다의 새로운 매력을 수준 높은 촬영으로 담아냈다. (최선희)

A surfer runs through knee-high snow before jumping into the blue-black waves of the winter waters. It is somewhat unfamiliar but thrilling to watch as the surfers enjoy the familiar Korean waves with skills akin to those of European surfers. As Korea's first surfing film, it is a high-quality portrayal of Korean surfers' innocent passion for the wave and the allure of Korea's winter ocean. (Billy CHOI)

SC | 09.09 | 13:30 | GV
WUC | 09.11 | 16:00

김동기, 김성은

2014년 <윈터서프>를 함께 연출하면서 현재까지 공동작업을 해오고 있다. 아웃도어 스포츠와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한 컨텐츠에 특화된 38 프로덕션을 창립하고 1년 또는 2년마다 윈터서프 시리즈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BADA>(2016)와 <윈터서프 2>(2018)도 공동연출하였다.

KIM Dong-gi, KIM Seong-eun

Working together since *The Winter Surf*(2014), Kim and Kim started 38 Productions, specializing in outdoor and extreme sports and plan to produce The Winter Surf series every 1-to-2 years. They also directed *BADA*(2016) and *The Winter Surf 2: Passion*(2018).

이미지네이션 Imagination: Tom Wallisch

Korean Premiere

Canada | 2017 | 5min | Color | Fiction

겨울 아침 부모님의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소년은 지루하기만 하다. 하지만 스키를 탄 채 지붕 위를 뛰어 넘고, 난간과 계단을 미끄러져, 언덕 길을 내려오는 어른들이 소년의 눈에만 보이고, 이내 소년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퍼진다. 아이들과 동심을 잃지 않은 어른들만 공유하는 상상 속 세계를 절묘한 타이밍으로 거리를 누비는 화려한 스키 장면으로 참신하게 표현해낸 단편. (최선희)

The boy sitting in his parent's car on his way to school on a winter morning is bored. Soon, a smile spreads in his face as he imagines adults in skis jumping through the roofs, sliding down stairways and handrails, and racing down hills. Only children and adults who haven't lost their innocence can share in this imaginary world perfectly timed by splendid skiing in the middle of the road. (Billy CHOI)

SC | 09.09 | 16:30

데이브 모솝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영화학과 인류학을 전공하고 2004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곳에서 만난 브라이언 헨드릭스 교수는 영화에 대한 예술적인 접근을 위한 기반을 잡아 줬다.

Dave MOSSOP

Dave graduated with honours from the University of Victoria in Film Studies and Anthropology in 2004, where film professor Brian Hendricks had set the groundwork for David's artistic filmmaking approach.

젊음의 샘 Fountain of Youth

Asian Premiere

Canada, Japan | 2017 | 27min | Color | Documentary

30년 넘게 스키어로 살아온 마이크 더글러스.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그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다. 스키와 함께 장수로 유명한 나가노. 여행의 목적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잃지 않는 건강의 비결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때 만난 미우라 유이치로는 80세에 에베레스트에서 스키를 탔던 스키의 레전드. 그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장수의 비결을 전수한다. (김형석)

Mike Douglas has been a skier for over 30 years. Now in his middle age, he leaves for Nagano, Japan, famous for skiing and longevity. His purpose is to find the secret to the fountain of youth. He also meets Miura Yuichiro, a ski legend who skied down Mount Everest at 80-years-old. He learns the simple but great secret to longevity. (KIM Hyung-seok)

AC | 09.11 | 10:30

마이크 더글라스

스키선수 마이크 더글라스는 새로운 도전으로 스위치백 엔터테인먼트를 창립하였다. 살로몬 TV의 웹 시리즈를 제작하고, <The Freedom Chair>(2011) <템프팅 피어>(2013), <Eclipse>(2015)와 같은 수상작들을 제작 및 연출했다.

Mike DOUGLAS

Looking for a new challenge, professional skier, Mike Douglas founded Switchback Entertainment. He created web series-Salomon TV and pro duced and directed award-winning films: *The Freedom Chair*(2011), *Tempting Fear*(2013) and *Eclipse*(2015).

탈출 Escape

Korean Premiere

Canada | 2018 | 8min | Color | Documentary

몬트리올에서 일하는 르완다 출신 DJ 자빅은 자전거를 타고 단일 국가에서 가장 긴 사이클링 모험 기록에 도전한다. 또 그는 자전거를 타고 캐나다 서부 최북단 마을 투크토야크툭에서 북극해를 향해 페달을 밟는다. 188km 길이의 빙판길을 따라가는 여정은 아름답지만 거칠고 황량하다. 자빅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한다. (장보영)

JaBig, a Montreal-based DJ from Rwanda attempts to beat the record for the longest continuous bike ride in a single country. He rides his bike to the Arctic Ocean by way of western Canada's northernmost hamlet, Tuktoyaktuk. The journey through the 188km-long ice road is beautiful but rugged and barren. JaBig tells us, and himself, to listen to our inner voice. (JANG Bo-young)

AC | 09.11 | 16:30

안잘리 나야르

나야르 감독은 수상경력이 있는 스토리텔러이자 과학기술 전문가이다. 그녀의 최신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사일러스>(2017)는 사회운동가 사일러스 시아코르의 삶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아프리카의 토지횡령과 부패를 폭로하는 그의 시민기자들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Anjali NAYAR

Nayar is an award-winning storyteller and technologist. Her newest documentary feature *Silas*(2017) profiles activist Silas Siakor and his network of citizen reporters who use smartphones to expose land grabs and corruption in West Africa.

프리스키 전성시대 Generations of Freeskiing

International Premiere

Germany, Austria | 2017 | 31min | Color | Documentary

세계 최고의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이 시대를 넘나들며 들려주는 프리 스키의 50여 년 히스토리를 30분짜리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핫도깅, 모굴, 스키 발레, 슬로프 점프, 역회전 그리고 미처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기교와 묘수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공연 예술을 방불케 하는 프리 스키의 모든 액션을 당대의 핫한 스타일과 함께 생생하게 만나보자. (장보영)

Fifty years of freestyle skiing told by the world's best skiers and snowboarders in a 30-minute documentary. Let's meet all the thrilling actions of free skiing, including hotdogging, moguls, ski ballet, slopestyle jumps, backspins, and other unnamed spectacular techniques, in the hot pop styles of the era. (JANG Bo-young)

SC | 09.10 | 16:00

막시밀리안 뉘히테른

런던필름스쿨에서 연출을 전공했으며 스키강사로 일한 경력도 있다. 2003년부터 아웃도어 다큐멘터리와 광고를 제작했으며, 다수의 영화를 연출했다.

Maximilian NÜCHTERN

A former student at the London Film School for directing, he was a ski and snowboard instructor before working as a director. Since 2003, he shot a lot of outdoor action documentaries and commercials and he writes and directs his films.

홋카이도 스키탐험 Hokkaido Calling

Korean Premiere

Canada | 2016 | 8min | Color | Documentary

세계적인 산악스키어 샘 스무디, 제레미 헤이츠, 데인 투도르는 삿포로에서 니세코까지, 2주에 걸쳐 일본 북부 홋카이도를 탐험하며 가슴 뛰는 모험에 도전한다. 연간 폭설양이 15미터가 넘는 홋카이도는 이들에게 천국이 아닐 수 없다. 누구도 밟지 않은 설원의 흉부를 가로지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을 긋는 놀라운 여정으로의 초대. (장보영)

World renowned mountain skiers Sam Smoothy, Jeremie Heitz, and Dane Tudor make an exciting two-week expedition of Northern Japan's Hokkaido, from Sapporo to Niseko. The yearly snowfall in Hokkaido is over 15 meters, making the place a heaven on earth for them. Join them in their journey creating the world's only "line" through the snow covered fields no one's ever stepped on before. (JANG Bo-young)

AC | 09.10 | 19:30

레오 후른

캐나다 서남부의 주 출신인 후른은 셰르파시네마에서 카메라맨 및 편집자다. 촬영 눈썰미가 있고 무거운 장비도 거뜬히 들고 맥가이버처럼 창의적인 촬영 현장을 구사하는 셰르파시네마의 귀중한 인재다.

Leo HOORN

Hoorn is a cinematographer and editor at Sherpas Cinema, and was born in Smithers British Columbia. He's got a world class shooting eye and is an invaluable member who has the ability to carry massive loads and MacGyver innovative camera setups.

자연과 사람
Nature & People

산,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 편수인 2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전지구적 기후온난화가 야기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노력과 투쟁을 다룬 영화가 다수를 차지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살아있는 지구 II, 산>, <놀라운 적응력: 방글라데시>는 환경변화의 중심에서 선 인간 그리고 동물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해냈다. 발칸 반도의 대규모 댐 건설에 반대하는 <푸른 심장>과, 가뭄으로 척박해진 땅에 나무를 심는 케냐의 시골 농부를 다룬 <땡큐 포 더 레인>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연파괴에 대한 지역민들의 저항과 노력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또한 <나의 아들 이르닉>, <최후의 벌꿀 사냥꾼>, <마지막 사냥꾼>은 각각 캐나다의 북극 마을과 네팔, 그리고 그린란드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을 감싸 안는 슬프면서도 따뜻한 이란 영화 <학교 가는 길>과 콜롬비아 영화 <세뇨리따 마리아>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안겨준다.

Mountain, and the life and culture of people living in nature are introduced in this section. It will screen the most films it has ever shown, a total of 20. Most of them deal with the efforts and struggles to survive and adapt to the effects of global climate warming, reminding us of the gravity of this situation.

Planet Earth II, Mountains and *Adaptation: Bangladesh-Sea Level Rise* vividly capture the lives of animals and humans at the center of environmental changes. Two films beautifully portray the local resident's struggles against globaliza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Blue Heart*, about those opposing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dam in the Balkan Peninsula, and *Thank You for the Rain*, about a Kenyan farmer planning trees in land turned barren due to drought. *My Irnik, The Last Honey Hunter,* and *The Last Ice Hunters* each show us a people trying to preserve a traditional culture that has been passed down for generations. Iranian film *The Lonely Road* and Colombian film *Miss Maria, Skirting the Mountain* are both deeply touching films that warmly embraces people living in the mountains.

땡큐 포 더 레인
Thank You for the Rain

Norway, UK | 2017 | 87min | Color | Documentary

SC | 09.08 | 10:00 | GV

Korean Premiere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력은 케냐의 시골 마을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 1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과 홍수는 키실루 가족의 삶의 터전조차 무너트렸다. 키실루는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다. 노르웨이 출신 감독 줄리아는 키실루의 노력을 카메라에 담는다. COP21에서 전 세계 리더들 앞에서 연설까지 하게 된 키실루. 그러나 냉정한 국제 질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래도 그는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분주하다. (맹수진)

The destructiv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can be felt even in the depths of a small village in Kenya. The worst drought and floods in ten years destroys Kisilu and his family's only way of survival. He stresses to the villagers the importance of planting tre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ut his plans sound too far-fetched to those struggling to eat on a daily basis. Norwegian director Julia captures Kisilu's efforts on camera. He gives a speech at COP21 in front of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but realizes that the international front is not interested in equity. Still, today, he is busy convincing people to plant one tree. (MAENG Soo-jin)

줄리아 다르

노르웨이 출신 감독이자 프로듀서인 줄리아 다르는 영화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 위주의 이야기를 추구하며, 고정관념을 바꾸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전을 즐긴다.

Julia DAHR

Norwegian director and producer, Dahr believes filmmakers can be change makers. She is passionate about character driven stories that can raise attention about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a new way; to challenge stereotypes and to create an impact.

마지막 사냥꾼
The Last Ice Hunters

Slovenia | 2017 | 71min | Color | Documentary

GC | 09.09 | 16:30 | GV

Korean Premiere

이스트 그린란드 지역의 이누이트족. 그들의 생업은 사냥이며, 바다표범은 특히 유용한 사냥감이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다. 긴 세월 동안 외부의 영향 없이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했지만, 환경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침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게다가 유럽연합(EU)는 바다표범 가죽 유통을 금했다. 자신들이 마지막 헌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세계화와 로컬 사이의 충돌을 담아낸 작품. 녹는 것은 빙하만이 아니라, 극 지역 원주민들 특유의 삶과 역사도 위기에 처했다는 걸 담담한 톤에 담아낸다. (김형석)

For the Inuit of East Greenland, hunting, especially seals, is a way of life. They are now in danger. For a long time, they have maintained their traditional way of life without outside influence, but it's no longer possible to escape changing environments and capitalism. On top of this, the European Union has prohibited the distribution of seal skin. The Inuit believe they will be the last of the ice hunters. Still, life moves on. The film captures the collision between globalization and locals, as it indifferently portrays the melting away, not only of the glaciers, but of the life and history of the natives. (KIM Hyung-seok)

주어 브레첼니크, 로즐 브리가

주어 브레첼니크 감독은 필름 아이티의 창립자로 8편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였으나, 2015년 여름 <마지막 사냥꾼>을 촬영하던 중 타계하여 브리가 감독이 그 뒤를 이었다. 브리가 감독은 비스라리스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연출 및 촬영 감독을 겸하고 있으며, 아이리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Jure BRECELJNIK, Rožle BREGAR

Breceljnik is the founder of Film IT and filmed 8 documentaries. He died the summer of 2015 while filming *The Last Ice Hunters* which Bregar took over. Bregar is co-founder of Vislalist, a director and director of photography, receiving the IRIS Award.

사선에서
Conflict Tiger

UK | 2006 | 61min | Color | Documentary

SC | 09.07 | 15:00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소볼리니. 이곳에 출몰하는 호랑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경찰'인 유리 트러시가 간다. 이미 두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과연 유리는 호랑이를 포획할 수 있을까? <사선에서>는 기록 영상, 인터뷰, 재연 화면을 꼼꼼하게 구성해 다큐멘터리임에도 스릴러 장르 영화 같은 긴장감을 준다. 하지만 그 결말은 가슴 아픈 비극적 현실이며, 인간에 의한 생태계의 붕괴가 사건의 주범임이 드러난다. 현재 극동 지역에 400마리도 남아 있지 않은 시베리아 호랑이. 그들이라도 지켜야 한다. (김형석)

There is small town called Sobolinye near the border between Russia and China. Member of Environmental police Yuri Trush is on his mission to cope with a tiger threatening the village. Two villagers have been sacrificed already. Will he succeed in capturing the tiger? With the tight placement of record, interview and reenactment footage, *Conflict Tiger* is full of tension like a thriller film although it is a documentary. Unfortunately, the ending is heartbreaking and it is found out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tragedy is the collapse of the eco system due to human error. There are fewer than 400 tigers left in the Far East area. They have to be preserved at least before it is too late. (KIM Hyung-seok)

사샤 스노우

영국 출신의 감독이자 촬영감독, 그리고 스파크필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겸하고 있는 사샤 스노우는 살인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 호랑이 사냥꾼, 그리고 부동산 거물 등과 협력하며 도전적인 환경에서 일해왔다. 또한 다수의 영화로 많은 상을 받은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Sasha SNOW

British director, director of photography and creative director at Spark Films, he has worked in challenging environments and collaborated with convicted murderers, tiger hunters and property tycoons. He has also won several awards for many of his films.

살아있는 지구 II, 산
Planet Earth II, Mountains

UK | 2016 | 60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11 | 13:30 Korean Premiere

알프스, 안데스, 로키, 히말라야는 모두 해발 4,000미터 이상 최고 8,000미터에 이르는 산맥들.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에서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구상에 오직 60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눈 표범, 깎아 지른 듯 가파른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뛰어 다니는 야생 염소 아이벡스, 사냥감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검독수리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 가까이 다가온다. 수백 시간의 잠복은 물론 패러글라이더까지 동원한 촬영으로 포착해낸 야생 동물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재치 넘치는 내레이션으로 한층 더 빛을 발한다. (최선희)

Mountains at least 4,000 meters to 8,000 meters above sea level - the Alps, Andes, Rockies, and Himalayas. The lives of wild animals living in these highest and rough mountains of the world are captured. Snow leopards, of which only about 600 remain on earth, the wild ibex harrowingly running through the precipitous cliffs, and golden eagles warring over a hunt come alive on the screen. The witty narration adds more life to the dynamic video captured with hundreds of stakeout hours and with paragliders. and history of the natives. (Billy CHOI)

저스틴 앤더슨

제작자 겸 감독으로 활약 중인 저스틴 앤더슨은 수년 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누나탁의 북극 지방에서 캠핑을 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해 왔다. 또한 BBC와 같은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리즈물에서 시퀀스 감독 및 어시스턴트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다.

Justin ANDERSON

With years of documentary experience and adventures for work, like camping on an Arctic field in Nunatak, producer and director Anderson has made programs for channels like the BBC and was sequence director and assistant producer on many program series.

고래의 섬, 페로
The Islands and the Whales

UK | 2016 | 82min | Color | Documentary

SC | 09.07 | 12:30

대서양 북부,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페로스 제도가 있다. 그곳엔 바이킹의 후예들이 약 48,000명 정도 살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래와 바닷새를 사냥해 주식으로 삼았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다. 고래 포획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반대? 아니다. 바다가 오염되면서, 그들의 먹거리 역시 위험해진 것이다. 지구 최고의 청정 지역에서 겪는 환경적 위기에 대한 기록. 바다오리의 위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는 장면은 자못 충격적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페로스 제도.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건 어쩌면 인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다. (김형석)

There are the Faroe Islands in between Iceland and Scotland in the north of the Atlantic. About 48 thousand descendants of the Vikings dwell on the islands. They have lived hunting and eating whales and marine birds for generations, but they are facing a big crisis now. It is not even because of the attacks from environmentalists who are against whale hunting. They are gradually becoming short of food due to sea pollution. The film is a documentary about the echo crisis at one of the cleanest places on the earth. It is even shocking when pieces of plastic are found in the stomach of puffins. The Faroe Islands have a very beautiful landscape. Probably the entire mankind shares the responsibility to preserve the community. (KIM Hyung-seok)

마이크 데이

마이크 데이는 감독이자 촬영감독, 인트레피드 시네마의 창립자로, 「필름메이커 매거진」이 선정한 '주목할 만한 10인의 영화인'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은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으며, 전 세계 방송국 및 극장가에서 상영되었다.

Mike DAY

Day is a Scottish director, cine matographer, the founder of Intrepid Cinema and is listed as '10 Filmmakers to Watch' by *Filmmaker Magazine*. His films are funded and supported by many sponsors as well as broadcasted and released worldwide.

세뇨리따 마리아
Miss Maria, Skirting the Mountain

Colombia | 2017 | 90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09 | 19:30 | GV Asian Premiere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 한가운데를 사뿐 사뿐하게 걸어 가는 세뇨리따 마리아. 깊은 산 속의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는 마리아는 치마를 입은 채 묵묵히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소 젖을 짜며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 나간다. 머리를 곱게 기르고 치마를 입지만 매일 면도를 해야 하는 마리아에겐 털어놓기 힘든 비밀이 있다. 비록 세상은 그녀를 감싸주지 않지만 마리아는 환한 보름달, 산 너머로 지는 노을, 시원한 산들바람 그리고 맑은 개울물과 직접 키우는 가축 그리고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선희)

Miss Maria skirts down the curvy mountain trail step by step. Living alone on a remote mountain, she leads a self-sufficient life, working the land, cutting firewood, and milking the cows. Her hair is long and she wears a skirt, but she holds a secret; she must shave every day. Though outsiders do not embrace her, she is not lonely amidst the bright full moon, beautiful sunset, gentle breeze, clear stream water, her domestic animals, and friends. Gentle, but strong, is our Miss Maria. (Billy CHOI)

루벤 멘도자

루벤 멘도자는 여덟 편의 단편영화를 쓰고 연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최근 6년간 진행되었던 다큐멘터리 <세뇨리따 마리아>(2017)의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 작업 중인 <Niña errante>(2017) 프로젝트로 제작지원을 받았다.

Rubén MENDOZA

Mendoza wrote and directed 8 short films that have won awards at festivals around the world. He finished a 6-year process for the documentary *Miss Maria, Skirting the Mountain*(2017). His current project, *Niña errante*(2017) won the integral grant.

경이로운 자연 A Sense of Wonder

Asian Premiere

France | 2017 | 3min | Color | Documentary

밤 길을 달려 산에 도착한 마티유 르 레이 감독. 이윽고 새벽 빛이 비추자 그의 내레이션은 시작된다. "거대한 침묵이 소리를 삼킨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을 종종 작품에 담았던 르 레이 감독의 <경이로운 자연>은 돌로미티 산맥의 압도적인 풍경 위로 흐르는 3분 동안의 영상 시다. 야생의 압도적 아름다움을 압축적으로 포착한 작품. (김형석)

Mathieu Le Lay drives through the dark to reach the mountain. After a little while, day breaks and the narration starts, "A vast silence swallows the sound." *A Sense of Wonder* directed by Mathieu Le Lay, who often expressed his admiration to nature in his works, is a 3-minute-long video poem running on the overwhelming scenery of the Dolomites. This film is a summary of the magnificent beauty of nature. (KIM Hyung-seok)

SC | 09.08 | 10:00

마티유 르 레이

르 레이 감독의 예술과 진실한 탐구가 독특한 스타일의 시적 영상으로 그려지며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리의 영혼을 적신다. 영화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감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여행을 떠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가지는 절묘함을 발견하고 느껴보라 말한다.

Mathieu LE LAY

His art and intimate quest are connected with personal style and visual poetry that feeds the soul with images of rare beauty. His films show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inspiring people to travel, discover and feel the raw subtlety of the world.

나의 아들 이르닉 My Irnik

Korean Premiere

Canada | 2017 | 16min | Color | Documentary

캐나다 퀘벡주의 북극 지역인 쿠주아크. 이곳에 한 가족이 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부부. 캐나다인과 이 지역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며, 자연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몸소 체험하며 성장한다. 단순한 풍경이 아닌,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문화로서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접근한 작품이다. (김형석)

There is a family in Kuujjuaq, Canada near the arctic site. Mother and father take great care of their young son. Born to a Canadian parent and a local native, he learns cultural traditions from both of his parents and grows up experiencing Mother Nature. The film directly approaches inhabitants of the North Pole area by focusing on their culture inherited over generations, not just the background. (KIM Hyung-seok)

GC | 09.10 | 16:30

프랑수아 르뷰, 매튜 후드

매튜 후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촬영감독이다. 그의 작품은 강렬하고 힘있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제를 기록하고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수아 르뷰는 촬영감독으로 주로 다른 이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품을 만들어왔다.

François LEBEAU, Matthew HOOD

Hood is a documentary filmmaker and photographer. His work aims to document and illustrate remote subjects through compelling and powerful imagery. Lebeau is a photographer whose work has is primarily directed towards documenting the life of others.

놀라운 적응력: 방글라데시 Adaptation: Bangladesh-Sea Level Rise

Korean Premiere

Bangladesh | 2018 | 13min | Color | Documentary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는 방글라데시는 지구 기후 변화 현상의 중심지이자 지표로도 불린다. 잦아지는 태풍과 홍수,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인해 이곳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악화되기만 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 가옥은 물론, 수상 학교와 수상 농장까지 만들어낸 평범한 사람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놀라운 적응력은 감탄을 자아낸다. (최선희)

With the highest population density in the world, Bangladesh is also known as the center of global climate change. More and more frequent typhoons, floods, and rising sea levels are making living unbearable. It is thus all the more admirable to see the aggressive efforts and innovative ideas of normal people that brought about floating homes, as well as floating schools and farms. (Billy CHOI)

GC | 09.08 | 13:30

저스틴 드쉴즈

저스틴 드쉴즈는 다수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 그의 작품은 인간과 인간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 및 탐험가들과 밀접하게 일하며 그들이 하는 일을 방송언어로 해석해 내고 있다.

Justin DESHIELDS

Deshields is documentary filmmaker working for many broadcasting programs. His work concentrates on people and their ties to the world around them. He works closely with scientists and explorers around the world to translate their work to television.

눈의 끝 The End of Snow

Korean Premiere

USA | 2016 | 20min | Color | Documentary

눈을 사랑하는 과학자 제인, 호수에서 채취한 진흙으로 눈의 미래를 연구하는 브라이언, 40년 동안 벽지의 오두막에서 눈을 관찰해온 빌리, 12년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축을 길러온 프레디. 영화는 각자의 삶에 충실한 네 사람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들이 상호 연결되는 방식과 이들의 노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에 관해 이야기한다. (맹수진)

Jane is a scientist with a love for snow. Bryan studies the future of snow by deciphering mud collected from the lake. Billy has observed snow in his backcountry cabin for over 40 years. Freddie has grazed cattle using holistic methods for 12 years. The film connects these four characters, each separately faithful to their lives, and discusses the positive future their efforts will bring. (MAENG Soo-jin)

AC | 09.10 | 16:30

모건 하임

모건 하임 감독은 항공 촬영 및 카메라 트랩, 옛 방식의 포토 저널리즘 등 여러가지 사진 및 영화적 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녀의 작품은 영화제 및 스미스소니안, 지이오라인 엑스트라와 같은 기관에서 상영되어 왔다.

Morgan HEIM

Heim uses photo and filmmaking techniques from aerials to camera traps and good old-fashioned photojournalism to show stories of the natural world. Her work was shown in festivals and outlets like the Smithsonian, GEOLine Extra and more.

늑대 The Wolf

Asian Premiere

Italy | 2018 | 19min | Color | Fiction

아버지와 아들이 늑대 사냥에 나선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약간의 냉랭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유능한 사냥꾼임을 입증하려 하지만 늑대를 쫓아가는 아들을 쫓는 아버지의 눈매는 다급하다. 창백하리만치 아름다운 설원에서 부자의 발목을 잡아 온 과거의 상처가 드러난다. 그러나 과거는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맹수진)

A father and son take off on a wolf hunt. We don't know the reason, but there is a cool tension between them. The son wants to prove to his father that he is a good hunter, but as he runs after the wolf, his father follows with pressing urgency. Their past finally catches up with them in the beautiful snow covered fields. But the past cannot be repeated. (MAENG Soo-jin)

AC | 09.11 | 16:30

벤야민 툼

벤야민 툼은 1988년 이탈리아 브루니코에서 태어났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위해 ZeLIG 영화학교에서 연출을 공부했다. 현재 그는 로마, 볼자노, 베를린을 오가며 작업하고있다. <늑대>는 그의 첫번째 단편 영화이다.

Benjamin THUM

Benjamin Thum was born in 1988 in Brunico, Italy. He studied direction at ZeLIG Film School for documentary. Now he is working and living between Rome, Bolzano and Berlin. *The Wolf* is his first short film the narrative field

늑대를 찾아서 Alone with Wolves

Asian Premiere

Russia | 2017 | 43min | Color | Documentary

보름달이 뜨면 인간의 탈을 벗는 호러 캐릭터? <정글북>에서 모글리를 정성스레 키워내는 사려깊은 동물? 이 다큐는 늑대의 진짜 모습을 만나려는 탈신화화 작업이다. 시베리아의 푸토라나 고원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늑대를 좇는 두 남자의, 마치 장르 영화처럼 이어지는 추적기. 과연 그들은 야생의 진짜 늑대를 만날 수 있을까? (김형석)

Is it a horrifying character that transforms from human under the full moon? Or is it a considerate animal like the one that raised Mowgli with great care in *The Jungle Book*(2016)? This documentary attempts to break from the myths to reveal the truth about wolves. Two men follow traces of wolves at Putorana Plateau in Siberia for 9 months in the story of a chase which unfolded like a genre film. Will they eventually meet real wolves in the wildness? (KIM Hyung-seok)

GC | 09.07 | 15:00

바실리 사라나

바실리 사라나는 지난 2000년부터 북극, 시베리아 그리고 러시아 극동의 야생과 원주민들에 대한 대중적인 과학 영화를 만들어왔으며,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을 받았다.

Vasiliy SARANA

Since 2000, Vasiliy Sarana has been making popular science films about wildlife and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Far North, Siberia and Far East of Russia. His films have been awarded prizes at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바람의 땅 Land of the Wind

Asian Premiere

UK, Argentina | 2017 | 18min | Color | Documentary

풍경, 생활 방식, 습관….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다. 그리고 그 바람 속으로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걸어 들어간다. 엘리세오 미시우. 그가 모노크롬 톤으로 담아낸 자연과 동물과 인간의 모습은, 때론 숭고할 만큼 아름답고 때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바람의 땅'에 대한 사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기록. (김형석)

Landscape, lifestyle, habit… These are all decided by wind in South America's Patagonia. A man holding a camera walks into the wind – Eliseo Miciu. The monochrome images of nature, animals, and humans he captures are at times sublimely beautiful, and at times unbelievably impressive. It's a classic and mysterious record of the Land of the Wind. (KIM Hyung-seok)

AC | 09.08 | 10:30 | GV

로라 벨린키

로라 벨린키는 브라질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편집자로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력 분야는 논픽션 단편 영화 연출 및 편집이다. 또한 런던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을 가르치며 제작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Laura BELINKY

Belinky is a Brazilian documentary director and editor in London. She specializes in directing and editing short nonfiction films. She both teaches and supports documentary filmmaking courses at the University of London.

알라마르 Alamar

Mexico | 2009 | 74min | Color | Fiction

<알라마르>는 부부문제로 곧 헤어져야 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짧은 여행을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담아낸 페드로 곤살레스-루비오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군락지인 반코 친초로를 배경으로 자연 속에서 잠시 함께 살게 된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결속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한편, 다큐멘터리 형식을 극영화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눈부신 자연풍경을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관계에 대한 시적 이미지로 변화시킨다. (조지훈)

Mexican director Pedro González-Rubio's second feature, *Alamar*, is a documentary style film about a short trip taken by a father and son before they are separated because of marital problems. Father and son stay together in the world's second largest coral reef habitat, Banco Chinchorro, in a beautiful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The documentary format within a feature film adds to the sincerity of what can become a father and son's last trip together, and transforms the dazzling beauty of nature into a poetic image of a father and son's relationship. (JO Ji-hoon)

GC | 09.07 | 12:30

페드로 곤살레스-루비오

페드로 곤살레스-루비오는 브뤼셀에서 태어난 멕시코 영화인이다. 감독 데뷔작인 <토로 니그로>(2005)로 다수의 상을 받았다. <알라마르>는 첫 편 연출작으로 실생활을 현실성 있게 그렸다.

Pedro GONZÁLEZ-RUBIO

Pedro González-Rubio is a Mexican filmmaker born in Brussels. His directorial debut, *Toro Negro*(2005), received several awards. *Alamar* is his feature film debut which nonetheless remains true to real life.

야생과 함께 살기 Living with Wildlife

Korean Premiere

Canada | 2017 | 24min | Color | Documentary

야생곰이 인가에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고 고속도로에 야생동물이 출몰한다.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불과 한 시간 떨어진 보우 밸리에서는 위기에 처한 인간과 야생의 공존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물용 이동통로를 만들고, 나무의 종류를 교체한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맹수진)

Wild bears appear in residential areas and go through garbage cans, and wild animals pop up on the highways. Bow Valley, only an hour away from the fastest growing city in Canada, becomes home to a project for the restoration of coexistence between man and the wild. The garbage disposal system is improved, animal passageways are built, and tree species are replaced. After decades of effort, we begin to see an amazing change. (MAENG Soo-jin)

SC | 09.07 | 15:00 | GV

리안느 앨리슨

리안느 앨리슨은 <순록 무리를 따라서>(2005)와 <Finding Faley>(2009)로 상을 받으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최근작인 <야생과 함께 살기>는 현재 다양한 영화제의 초청을 받아 전 세계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단편영화 쇼케이스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Leanne ALLISON

Allison is a filmmaker known for her award-winning films, *Being Caribou*(2005) and *Finding Farley*(2009). Her latest film, *Living with Wildlife* is currently touring in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featured on the National Geographic Short Film Showcase.

장남 The Eldest Son

Korean Premiere

Nepal, USA | 2017 | 27min | Color | Documentary

2년 전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호랑이 그리기>의 속편. 다르날 가족이 처한 빈곤의 현실은 여전하다. 빚을 갚고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떠난 장남 쿠마르. 그들의 가난은 가족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네팔 사회와 글로벌 체제가 만든 모순이다. 전작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 가족의 힘겨운 기록. 부디 희망의 시간이 오길 바란다. (김형석)

This is the sequel to *Drawing the Tiger* (2015), which screened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 years ago. Darnal's family is still just as poor as then. Their eldest son Kumar heads for Malaysia to make money for debt relief. Their poverty is not an issue of the family or individuals but the contradiction caused by Nepalese society and the global system. It is the harsh record of a family that has continued for almost 10 years. May the time of hope come to the family. (KIM Hyung-seok)

AC | 09.11 | 16:30

에이미 벤슨

에이미 벤슨 감독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이야기이며, 다큐멘터리는 인간을 깊게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남편 스콰이어 감독과 함께 <호랑이 그리기>(2015) 및 서정적 작품 <장남>을 만들었다.

Amy BENSON

Amy believes that stories are what make us human and that documentary has the power to deeply connect us. With her husband Squire, they have made *Drawing the Tiger*(2015), and *The Eldest Son* which is an anthology.

최후의 벌꿀 사냥꾼 The Last Honey Hunter

Korean Premiere

Nepal, USA | 2017 | 36min | Color | Documentary

네팔의 험준한 산악 마을 사디. 마울리 단 라이는 줄 하나를 의지한 채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올라 천연 벌꿀을 채취한다. 자신이 산의 정령인 롱케미로부터 꿀을 딸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고 믿는 마울리. 계시와도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곡예와도 같은 촬영과 놀라운 자연과 적절한 음악이 결합된 인상적 다큐멘터리. 경이로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김형석)

In the perilous mountain village of Sadi, Nepal, Mauli Dhan Rai harvests honey by climbing a rope up sheer cliffs. He believes he was chosen by the god of mountain, Rongkemi, for this honey harvest, because of a divine dream. This is an impressive documentary orchestrating the stunning nature with appropriate music and shooting feats, filled with awe-inspiring images. (KIM Hyung-seok)

GC | 09.08 | 13:30

벤 나이트

벤 나이트 감독은 촬영을 공부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과목은 모두 낙제점을 받아, 아무도 이력서를 보고 싶어하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를 중퇴하였다. 파트너인 룸멜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 각종 영화제에서 50개 이상의 상을 받아왔다.

Ben KNIGHT

Knight studied photography but failed everything else so he dropped out in hopes of no-one ever asking to see a resume. He and his film partner Rummel have won more than 50 film festival awards in the last 12 years.

푸른 심장 Blue Heart

Korean Premiere

USA | 2018 | 44min | Color, B&W | Documentary

강은 생명이다. 강을 따라 생명이 모이고 삶이 시작된다. 발칸 반도의 강은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 있는 강들이다. 이 곳에 3천 개의 댐이 건설된다고 한다. 결과는 자명하다. 부패 사슬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이윤 사업이 된 댐 건설은, 강과 강에 의존하는 생명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댐 건설에 맞선 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된다. 이유는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맹수진)

River is life. Life follows the riverbanks to gather and grow. The Balkan Peninsula is home to the last rivers in Europe. And now, some 3,000 dams are going to be built here. The result is obvious. The river, and all life dependent on it, will die with the construction of another dam for profit, most of which is gained through corruption. Henceforth begins the resistance. Its one goal is to save lives. (MAENG Soo-jin)

GC | 09.07 | 15:00

브리튼 카유에트

브리튼 카유에트는 영상에 대한 감각과 도전정신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 속에 녹여내고 있다. 첫 다큐멘터리에서는 전쟁으로 분열된 서아프리카를 다루었으며, 영화와 광고계 모두에서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Britton CAILLOUETTE

An eye for photography and love for challenging situations, he brings a unique style of visual storytelling and humanity to his stories. He directed his first documentary in war-torn West Africa and won awards for his work in both film and advertising.

학교 가는 길 The Lonely Road

Korean Premiere

Iran | 2017 | 36min | Color | Documentary

이란의 산악 지역, 후제스탄과 로레스탄 지역 사이에 작은 유목민 마을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이곳의 교사인 아지즈 모하마디. 유목민 아이들의 순수함과 진정성에 끌려 16년째 그들을 위한 교사로 살고 있다. 가난하고 고립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예수와도 같은 한 인간을 담은 기록. 담담한 톤이지만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의미심장한 다큐멘터리다. (김형석)

There is a small nomad village between Khuzestan and Lorestan in a mountainous area of Iran. Teacher Aziz Mohammadi is the only teacher of the village disconnected from the outside. Attracted to the purity and sincerity of nomad children, he has been living as a teacher with them for 16 years. It is a record of a person like Jesus, sacrificing himself for a poor and isolated community. It is a significant and deeply moving documentary in a serene tone. (KIM Hyung-seok)

GC | 09.08 | 13:30 | GV

모함마드레자 하페지

모함마드레자 하페지는 1973년 이란의 호라마바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란 테헤란의 전문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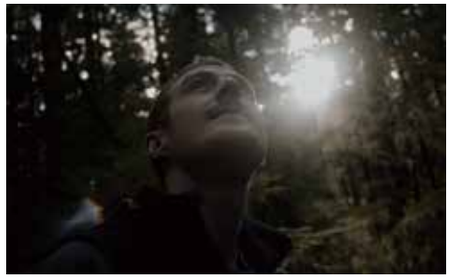
Mohammadreza HAFEZI

Mohammadreza Hafezi was born in 1973, Khoram Abad, Iran. He has a bachelor in Cinema Directing from Soore University.

헌팅 자이언츠 Hunting Giants

Asian Premiere

Canada | 2017 | 24min | Color | Documentary



포트 렌프루는 캐나다 밴쿠버섬 서해안에 형성된 마을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종(樹種)으로 유명한 이곳은 거목 등정가들과 벌목회사뿐 아니라, 시네마틱한 풍경으로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매혹적인 지역이다. 영화는 이 곳을 에코 투어리즘 구역으로 만들려는 야생 탐험가들과 벌목회사,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려는 원주민들의 상이한 계획 속에서 불투명해진 포트 렌프루의 미래를 보여준다. (맹수진)

Port Renfrew is a community on the west coast of Vancouver Island, Canada. Famous for being the home of the largest tree species and for its cinematic scenery, it is a captivating locale for climbers, logging companies, and film producers alike. This film shows the uncertain future of Port Renfrew, amid the varying plans of wildlife explorers trying to make this area an eco-tourism zone, logging companies, and native residents trying to recover control over their land. (MAENG Soo-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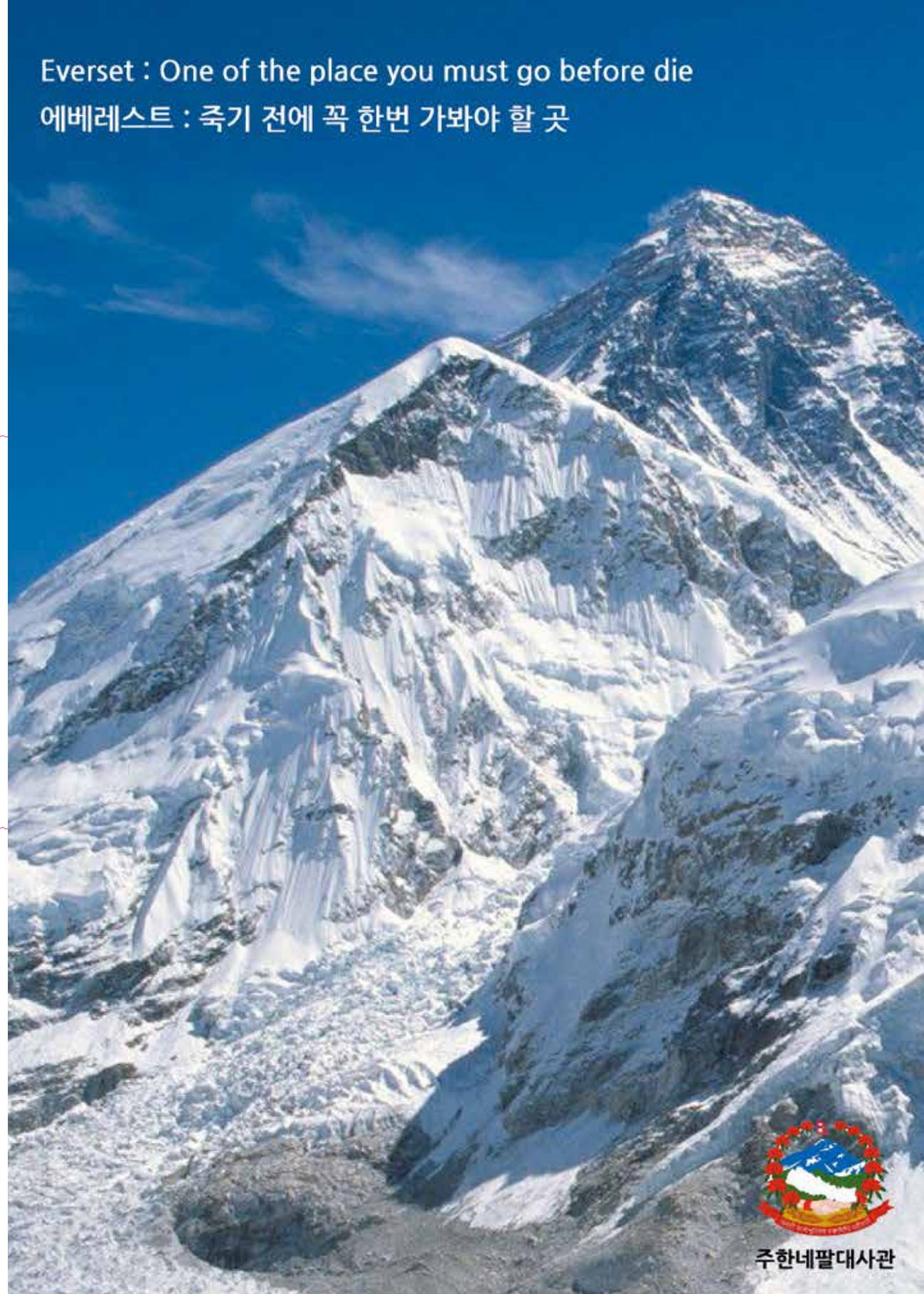
AC | 09.11 | 13:30

숀 홀러, 스티브 아담스

숀 홀러와 스티브 아담스는 공동으로 연출 및 제작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왔으며 최근작 <The Day Don Died>(2018)는 소문과 가짜 뉴스의 본질을 발랄하게 다루고 있다.

Sean HORLOR, Steve ADAMS

Filmmakers Adams and Horlor direct and produce their own projects. Their films and documentaries were shown in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their latest project, *The Day Don Died*(2018) takes a lighthearted look at the nature of gossip and fake news.



움프 포커스
UMFF Focus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특별전은 기존 울주비전이라는 하나의 특별전에서 '움프 포커스'로 명칭을 바꾸고, 그 영역을 넓히고 확장했다. 기존 울주비전의 특별전 성격을 강화하면서 산과 함께 살아가고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주빈국 특별전 '히말라야-네팔'과 내년 주빈국 특별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프리퀄: 알프스-오스트리아'를 준비했다. 그리고 올해 울주비전은 '여성 그리고 산'을 주제로 남성 못지않게 자연 속에서 탐험과 개척을 실천하는 여성의 모습을 다룬 13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슬로건인 '새로운 도전'을 반영한, 우리네 삶과 역사에서 다양한 도전을 통해 역경이나 장벽을 극복하려는 인물을 다룬 영화 5편을 준비했다.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pecial is no longer simply Ulju Vision, but renamed "UMFF Focus", and has expanded to include more themes. In addition to re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Ulju Vision, UMFF Focus has prepared two specials: "Himalaya-Nepal", a country special dealing with people living with the mountain and forming unique cultures, and "Prequel: Alps-Austria", a quick preview of next year's country special. This year's Ulju Vision will also feature 13 films about women explorers and pioneers in nature in line with its theme, "Women and Mountains." Lastly, it will feature 5 films about characters defiantly overcoming their hardships within our life and history, as a reflection to the 3rd UMFF slogan, "New Journey."

히말라야-네팔
Himalaya-Nepal

2015년 프레페스티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국가, 네팔. 매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네팔 영화를 소개함은 물론, 제작지원도 병행하며 네팔의 삶과 목소리를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히말라야 산맥 남사면에 위치한 이곳은 가장 험준한 고봉이 모여있는 나라이고, 모든 산악인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올해는 히말라야 산맥 속의 국가, 네팔 속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그들의 역사와 삶을 살펴보려 한다. 순수한 어린이의 삶을 통해 네팔을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2015년 4월 25일 대지진을 겪은 후 이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 그리고 네팔 현대사의 큰 아픔 중 하나인, 공화정 이후 정부군과 반군의 갈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모두, 네팔인 스스로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준 주한네팔대사관과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에 감사 드린다.

Ulju Mountain Film Festival has had its eyes on Nepal ever since its Pre-Festival in 2015. We have not only introduced Nepalese films every year, but also supported productions in an effort to let the voice of Nepal be heard. Facing the south slope of the Himalayas, this country boasts a concentration of the most precipitous peaks. To mountaineers, it is akin to holy ground. This year, we will burrow deeper into Nepal, a Himalayan nation, to take a close look into their history and life. Featured will be films composed of stories and voices of the Nepalese themselves, including a program that gives us the perspective of innocent children living in the nature of Nepal, a film about people overcoming the severe earthquake of April 25, 2015, and films about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bel armies in a republic nation, a sore point in modern Nepalese history. We thank the Kath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and the Embassy of Nepal Seoul, Korea for their support in this program.

검은 닭
The Black Hen

Nepal, Germany, Switzerland, France
2015 | 90min | Color | Fiction

HC | 09.10 | 16:30 | GV

영화는 네팔의 내전이 잠시 휴전인 2001년,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두 소년의 이야기이다. 왕의 마을 방문을 기념하는 축제를 위해 마을의 모든 닭이 강매된다. 하지만 프라카쉬는 반군으로 떠난 누이가 남긴 선물, 흰 암탉을 내놓을 수 없었는데, 결국 팔려갔다. 영화는 그 암탉을 되찾기 위한 두 소년의 여정에 무심한 듯 두 세계를 교차시킨다. 왕의 정부군과 공산 반군, 카스트제도에 의한 천민 아이와 촌장 손자, 어른과 아이의 세상, 아름다운 자연과 참혹한 전쟁, 흰 닭과 검은 닭. 현실을 마주한 두 세계는 냉정하지만, 영화는 두 소년의 우정과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이 세계를 건너는 힘을 보여준다. (유순희)

The film is about two boys living in a small village in 2001 during a temporary ceasefire in the Nepalese civil war. All the hens in the village are confiscated for a celebration party for the king's visit. Prakash cannot let go of the white hen his sister left him before leaving to become a rebel, but it is sold anyway. Two worlds are seemingly indifferently interspersed as the boys embark on a journey to find the hen: government troops and communist rebels, a boy of lower class and the grandson of the village chief, the world of adults and that of children, beautiful landscape and gruesome war, a white hen and a black hen. In reality, the two worlds are cold, but the film shows that friendship and providence can overcome it. (YOO Sun-hee)

민 바하두르 밤

단편 <플루트>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이름을 알렸으며 그의 첫 장편 <검은 닭>은 베니스비평주간에 초청되었고, 네팔에서도 극장 개봉하였다. 현재 네팔독립영화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영화제를 통해 국제 합작을 병행하고 있다.

Min Bahadur BHAM

An award-winning filmmaker from Nepal, Min Bahadur Bham's short film *The Flute*(2012) was the first Nepalese film presented at the Venice IFF in competition. *The Black Hen*(2015) was the first feature film of Nepal presented in Venice Critics' Week.

흔들리는 산
Trembling Mountain

Nepal | 2016 | 82min | Color | Documentary

HC | 09.07 | 15:00 | GV

Korean Premiere

2015년 4월 25일 네팔을 강타한 지진, 그 1년 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히말라야를 찾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을 하고, 농사와 목축을 하며 치즈를 만들던 평화로운 마을 랑탕에서의 삶은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마을 사람의 2/3 이상이 사망하였고,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은 잔혹하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을 껴안으며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까지, 그들의 삶은 느리지만 다시 움직인다. 영화는 걀포라는 인물을 내러티브의 축으로 삼아 흘러간다. 그는 다시 치즈를 만들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김세진)

A documentary about the aftermath of the earthquake that shook Nepal on April 25, 2015. Life was completely destroyed in the peaceful village of Langtang where tourists came to go trekking on the Himalaya, and people farmed, bred cows and made cheese. More than 2/3 of villagers were killed and life is cruel for the survivors in the ruins. Life is slow, but moving, as they embrace their loss and rebuild. The film is centered around the narrative of Gyalpo. Can he return to making cheese? (KIM Se-jin)

케상 체텐 라마

인도의 닥터 그레엄 스쿨을 졸업 후 엠네스트 칼리지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다. 네팔의 주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그의 작품들은 암스테르담, 라이프치히, 야마가타 등 다양한 국제영화제와 비엔나국제영화제, 크라카우국제영화제 등에서 소개된 바 있다.

Kesang Tseten LAMA

Kesang Tseten Lama is a graduate of Dr. Graham's School in India and Amherst College and Columbia University in the US. His documentaries have regularly screened in Nepal and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히말라야-네팔 단편 Himalaya-Nepal Shorts

새의 해 Year of the Bird

Nepal | 2016 | 15min | Color | Fiction

WUC | 09.10 | 13:00

노스님 팔조는 최근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어린 승려 타시를 데리고 수행길에 오른다. 타시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번번이 스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스승과 제자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의 문제에 응답하며 교감한다.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분노와 죄에 대한 불교적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김세진)

Old monk Paljor leaves on a journey for asceticism with young monk Tashi who is struggling with ill feelings towards his father and is constantly going against his teacher's wishes. The two monks with a great age gap don't converse much but do understand each other and their problems. The beautiful video harmonizes well with the Buddhist message about anger and sin. (KIM Se-jin)

세낭 기암조 타망

세낭 기암조 타망은 불교철학에 대한 학위를 받았고 10년 가까이 부탄, 인도, 네팔 등지의 사원을 돌며 티베트어를 가르쳤다. 영화현장을 돕다가 키엔체 노르부 감독으로부터 영화를 배웠으며, <새의 해>는 그가 연출한 첫 영화이다.

Shenang Gyamjo TAMANG

A Buddhist monk and teacher at Shechen Monastery, Nepal where he teaches Buddhist philosophy, Shenang Gyamjo Tamang has attended film workshops held in India and Nepal. He made an experimental short documentary. *Year of the Bird* is his directorial debut fiction film.

풀시리 Phulsiri

Korean Premiere

Nepal | 2016 | 29min | Color | Fiction

WUC | 09.10 | 13:00 | GV

참혹했던 지진이 지나간 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리는 학교, 10살 소녀 풀시리는 들떠 있다. 하지만 엄격한 교칙으로 교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으면 혼이 날 거란 생각에, 바쁜 하루의 저녁, 풀시리는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 나선다. 재난 이후의 상황을 덤덤한 어조로 풀어내는 작품이지만, 순수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웃음에 또 다른 희망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김세진)

A month and a half after the devastating earthquake, a school finally reopens. Ten-year-old Phulsiri is excited but remembers that the strict school rules require her to wear a uniform and a pair of shoes. After her busy day, she goes in search of her lost shoes in the evening. The film seems indifferent in its portrayal of life after a disaster, but also shows a new hope in the laughter of innocent children. (KIM Se-jin)

니마 겔루 라마

1993년생으로, 네팔의 셰르파로 유명한 소르쿰부에서 태어났다. 카트만두대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한 그는 2011년 촬영감독으로 영화작업을 시작, 장편 다큐멘터리와 단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Ngima Gelu LAMA

Born in 1993 in Solukhumbu, an eastern district of Nepal and home of the famed Sherpas, Ngima Gelu Lama graduated from Kathmandu University with a four-year undergraduate degree in Media Studies. He has worked on feature documentaries and fiction films.

플루트 The Flute

Korean Premiere

Nepal | 2012 | 15min | Color | Fiction

WUC | 09.10 | 13:00 | GV

10년에 걸친 내전이 끝나고, 네팔에서는 공화정을 위한 첫 번째 선거가 치러진다. 마을엔 마오이스트(네팔 공산당)의 선전 방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네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12세 소녀 비줄리의 삶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한다. 그녀의 감정과 모순적인 처지를 동정하듯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풍경 위로 서글픈 피리 소리가 겹친다. (김세진)

The first republican election is held in Nepal after ten years of civil war. Broadcasts of the Communist Party of Nepal is heard throughout the village, and people are all full of hope for the new Nepal. But to 12-year-old Bijuli, there is a different kind of change. The flute plays a sad tune in the beautiful Himalayas, as though sympathizing with her emotions and ironic situation. (KIM Se-jin)

민 바하두르 밤

단편 <플루트>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이름을 알렸으며 그의 첫 장편 <검은 닭>은 베니스비평주간에 초청되었고, 네팔에서도 극장 개봉하였다. 현재 네팔독립영화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영화제를 통해 국제 합작을 병행하고 있다.

Min Bahadur BHAM

An award-winning filmmaker from Nepal, Min Bahadur Bham's short film *The Flute*(2012) was the first Nepalese film presented at the Venice IFF in competition. *The Black Hen*(2015) was the first feature film of Nepal presented in Venice Critics' Week.

호기심 소녀 A Curious Girl

Nepal | 2017 | 14min | Color | Fiction

어린 자알게디는 오늘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축을 외딴 목초지에 데려가 풀을 먹인다. 그런데 그동안 마을에서 본 적 없던 백인 트레커 둘이 나타나고,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에 떠들썩해진다. 정신이 팔린 소녀는 자신의 임무를 잊은 지 오래, 마을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유쾌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연기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한편으로, 산간 마을의 현실도 가볍게 꼬집는 작품. (김세진)

Jaalgedi is out with her friends like any day, taking her cattle to a secluded pasture to feed. Then out of nowhere, two white trekkers no one has seen before appear and all the children are curious and excited. Jaalgedi also forgets her duties completely in the chaos that ensue. The cheerful and cute young actors bring a smile to our faces, and the mountain village gives us a pinch of reality. (KIM Se-jin)

WUC | 09.10 | 13:00

라제시 프라사드 카트리

라제시 프라사드 카트리는 문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네팔 서쪽의 외딴 산속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다. 지난 십 년 동안 연극배우와 감독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검은 닭>(2015)을 비롯한 다수 영화에 프로덕션 매니저로 참여했다. <호기심 소녀>는 그의 데뷔작이다.

Rajesh Prasad KHATRI

Born in Nepal on 1985, Rajesh Prasad Khatri is currently working as a primary school teacher. He has been active as a theatre actor and director. He has also worked as a production manager in a number of films, including *The Black Hen*(2015). *A Curious Girl* is his debut film.

히말라야-네팔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Himalaya-Nepal

올해 신설된 '히말라야-네팔'특별전은 영화 상영 외에도 네팔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있다. 알고 있지만, 또 미처 몰랐던 네팔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Newly established this year, the "Special Exhibition of Himalaya-Nepal" will exhibit various ways to come to know Nepal besides film. We hope it helps you come to know Nepal better.

일시 9월 7일(금) ~ 11일(화) 10:00 ~ 19:00
장소 히말라야-네팔관

Time Sep. 7(Fri) ~ Sep. 11(Tue) 10:00 ~ 19:00
Venue Himalaya-Nepal Cinema

히말라야-네팔 사진전「세상 가장 자리에서」
Himalaya-Nepal Photo Screening「Worldedge Project-Beyond W」

작가 김형욱

오지탐험가 겸 사진작가인 김형욱은 2008년 대한민국 산악대상, 2009년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공모전 인물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다양한 그룹 및 개인 전시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실크로드 8,000km 자전거 횡단, 히말라야 메루피크 원정 등의 산악 활동과 함께 오지 어린이를 위하여 히말라야 자락 27곳에 영어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손 끝에 닿은 세상』(2009), 『그날. 시오세 다리』(2017)를 집필하였으며, 산과 함께한 순간들을 그만의 방식으로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Photographer KIM Hyung-wook

Backwoods explorer and photographer Kim Hyung-wook has won the Korean Mountain Award in 2008, first prize in the National Geographic photo contest's portrait section in 2009, and continues to showcase his works through group and individual exhibits. He has biked the 8,000km of the Silk Road and made an expedition to the Meru Peak in the Himalayas. He has also built 27 English libraries in the outskirts of the Himalayas for the children in remote areas. He wrote *The World at the End of the Land*(2009) and *Si-o-se Bridge that Day* (2017), which are unique, colorful expressions of his moments with the mountain.

* 본 전시는 히말라야-네팔관 상영 시작 전, 후에 영화 스크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This exhibition will be played on screen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a film in the Himalaya-Nepal Cinema

히말라야-네팔 그림전「히말라야의 꿈」
Himalaya-Nepal Picture Exhibition「Dreams of Himalaya」

지난해 7월, 엄홍길 휴먼재단은 네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전시「히말라야의 꿈」을 개최하였다.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는 그 중 일부 작품을 선정하여 올해 특별전의 이름이자 영화관인 '히말라야-네팔관'과 연계한 작은 전시회를 선보인다.

Last year in July, the Um Hong-gil Human Foundation held an exhibition of pictures drawn by Nepalese children, *Dreams of Himalaya*.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elected a few of those pictures to exhibit in the Himalaya-Nepal Cinema, which also happens to be the name of this year's special exhibit.

히말라야-네팔 VR
Himalaya-Nepal VR

<아파 셰르파의 이야기> (5분)
에릭 크로슬랜드 감독의 동명 영화 <아파 셰르파의 이야기>를 VR로 제작한 영화다.

12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포터로 시작해 전문 셰르파가 되어 21번이나 에베레스트를 오른 히말라야 등반계의 전설인 아파 셰르파. '네팔의 진정한 보물은 히말라야가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작은 거인 아파 셰르파는 자신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네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한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간다.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5min)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is a VR film based on Eric Crosland's film of the same name.

Apa Sherpa lost his father at 12 and began working as a porter to support his family. He became a professional Sherpa and a Himalayan legend who has climbed Mount Everest 21 times. The little giant believes that "the real treasure of Nepal is not Himalaya, but the people who live under its wings." Not satisfied with his own success, Sherpa continues to take steps to bring a happy future for other Nepali children

에베레스트 VR

에베레스트를 실제 등반하는 듯한 경이로운 현장감을 VR게임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소요시간 16분)

EVEREST VR

Experience what it feels like to climb Mount Everest in a series of first person challenges as you strive to reach the top of the world. Incomparable visual fidelity combine with player agency in a VR journey that feels both real and emotionally stunning.

히말라야-네팔「산악장비전」
Himalaya-Nepal「Mountain Equipment Exhibition」

히말라야 등반 과정을 실제 사용한 산악 장비, 베이스 캠프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다.

한국산서회

Experience what it feels like to be at a base camp and use the various mountain equipment that were actually used on Himalayan expeditions.

Korean Alpen Book Club

프리퀄: 알프스-오스트리아
Prequel: Alps-Austria

험준한 유럽의 알프스, 이 산맥은 오래 전부터 유럽인들의 정복의 대상이자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일부이기도 했다. 알프스 산맥이 시작하는 동부 지역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오랜 기간 합스부르크 왕국의 중심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영화의 본질과 형식의 완성도의 끝에 도달하고자 하는 실험적 영화와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나라, 그리고, 매년 수준 높은 산악영화를 만드는 오스트리아의 삶과 영화를 미리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The rugged European Alps has long been a part of life and something to conquer for Europeans. Its eastern border begins in Austria, the center of the Habsburgs and European culture. This program will let us get a glimpse of the life and films of Austria, where every year, high quality mountain films, various documentaries, and experimental films reaching for perfection are born. This program is made possible with the support of the Austrian embassy Seoul.

세 농부와 아들
Three Farmers and a Son

Austria | 2016 | 72min | Color | Documentary

WUC | 09.09 | 10:00 Asian Premiere

농경은 인류의 생존을 떠받친다. 이 신성한 임무는 오늘날에도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혜를 뿌리 삼는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는 극소수다. 카메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농업 목축업 임업에 종사하는 세 농장주의 모습을 담는다. 생명을 경작하고 다시 이어가는 그 순환의 구조 속에서 유산이 이어지길 바라는 그들의 바람에서 그 가치를 읽어내는 건 어렵지 않다. 육체노동과 자연이 결합되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들은 연륜과 자부심에 찬 농부지만 자식을 바라보는 얼굴만은 못내 애틋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도 약자였다. (한송이)

Human beings survived through farming. This sacred duty is still carried on today based on the wisdom that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generations. But there are not many young people who inherit the know-hows from previous generations and engage in this primary industry from the early stage of their life. This film shows three farmers who each work in agriculture, ranching and forestry in Austria. It is not hard to see that they hope the legacy is succeeded in the circle of life. On the ground where the human labor and nature come together, fathers are proud of the years of their experiences. But when they see their sons and daughters, with their faces full of affection, they can't help but become the weak. (HAN Song-i)

지그문트 스타이너

1978년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유덴부르크 지방에서 태어났다. 농장에서 자랐고, 비엔나의 필마카데미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으며 마이클 하네케, 울프강 그릭에게 사사받았다. 비엔나에서 영화연출, 촬영, 편집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Sigmund STEINER

Born in 1978 in Judenburg, Styria. Grew up on a farm. Studied film directing with Wolfgang Glück and Michael Haneke at Filmakademie Wien. Works in Vienna as a free-lance filmmaker in the fields of directing, camera, and cutting.

황혼의 로맨스 Late Season

Austria | 2017 | 7min | Color | Animation

이 노부부에게도 찬란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도, 삶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잃은 지 오래다. 어느 날 해변에 간 노부부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겪는다. 그리고 삶의 활력과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되살리게 된다. <황혼의 로맨스>는 이렇게 과거와 최신 애니메이션 기술을 결합해 인생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낸다. (조지훈)

The old couple were young once. Now in their golden age, though, they have lost all feeling for each other and passion for life. Then one day at the beach, something like a dream happens to them that brings a spark back to their love and life. *Late Season* is a warm message about life made with the combina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latest animation technology. (JO Ji-hoon)

AC | 09.07 | 15:00

다니엘라 라이트너

오스트리아 출생. 2014년부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살롱 알팽과 협업중이다. 동시에 열정적인 동료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녀의 단편영화 <황혼의 로맨스>를 제작했다. 이 경험들이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Daniela LEITNER

Born in Austria. Since 2014 she has collaborated with the animation studio Salon Alpin. At the same time, together with a passionate team of fellow artists, she has produced her own short film *Late Season*. Both experiences led to her current work.

댐 The Dam

Korean Premiere

Austria | 2015 | 30min | Color | Fiction

캐서린과 크리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커플이다. 그들은 도시와 일상을 벗어나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느 댐 주변에서 하이킹을 즐기다가 혼자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한다. 캐서린은 이 사건을 겪으며 크리스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깨닫게 된다. 망가진 관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일상 속에서 불쑥 관계의 종말을 깨달으며 삶의 진실과 대면하게 되는 한 인물의 고통을 담아내고 있다. (조지훈)

Catherine and Chris have been together a long time. While hiking near a dam surrounded by the Alps, they find a little girl all alone. The experience makes Catherine realize that her relationship with Chris is over. The film is a story about the pain suffered with the discovery of a break-up and life's truths, as well as the high tension between a couple in a broken relationship. (JO Ji-hoon)

AC | 09.07 | 15:00

니콜라스 뮐러

1981년 오스트리아 출생. 비엔나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영화학을 전공하고 2007년 졸업했다.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편집자로서 여러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현재 그의 첫번째 장편영화를 준비중이다.

Nikolaus MÜLLER

Born 1981 in Austria.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Vienna in Communication and Film Sciences. He has produced several short films, working as director, screenwriter and editor. He is currently developing his first feature film.

신의 그림자 A God's Shadow

Asian Premiere

Austria, Germany, Mexico | 2017 | 20min | B&W | Documentary

멕시코의 위라리카 원주민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촌은 사촌 파우스티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토착민 거주지 라스 모라스의 샤먼의 아들이었는데, 1980년대에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고,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죽였고 촌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과 주변 자연, 촌의 모습이 담긴 아름다운 흑백 화면 위로 들려지는 개인과 지역의 끔찍한 역사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기록되어 우리 곁에 남았다. (조지훈)

Once a member of the Native Mexican Wirrárika community, Chon talks about his cousin Faustino. He was the son of a shaman residing in the indigenous settlement of Las Moras, who in 1980 made himself god and killed the members of his community. Chon barely survived. Thus remains this paradoxical record of a gruesome past told over a beautiful black and white screen image of the village, its surroundings and Chon. (JO Ji-hoon)

AC | 09.07 | 15:00

베른하르트 헤체나우어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출생. 독일, 오스트리아, 멕시코, 남아메리카에서 영화감독, 작가, 큐레이터,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그의 영화와 비주얼 아트작업은 28개국에 소개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상들을 수상했다.

Bernhard HETZENAUER

Born in Innsbruck, Austria. He works as a filmmaker, writer, curator and visual artist in Germany, Austria, Mexico and South America. His film and visual arts projects were shown in 28 countries and received various Austrian and international awards.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서 In a Beautiful and Quiet Location

Asian Premiere

Austria | 2015 | 13min | Color | Documentary

정지한 카메라를 통해 한 시골 풍경이 보여진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로 가득하지만 간간히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이 아름답고 조용한 풍경 너머로 두 번에 걸쳐 두 감독의 목소리가 끼어들고, 감독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불꽃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는 풍경을 뒤덮고 서서히 사라진다. 영화는 이렇게 풍경의 재현하는 영화적 관습과 풍경의 예술적 재해석의 문제를 유희적이고 역설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지훈)

The camera is fixed on a countryside landscape. Filled with the sounds of birds and wind, with occasional airplane noises, the beautiful and quiet landscape is twice interrupted by the two directors' voices. Their intention seems clear in the fireworks and the subsequent smoke that slowly engulfs the entire landscape. It is a playful and paradoxical commentary on the artistic production and conventions of the landscape as reenactment. (JO Ji-hoon)

AC | 09.07 | 15:00

루카스 막스트

1983년 슈타이어마르크 주 출신. Linz Art University에서 오디오비주얼과를 졸업하고 2007, 2008년도에 Faculty of Fine Arts Lisbon에서 디지털 아트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라이프치히 미술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Lukas MARXT

Born in 1983 in Styria. Lukas switched his major to Audiovisual Design at the Linz Art University, and attended the Faculty of Fine Arts in Lisbon, at the Arte Multimédia in 2007, 2008. Currently a master student at HGB in Leipzig.

야쿱 브르바

비엔나, 프라하, 리스본에 살고 있다.

Jakub VRBA

Lives in Vienna and Prague and Lisbon.

칼리파트리아 CALIPATRIA

Asian Premiere

Austria | 2017 | 9min | B&W | Documentary

칼리파트리아는 캘리포니아 사막에 위치한 주립 교소도다. 58세의 세르지오 카실라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루에 한 시간씩 교도소의 마당에서 일하는데, 그곳은 자신의 개인사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영화는 미국 서부극을 떠올리게 하는 세르지오의 실제 이야기를 근사한 목소리로 들려주며, 교도소의 황량한 마당을 가로지르며 일하는 고독한 세르지오의 모습을 멀리서 응시한다. (조지훈)

Calipatria is a state prison in the Californian desert. Sergio Cassilas(58) lives in solitary confinement serving out his life sentence. Once a day for an hour he works in the prison yard, the one place where he can reveal his story and secrets. Sergio's story is beautifully told as the camera spans out to show Sergio working alone in the deserted prison yard. (JO Ji-hoon)

AC | 09.07 | 15:00

게르하르트 트레믈

1963년 잘츠부르크 출신. 게르하르트는 비엔나응용미술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였다. 작품들에 내러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단편영화 <에덴의 끝>(2014)를 제작 및 감독을 하였다.

Gerhard TREML

Born in Salzburg in 1963. He studied graphic arts at the University of Applied Arts in Vienna and his work focuses on developing narrative strategies. Gerhard produced and directed *Eden's Edge*(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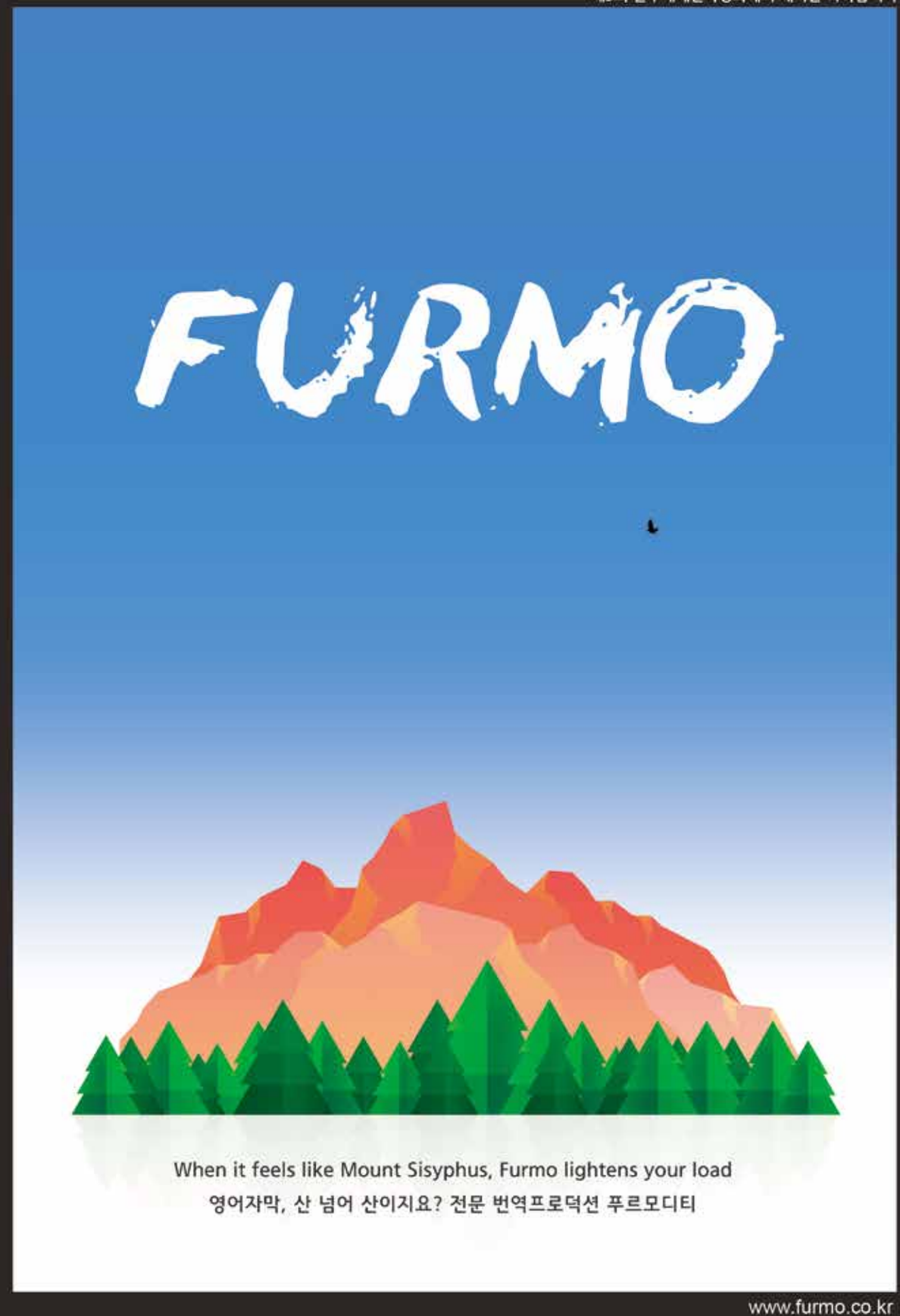
레오 칼리스

1980년 오스트리아 출신. 레오는 비엔나응용미술대학교에서 마리오 테직 교수에게서 조경 디자인을 배웠다. <에덴의 끝>(2014)의 예술기반연구에 참여하였다.

Leo CALICE

Born in St. Gotthard, Austria in 1980.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Applied Arts, Landscape Design with Mario Terzic. Part of the Art-based research project on *Eden's Edge*(2014)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울주비전: 여성 그리고 산
Ulju Vision: Women and Mountains

올해 울주비전에서는 '여성 그리고 산'이라는 주제로 총 13편의 중·단편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주로 남성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8,000미터 이상의 고산등반은 물론 거친 산과 자연을 누비며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여성들, 오지를 찾아 촬영을 하는 어드벤처 전문 감독 등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멋진 여성들에 관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다.

20년에 걸쳐 남편과 함께 8,000미터 14좌를 완등한 이탈리아 최고의 여성 산악인 니베스 메로이의 등반 인생을 다룬 <14+1>, 여성 최초로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K2를 등반해 '폴란드가 낳은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반다 루트키에비치에 대한 유일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에베레스트의 그늘에서>. 또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에서는 올해 초 많은 산악인들의 애도 속에 94세의 나이로 타계한 홀리 여사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다. 호주 출신 크리슬 라이트 감독의 <끝없는 모험>과 <여자들은 다 어디갔지?>에서는 MTB, 클라이밍, 카약, 스키를 즐기는 여성들의 경쾌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There will be 13 short and medium films screened in this year's Ulju Vision, with the theme "Women and Mountains." The films portray the cool women who are passionate about pioneering their ways – climbing the eight-thousanders usually thought to be men's domain, enjoying various outdoor activities in the rough, and shooting in the backwoods as an adventure-specialty director.

14+1 deals with the life of Italy's best female climber Nives Meroi, who for 20 years has summited the 14 peaks of the eight-thousanders with her husband; *In the Shadow of Everest* is the only documentary in existence of Wanda Rutkiewicz, known as "Poland's woman of iron will" for becoming the first woman to successfully climb the death mountain, K2. *Keeper of the Mountains* gives us a glimpse of Elizabeth Hawley, who died at 94 earlier this year to the sorrow of many mountaineers. *In Perpetual Motion* and *Where the Wild Things Play* are both films by Australian director Krystle Wright, who makes a lively portrayal of women enjoying MTB, climbing, kayaking, and skiing.

14+1

Asian Premiere

Italy | 2017 | 49min | Color | Documentary

HC | 09.11 | 16:00

이탈리아 최고의 여성 클라이머 니베스 메로이는 남편 로마노 베넷과 함께 최소한의 경비와 포터만을 고용해 히말라야 8천 미터 14좌를 무산소로 등정해낸다.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와 라인홀트 메스너, 실보 카로, 에리 드 루카의 인터뷰를 통해 등산의 본질, 부부의 등반방식, 삶의 태도를 엿보고, 급성 골수 이형성 질환을 극복해낸 위대한 등반가의 힘을 만나게 된다. (배경미)

Italy's best female climber Nives Meroi and her husband Romano Benet ascends the Himalaya's 14 peaks above 8,000m with only the minimal equipment and porter without supplemental oxygen. Their genuine conversations, and interviews with Reinhold Messner, Silvo Karo, and Erri de Luca helps us take a glimpse of the couple's method of climbing, and their view of life and climbing. We also see the great strength behind this climber who overcame acute myelodysplastic syndrome. (Christine PAE)

비다 발렌치치
이탈리아방송협회의 TV, 라디오 작가이자 문화 저널리스트. 그녀가 제작한 2편의 TV 다큐멘터리는 류블라나영화제(2018), 트렌토영화제(2018)에서 상영되었다.

Vida VALENCIC
She is a TV and radio author and cultural journalist for RAI. She has also directed two documentaries that were screened at the International Festival of Mountain Film in Ljubjana and the Tento Film Festival 2018.

꿈꾸는 자전거 The Little House Wip

Asian Premiere

Ecuador | 2016 | 7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10 | 19:30

후안과 호세는 2003년 자전거를 통해 처음 만난 뒤 의기투합하여 자전거에 관한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이후 자전거뿐만 아니라 등산, 비행, 카약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과 에콰도르의 멋진 풍경을 담은 영화들을 만들어오고 있다. 자신들만의 자전거 점핑 트랙을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꿈과 열정은 어린 소녀들에게로 대물림되어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운다. (곽정혜)

Juan and José met for the first time in 2003 because of their bikes. They got together and produced a short film about biking. Since then, they have continued to create beautiful Ecuadorian scenery filled films about their various outdoor activities, such as biking, mountain climbing, flying, and kayaking. Their dream and passion to build their own bike jumping track was passed on to the younger generation for a new hope. (GWAK Jeong-hye)

후안 리스, 호세 코보
2003년에 자전거에 대한 공통적인 열정을 가지고 만나, 2006년에 첫 작품을 에콰도르 키토에서 상영했다. 이후 자전거는 물론 클라이밍, 카약킹 등 에콰도르의 자연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Juan REECE, José COBO
When Juan Reece and José Cobo first met in 2003, they shared a passion for bicycles and screened their first film about the subject in Quito in 2006. Then, they decided to make films not only about bikes but also climbing, kayaking and more sharing great stories and landscapes from Ecuador.

끝없는 모험 In Perpetual Motion

Asian Premiere

Australia | 2017 | 5min | Color | Fiction

AC | 09.10 | 13:30 | GV

호주의 어드벤처 전문 사진작가 크리슬 라이트가 온몸으로 만난 경이와 신비의 자연 세계. 심연 깊은 해저와 광활한 사막 한복판과 눈 쌓인 산등성이까지,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이동하며 그녀가 카메라로 포착한 영원과 같은 순간들이 강렬하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꿈을 찍는다. (장보영)

Professional adventure photographer Krystle Wright of Australia comes face to face with the awe-inspiring and magical world in nature. From the depths of the ocean floor to the vast expanse of the desert to the snow covered mountain ridge, she captures on camera earth at its lowest and highest points. The powerful yet sensual moments are forever captured on video. Today again, she shoots for her dreams. (JANG Bo-young)

크리슬 라이트
호주에서 활동하는 어드벤처 사진작가, 촬영감독이자 연출자이다. 탐험과 모험의 과정에서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기 위해 정진하며 그녀의 창의성과 작품, 열정을 알아가는 중이다.

Krystle WRIGHT
Adventure Photographer, Cinematographer and Director from Australia. She travels the world to capture unique moments from expeditions and adventures. She strives to pursue fresh challenges and recognised for her creativity, composition and passion.

드날리의 파일럿 Denali's Raven

Korean Premiere

USA | 2016 | 9min | Color | Documentary

알래스카의 대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감탄한 레이안 팔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등반을 시작해 실력 있는 가이드로 성장했다. 그런 그녀가 파일럿으로 전향한 이유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모험을 향한 자신의 열정 그리고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모두 충족해주는 좋은 직업이라며 감사해하고 행복해한다. (장보영)

Inspired by the great outdoors of Alaska, Leighan Falley began climbing right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and soon became a skilled guide. She then changed her profession to be a pilot after finding a loving husband and having a child. She is happy and thankful for the new profession, for it allows her to satisfy both her passion for adventure and her role as a mother (JANG Bo-young)

GC | 09.07 | 12:30

르넌 오즈턱

캠프4콜렉티브 설립자 중 한 명이자, 최근 10년간 노스페이스 선수로 활동 중이다. 자연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가 제작한 산악 영화는 산악 영화계는 물론 세계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Renan OZTURK

One of the founders of Camp4 Collective, Renan Ozturk has also been a member of The North Face athlete team for the last 10 years. By telling stories about the connection to the natural world, the films have a presence in the mountain filmmaking community and world.

리브가 걸어온 길 Liv along the Way

Asian Premiere

Canada | 2018 | 23min | Color | Documentary

90년대 후반 전 세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휩쓴 등반 여제 리브 샌소즈는 한때 자유낙하를 즐기는 베이스 점퍼로 활약하면서 심각한 추락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부상을 극복하고 유럽 알프스산맥의 4천 미터 봉우리 82개를 1년 안에 등반하려는 도전에 나서는데…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알프스의 연봉에서 펼쳐지는 리브의 불굴의 의지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오롯이 만날 수 있다. (배경미)

Liv Sansoz was the queen of sports climbing competitions in the late ‘90s. At one point she was an active B.A.S.E. jumper, but was injured in a serious falling accident. Upon overcoming the injury, she challenges herself to climb 82 Alpine peaks that are over 4,000 meters within a year. Liv’s iron will and her past journeys come together in this breathtaking beauty of the Alps range. (Christine PAE)

GC | 09.10 | 16:30

안소니 보넬로

b4apres Media 설립자이자 프리랜서 작가 및 사진가.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여러 나라에서 수상했으며 30개국 이상에서 상영되었다.

Anthony BONELLO

Anthony Bonello is the founder of b4apres Media, a freelance writer and photographer. He has made documentaries which have won numerous awards internationally and have screened in over 30 countries.

마마 Mama

Korean Premiere

Poland | 2017 | 45min | Color | Documentary

엄마가 된다는 건 여성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꿈을 향한 날개가 꺾이는 일이며, 특히 운동을 하던 여성들은 좌절감과 초조함을 더 많이 느낀다. 폴란드를 대표하는 클라이머였던 킹가 오키에프카 그레즈굴스카는 두 아이를 출산 한 뒤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 이제껏 여성이 오른 적 없는 루트들을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열정을 불태운다. (곽정혜)

Becoming a mother brings the utmost happiness to a woman. But for an individual, especially for a sportswoman, it can also hinder her dreams that bring on despair and anxiety. Polish climber Kinga Ociepka-Grzegulska has given birth to two children, and to become a “happy mom”, she has rekindled her passion with a goal to climb routes not yet climbed by other women. (GWAK Jeong-hye)

GC | 09.10 | 16:30 | GV

보이첵 코자키비치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감독이자 에디터. 세계 최고의 등반가, 하이라이너들과 일하고 있다. 최근 제작된 2편의 장편 다큐멘터리는 세계 여러 산악영화제에서 수상했다.

Wojtek KOZAKIEWICZ

Wojtek Kozakiewicz directs and edits sport documentary films. He has been working with the world’s best climbers and highliners. His two latest feature documentaries won multiple awards at the Mountain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사티 Sati

Korean Premiere

Poland | 2013 | 25min | Color | Documentary

남편이 죽어 화장할 때 아내도 불 속에 투신하여 따라 죽는 힌두교의 관행, 사티. 폴란드 등반가 피오트레크는 산에서 온전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등반 장면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은 복잡하다. 사랑하는 남편이 더 이상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아내의 영혼도 함께 스러져가고, 이는 곧 그녀에게 있어 ‘사티’나 다름없다. (곽정혜)

Sati is a Hindu funeral custom where a widow throws herself on the fire when her husband is being cremated. Polish mountaineer Piotrek looked for happiness and meaning of life in the mountains, but his widow’s mind is a mix of emotions as she watches his last climb. As she realizes that her loving husband will no longer be able to come home, her spirit also disappears - a true “Sati” indeed. (GWAK Jeong-hye)

AC | 09.11 | 10:30

바르트워미에이 스위더스키

실레시안 대학교에서 영화와 TV연출을 공부했고, 바드야 영화학교의 학생이기도 했다. 여러 단편 영화와 광고 등을 제작하였으나, 다큐멘터리 제작이 그의 진정한 꿈이었다. <사티>는 그의 첫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Bartłomiej ŚWIDERSKI

Bartłomiej Świderski studied Film and TV directing at Silesian University and was a student at Wajda Film School. He has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and commercials, but what he wants to do the most is make documentaries. *Sati* is his documentary debut.

어머니 산 Mothered by Mountains

Korean Premiere

Nepal | 2017 | 16min | Color | Documentary

네팔 최초의 여성 산악 가이드이자 산악인인 파상 라무 셰르파 아키타와 카트만두의 펑크 락커이자 싱글맘인 사리나 레이. 백인 남성인 감독의 애초 기획은 네팔 여성의 권리 확장을 위해 두 주인공이 터프 가이들의 거친 모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는 하드코어 로큰롤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두 여성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완성한다. (최선희)

A white male director’s original intent was to bring two women on a badass adventure, Nepal’s first female mountain guide and climber Pasang Lhamu Sherpa Akita, and Kathmandu’s punk rocker and single mom Sareena Rai. The idea was to make a hardcore rock ‘n’ roll film to empower Nepalese women. That didn’t go to plan, and the two women end up doing it their own way. (Billy CHOI)

SC | 09.10 | 16:00 | GV

르넌 오즈턱

캠프4콜렉티브 설립자 중 한 명이자, 최근 10년간 노스페이스 선수로 활동 중이다. 자연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가 제작한 산악 영화는 산악 영화계는 물론 세계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Renan OZTURK

One of the founders of Camp4 Collective, Renan Ozturk has also been a member of The North Face athlete team for the last 10 years. By telling stories about the connection to the natural world, the films have a presence in the mountain filmmaking community and world.

에베레스트의 그늘에서 In the Shadow of Everest

Asian Premiere

Poland | 1998 | 30min | Color, B&W | Documentary

1978년 유럽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여 1991년까지 8천미터 14좌 8개를 완등한 폴란드의 세계적인 여성 산악인 반다 루트키에비치. 그녀가 92년 칸첸중가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했던 동료의 인터뷰와 어머니의 회고, 그리고 생전의 모습을 통해 산을 향한 집념과 외로움, 등정의 이면에 나타난 그림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배경미)

Wandy Rutkiewicz is a world class female climber who in 1978 made the first successful summit of Mount Everest as a European (Polish) woman. She went on to climb 8 of the 14 eight-thousanders. As we watch interviews with fellow climbers who were with her until she died at kangchenjunga in 1992, a retrospection by her mother, and videos of Rutkiewicz while alive, we come to understand the shadows beyond climbing that formed her life, devotion to mountains and loneliness. (Christine PAE)

HC | 09.11 | 16:00

안나 테레사 피에트라스젝

안나 테레사 피에트라스젝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방송사 기자, 사진작가, 촬영감독, 작가, 감독으로 총 190편의 다큐멘터리 작업에 참여하였다.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는 현재 방송언론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Anna Teresa PIETRASZEK

Pietraszek is a documentarian, TV journalist, photographer, camerawoman, director, screener, author of 190 documentaries, winner of many awards and a TV journalism high school teacher.

에지 Edges

Asian Premiere

USA | 2016 | 10min | Color, B&W | Documentary

이본 달른은 작고한 2016년까지 90세가 넘도록 빙판에서 활약한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이자 코치다. 그녀의 일생에는 항상 아이스 스케이팅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도전은 88세에 치른 뇌출혈이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스케이트를 탈 수 없을 거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 달 후 무대에 섰고, 죽기 직전까지 얼음 위에 있었다. (장보영)

Yvonne Dowlen was an active ice skater and coach until she died in 2016 at over 90 years of age. Ice skating was always part of her life. She faced her greatest challenge at 88 when she had a stroke. The doctors told her that she would not be able to skate again. Yet only two months later, she was once again on stage, and remained on ice until just before her death. (JANG Bo-young)

HC | 09.11 | 16:00

케이티 스티언홈

발코니 나인 미디어의 감독, 프로듀서, 작가이자 설립자이다. 그녀는 각종 영화제와 방송뿐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단편영화 쇼케이스와 디스커버리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Katie STJERNHOLM

Director, producer, writer and founder of Balcony Nine Media, Katie Stjernholm's work has featured in film festivals, broadcast television, as well as a variety of channels including the National Geographic Short Film Showcase and the Discovery Channel.

여자들은 다 어디갔지? Where the Wild Things Play

Asian Premiere

USA | 2017 | 5min | Color | Fiction

금요일 밤의 로컬 술집, 세 명의 남자가 무기력한 얼굴로 맥주잔을 부딪친다. 그런데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다. "'여자들'은 어디 갔어?" 화면은 이내 광활한 대자연을 비추고 그곳에서 '여자들'은 MTB, 클라이밍, 베이스점프, 스키, 카약, 슬랙라인 등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긴다. 어드벤처 사진 작가인 크리슬 라이트가 그녀들의 경쾌한 웃음을 영상에 담았다. (장보영)

Three tired looking men clink their beer glasses at a local bar on a Friday night. But something is different today. "Where are the ladies at?" The screen soon moves out to the vast nature, where the "ladies" are enjoying various outdoor sports such as MTB, Climbing, Base Jump, Ski, kayak, and slack line. Adventure photographer Krystle Wright captures their happiness on video. (JANG Bo-young)

AC | 09.10 | 13:30 | GV

크리슬 라이트

호주에서 활동하는 어드벤처 사진작가, 촬영감독이자 연출자이다. 탐험과 모험의 과정에서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기 위해 정진하며 그녀의 창의성과 작품, 열정을 알아가는 중이다.

Krystle WRIGHT

Adventure Photographer, Cinematographer and Director from Australia. She travels the world to capture unique moments from expeditions and adventures. She strives to pursue fresh challenges and recognised for her creativity, composition and passion.

우리들의 이야기 Women's Ways

Asian Premiere

France | 2017 | 28min | Color | Documentary

등산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발자국을 끊임없이 남겨왔고, 지금도 치열하게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암벽등반에 매진하는 마르티나, 심각한 등반사고를 당했었지만 굴하지 않고 알프스의 산들을 오르는 리브, 국립등산스키훈련센터(CNEAS)의 여성강사 중 한 명인 마리옹은 '자기 자신을 믿고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곽정혜)

Through the history of mountaineering, women have left traces and they are still achieving their own goals even now. Martina, a climber as well as the mother of two kids, Liv Sansoz, undauntedly challenging the Alps despite a severe accident, and Marion, an instructor at 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à l'Alpinisme et au Ski à, all agree that 'trusting in themselves and relentlessly going forward' is their driving force. (GWAK Jeong-hye)

AC | 09.11 | 10:30

산드라 뒤카스

세계 여러나라에서 스포츠 과학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면서, 대학시절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남편 프란시스코와 함께 일하며 6년간 사진작가와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Sandra DUCASSE

By studying sport sciences and scientific communication in many countries Sandra Ducasse kept moving around the world when she was at university. She has worked as a photographer and filmmaker for six years together with her husband, Francisco Taranto Jr.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 Keeper of the Mountains

Korean Premiere

USA | 2013 | 25min | Color | Documentary

94세로 올 1월, 네팔에서 작고한 미국인 엘리자베스 홀리는 가장 저명한 히말라야 등반기록자였다. 1963년부터 2018년까지 히말라야를 오른 모든 등반대와의 인터뷰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녀가 만든 히말라얀 데이터베이스는 네팔 정부 보다 정확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유명하다. 죽을 때까지 그녀는 미쓰(Miss) 홀리로 불리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독신주의자였다. (신영철)

Elizabeth Hawley who died at the age of 94 in Nepal January of this year, was the best-known American chronicler of Himalayan expeditions. She left records of interviews with every Himalayan expedition from 1963 to 2018. The Himalayan database she created is said to be more accurate than that of the Nepal government. She wanted to be called Miss Hawley until her death, and led a celibate life. (SHIN Young-chul)

AC | 09.11 | 16:30

앨리슨 오토

그녀는 다큐멘터리 감독, 시네마토그래퍼, 프로듀서, 비주얼 저널리스트이자 드론 사진가이기도 하다. 그녀의 첫 작품인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는 15개의 상을 받았으며, 30곳이 넘는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Allison OTTO

Allison Otto is an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maker, cinematographer, producer, visual journalist and licensed drone photographer. Her first film *Keeper of the Mountains*, which won 15 awards, screened at over 30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패널 토크 1: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를 말하다
Panel Talk 1: Keeper of the Himalayas-Elizabeth HAWLEY

일시 9월 8일(토) 11:00 ~ 13:00
장소 히말라야-네팔관

올해 초 국내외 산악인들의 애도 속에 향년 94세의 나이로 네팔 카트만두에서 타계한 '히말라야의 영원한 기록자'로 불린 엘리자베스 홀리 여사에 대한 다큐영화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 상영 후 한국인 최초로 산악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황금 피켈상'을 수상한 김창호 대장의 사회로 생전의 홀리 여사를 직접 만나봤던 허영호 대장, 여성 산악인 곽정혜 그리고 등반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홀리 여사와의 인터뷰 및 등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Time Sep. 8(Sat) 11:00 ~ 13:00
Venue Himalaya-Nepal Cinema

After *Keeper of the Mountains*, a documentary film about Elizabeth Hawley, who passed away early this year at the age of 94 and received condolences from mountaineers of the world, is screened, Heo Young-ho, who met Mrs. Hawley when she was alive, Gwak Jeong-hye, a female mountaineer, and other people in the climbing industry will have a conversation about interviews with her and the importance of climbing recording, under the emceeing of Kim Chang-ho, the first Korean winner of the Piolets d'or, the Oscar of mountaineering.

패널 토크 2: 여성 그리고 등반
Panel Talk 2: Women and Mountaineering

일시 9월 9일(일) 13:00 ~ 15: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올해 '울주비전: 여성 그리고 산'의 상영작인 <어머니 산> 상영 후 영화의 주인공인 네팔 출신 산악인 파상 라무 셰르파 아키타와 한국의 여성 등반가들이 여성 산악인 그리고 등반가로서의 삶에 대해 관객과 함께 이야기 한다.

Time Sep. 9(Sun) 13:00 ~ 15: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After the screening of *Mothered by Mountains* at Ulju Vision: Women and Mountains, there will be an occasion for viewers to talk about the life of female mountaineers and climbers with Korean female climbers as well as Pasang Lhamu Sherpa Akita, protagonist of the film and climber from Nepal.

워크숍: 크리슬 라이트의 어드벤처 사진 촬영
Workshop: Krystle WRIGHT's Adventure Photography

일시 9월 9일(일) 17:00 ~ 19: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상영작인 <끝없는 모험>과 <여자들은 다 어디갔지?>의 촬영감독이자 연출가인 크리슬 라이트 감독이 산, 바다, 사막, 암벽과 극지에서 직접 촬영한 어드벤처 사진에 대한 특강과 수강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사진에 대한 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Time Sep. 9(Sun) 17:00 ~ 19: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Krystle Wright, Director of Photography and director of *In Perpetual Motion* and *Where the Wild Things Play*, screened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is year, will give a special lecture about adventure pictures she shot herself at mountains, seas, deserts, rock walls and polar areas and have a mentoring time about pictures submitted in advance by attendees.

새로운 도전
New Journey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슬로건은 '새로운 도전'이다. 산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시작 자체가 도전이었던 울주세계산악영화제, 2018년 제3회를 맞이한 영화제는 가파른 산을 오르는 등반 자체가 매번 새로운 도전이라는 취지 하에 다시 한 번, 다양한 영역과 형식의 도전을 시도하기 위해 올해의 주제를 마련했다. 누군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때는 불행하지 않은 그 순간이라 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변화와 역경을 극복하는 그 순간 역시, 행복과 성취감에 즐거운 소름이 돋는 찰나이기도 하다. 총 5편의 영화는 자신 앞에 놓은 변화와 역경을 온몸으로 부딪치는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도시에 살던 첼리스트가 고향마을에 돌아와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린 <레지나>, <산 너머 보리밭>은 티벳 산간마을에 살던 페마의 가족에게 닥친 자유로의 여정이자 도전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이 장벽을 넘는 도구이자 힘이 되는 영화 2편 <소니타>와 <매리 그레이스>, 마지막으로 세계적 클라이밍 선수 라이 치와이의 휠체어 등반 도전기 <결(結)>은 우리에게 각박한 삶 속의 도전을 생각해보게 만든다.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logan is "New Journey". To begin planning for a film festival in the mountain was in itself a challenge fo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Now in its 3rd year, the 2018 festival has selected this slogan with the purpose of reiterating that climbing steep mountains is a new journey, every time, as well as to attempt more challenges in different turfs and methods. Someone has once said that the one time we feel happiness is the one moment we are not unhappy. But that moment in which we overcome changes and adversity is also a moment of happiness and accomplishment. We introduce to you 5 films about characters who face adversity head on. *Resina* is about a cellist who returns home and learns to adapt to life there, and *Barley Fields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shows Pema's family as they journey and challenge themselves to find freedom in a Tibetan mountain village. *Sonita* and *Marygrace* are two films in which music become a source of power to overcome hardships. Lastly, *CRUX* is about world class climber Lai Chi-Wai's wheelchair climbing attempt. They help us reflect on the challenges we face within our tough lives.

결(結)
CRUX

Hong Kong | 2017 | 92min | Color | Documentary

HC | 09.07 | 12:00

Korean Premiere

세계적인 클라이밍 선수였던 라이 치와이는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더 이상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 순 없지만, 그는 자신의 사고 5년 후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도전을 시도한다. 홍콩 라이언락의 유명한 봉우리를 휠체어를 탄 채 오르는 것이다. 끊임없는 훈련과 고도의 집중력, 장애를 뛰어넘는 놀라운 의지를 가진 라이 치와이의 도전만으로도 많은 인간적인 울림을 전달하지만, 이보다도 훨씬 감동적인 것은 그를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이는 결코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며, 그 결과는 공동체가 가진 선한 힘을 깨닫게 만든다. (김세진)

Previously world class professional climber Lai Chi-Wai was paralyzed on the lower body from an accident 5 years ago. He can no more live as an athlete, but he is performing a new challenge that started as of the accident. He decided to climb the peak of Lion Rock in Hong Kong in a wheelchair. Lai Chi-Wai's unceasing training, high concentration and incredible will of overcoming disability is moving enough, but what is even more surprising is the crowd who gathered to help him. It is not the challenge of just one person. It is made possible by the power of the good will shared throughout a group of people. (KIM Se-jin)

호 씬청

홍콩 잡지사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던 호 씬청은 자신의 첫 장편 영화 <결(結)>(2017)을 감독, 제작 및 편집을 하였다.

HO Sinchung

A Hong Kong native and former art director for a Hong Kong magazine, Ho Sinchung independently directed, produced and edited his first feature-length film *CRUX*(2017), a documentary about Lai Chi-Wai, a wheelchair-bound rock climber from Hong Kong.

레지나
Resina

Italy | 2018 | 90min | Color | Fiction

WUC | 09.07 | 14:30

International Premiere

오디션에 실패한 첼리스트가 오빠의 죽음을 계기로 고향에 돌아온다. 상실감에 젖은 마리아가 역할을 부여받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 눈뜨는 동안 도시의 기억은 퇴색된다. 발걸음을 붙잡고 날선 신경을 잠재우는 건 그런 고향의 익숙함이다. 영화의 매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시종일관하는 마리아가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미소를 되찾는 과정에 있다. 중세 게르만 언어를 간직한 알프스 고산마을의 찌를 듯한 침엽수림과 겹겹의 봉우리들, 반듯한 집들의 풍경은 덤이다. 고즈넉한 저녁 마을 중창단 노래자락에 귀를 맡기다 보면 어느새 고향마을의 내음이 몰려온다. (한송이)

After failing her audition, cellist Maria returns home when her brother dies. While mourning her loss, Maria must open her eyes to those who need her. It's the familiarity in her hometown that holds her there and calms her nerves. Watch as Maria loses her offhand manner and begins to smile as she becomes part of her family and community. As an added bonus, look out for the layers of mountaintops, rooftops, and the coniferous forest in this Alpine village that still speaks an ancient language. Listen to the choir singing in the quiet stillness of the village and you'll soon be thinking of home. (HAN Song-i)

렌초 카르보네라

켄 로치에 대한 논문으로 파도바대학을 졸업했다. 그가 연출한 9편의 TV 다큐멘터리는 전세계에 걸쳐 방영되었다. 그는 또한 각본가로 활동하고 있다. <레지나>는 그의 첫번째 장편 극영화이다.

Renzo CARBONERA

Graduated with a thesis on British director Ken Loach at the University of Padova. He directed 9 TV documen taries, all of them distributed and broadcasted worldwide. He also works as script writer and script doctor. *Resina* is his first feature film.

산 너머 보리밭
Barley Fields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UK | 2017 | 88min | Color | Fiction

WUC | 09.11 | 13:00

페마의 가족은 티벳 산간마을에서 보리밭을 일구며 살아간다. 그들의 단란한 평화를 보여주는 것도 잠시, 시위 혐의로 아버지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간다. 마을을 둘러싼 험준한 히말라야는 페마가 아버지를 찾을 수 없게 거대한 벽처럼 서있고 페마의 일상은 한 순간에 붕괴된다. 영화는 티벳 자유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 대신 단단했던 가족의 분열을 통해 평화로운 삶과 정치의 관계를 보편적 정서로 풀어낸다. 정치 난민의 이슈가 한국에도 상륙한 현재, 페마의 삶으로 들어가 그가 가려는 길의 의미를 살펴볼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 산 너머에선 평화롭길 바라본다. (한송이)

Pema's family farms barley fields in a mountain village in Tibet. Their happy and peaceful life is shattered when her father is taken by the Chinese authorities for protesting. The rugged Himalayas that surrounds the village is a great wall stopping Pema from searching for her father. Rather than making a direct comment regarding freedom in Tibet, the film takes a family torn apart to dra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ful life and politics. Now when political refugees are a hot issue in Korea, it would be a good time to reflect on Pema's life and the meaning of her choices. We hope there is peace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HAN Song-i)

티안 체링

티안 체링은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하여 전세계 영화제들에 초청되어왔다. <산 너머 보리밭>은 그의 첫 번째 장편 데뷔 영화이다.

Tian TSERING

He has since shot a numbers of short films that have circulated in film festivals worldwide. *Barley Fields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is his directorial debut feature film.

새로운 도전 모음 New Journey Films

소니타 Sonita

Korean Premiere

Germany, Switzerland, Iran | 2015 | 90min | Color | Documentary

HC | 09.10 | 13:30

이란 테헤란의 허름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한 18세의 소녀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불법 이민자인 그의 이름은 소니타, 꿈은 래퍼다. 이런 소니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다. 아프가니스탄의 관습에 따라 오빠의 결혼 지참금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가 결혼을 하면 가족이 받는 돈은 9천불. 여기에 이란에서는 여성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더해진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은 감독의 개입으로 변화하고, 영화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랩을 통해 개인의 삶을 옥죄는 전통과 관습에 저항하며, 한 발 한발 꿈을 향해 전진하는 소니타의 삶을 촘촘하게 기록한다. (조지훈)

An 18-year-old girl living in the shabby outskirts of Teheran, Iran. As an illegal immigrant from Afghanistan, Sonita wants to become a rapper, but faces an obstacle. To provide for her brother's wedding dowry per Afghani customs, she must return home and get married. With her marriage, her family will receive $9,000. What's more, women are not allowed to sing in Iran. Her hopeless situation is turned around when the director becomes involved, and makes a detailed documentary of Sonita's life, as she fights against the suffocating traditions and customs with only rap as her weapon. (JO Ji-hoon)

로크사레 가엠 마가미

로크사레 가엠 마가미는 테헤란 예술대학에서 영화연출과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그녀는 6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고 그중 <Cyanosis>(2007)와 <기적을 그리다>(2011)는 20개가 넘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Rokhsareh Ghaem MAGHAMI

She studied Filmmaking and Animation in Tehran Art University. She has Made 6 documentaries including *Cyanosis*(2007) and *Going up the Stairs*(2011) won more than 20 international awards.

매리 그레이스 Marygrace

USA | 2015 | 15min | Color | Documentary

HC | 09.10 | 13:30

열한살의 매리 그레이스는 어느 날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어버렸다. 90일 동안 다섯 군데의 병원을 다니며 18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극도로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고 그녀의 부모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오로지 침대에 누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음악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이정진)

Eleven-year-old Mary Grace becomes completely paralyzed one day. For 90 days, she receives 18 operations in 5 different hospitals to no avail. She becomes extremely temperamental and her parents give up everything and bring her home. All she can do is lie in her bed but then, music creates a miracle. (Jinna LEE)

팸 브랜든

팸 브랜든은 제작자이자 감독이다. 그녀의 첫 단편영화인 <매리 그레이스>는 2015년 칸국제영화제에 상영되었다. 그녀는 광고, 비디오, TV 시리즈, 단편영화의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Pam BRANDON

Pam Brandon is a producer and director. Her first short film to direct, *Marygrace*, was screened at the 2015 Cannes IFF. She's directed and produced commercials, videos, an award-winning TV series and a short film.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산악 문화를 알리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온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전문가 제작 지원 프로그램 '울주서밋'과 일반인 제작 프로그램 '우리들의 영화'를 소개해왔다. '2018 울주서밋' 중 장편 다큐멘터리 2편 <카일라스 가는 길>과 <산적의 꿈>을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한다. 또한 '우리들의 영화'는 울주와 다큐멘터리 합성어 '울주멘터리'라는 이름으로 변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하여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프로그램으로 15분 내외의 다큐멘터리를 완성, 영화제 기간 첫 공개한다. 짧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울주와 산을 알아가고, 제작 참여의 벽을 낮춘 '울주플랫폼' 역시 일반인들의 열정적 참여의 결과물이다. 움프 프로젝트 섹션은 영화상영 외에 제작-상영-배급을 꿈꾸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디딤돌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Ulju Mountain Film Festival has worked to inform the public about mountain culture and to expand its base. To this end, it has introduced the professional production support program "Ulju Summit" and the public production program "We Make UMFF". Two feature documentaries of "Ulju Summit 2018" – *Journey to Kailash*, and *Bandit's Dream* – will make their world premieres. "We Make UMFF" has been renamed "UljuMentary", a combination of the words Ulju and documentary. Cosponsored by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this media education program will help new filmmakers finish a 15-minute-or-less documentary to be screened during the film festival. "Ulju Platform" is also a product of passionate public participation, bringing their short videos and photos together to get to know Ulju and mountains better. The UMFF Project section will become Ulju Mountain Film Festival's stepping stone program to bring production, screening, and distribution on top of film screenings.

2018 울주서밋
Ulju Summit 2018

2018년에 선정된 3편 중 총 2편의 장편 다큐멘터리가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된다.
Two feature documentaries selected in 2018 will be introduced as World Premiere.

산적의 꿈
Bandit's Dream

Korea | 2018 | 100 | Color | Documentary

AC | 09.08 | 16:30 | GV

World Premiere

지구상 아직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히말라야 쿰부산군의 중북부, 세계 4위의 고봉 8,516m 로체남벽. 세계 산악 계의 최고의 관심사인 산이자, '불가능' 이라 불리는 이곳에 도전하기 위해 홍성택 대장과 그의 대원들. 세상의 질서에 거스르는 산적처럼, 해발 5,000m에 베이스캠프를 지으며 불가능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이정진)

The South Face of Lhotse, the fourth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at 8,516m, located in the Khumbu region of the Himalayas, has yet to be summited. Mountain climbers all over the world are keenly interested in this "impossible" mountain. Hong Sung-taek and his team attempt its summit, like bandits going against the world order. As they make their base camp 5,000m above sea level, they shoot for the possibility in the impossible. (Jinna LEE)

카일라스 가는 길
Journey to Kailash

Korea | 2018 | 89min | Color | Documentary

AC | 09.08 | 13:30 | GV

World Premiere

여든넷 할머니와 마흔아홉 아들이 모험에 나선다. 시베리아의 영혼이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를 시작으로, 몽골 평원, 고비 사막,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타클라마칸 사막, 칭하이-티베트 고원을 지나,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으로 먼 길을 떠난다. 해외여행으로 카일라스로의 여정을 선택한 할머니, 할머니의 여정은 도전의 길이자 사색의 길이기도 하다. (이정진)

An 84-year-old mother and a 49-year-old son embark on an adventure. Beginning at Lake Baikal, also known as the soul of Siberia, they trek through the Mongolian plains, the Gobi Desert, Central Asia, the Pamir Plateau, the Taklamakan Desert, the Qinghai-Tibet Plateau to their destination in Tibet, Mount Kailash. This being the mother's journey abroad, she chose this destination herself, as a journey for meditation and challenge. (Jinna LEE)

양태진

연극, 영화연출을 공부하고 연출하던 중 (사)한국영상예술협회에서 영화제 업무를, 방송사와 프로덕션에서 프로듀싱 업무를 거쳐 <산적의 꿈>은 첫 장편영화 연출이다. 잉그마르 베르히만을 존경하고, 연극, 영화, 방송 각 분야의 연출을 경험하였으며 매체와 장르를 아우르는 연출을 하려 노력 중이다.

YANG Tae-jin

While studying theater and film production, he worked at the Korea Visual Arts Association as a producer. During his studies, he got to experience directing plays, movies and broadcasting. His goal is to become a director in all genres.

정형민

경북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후,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했다. 귀국 후 다큐멘터리 번역가로 활동하다가 2008년 경북 봉화의 산골로 귀촌하였다. 2011년부터 히말라야 지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오지를 떠돌았다. 문명 세계 너머, 지구의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JUNG Hyung-min

He studied cultural anthropology and worked as a documentary film translator. Since 2011, starting in the Himalayas, he has been traveling to remote areas of Asia, filming the people and places far beyond our civilized world.

2019 울주서밋
Ulju Summit 2019

2019 울주서밋 지원작은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22편의 장, 단편 프로젝트 중, 1차 예심과 2차 본심 과정을 거쳐 최종 5편(장편 다큐멘터리 2편, 단편 극영화 3편)이 선정되었다.

The final five (2 feature and 3 short) projects were selected for the Ulju Summit2019 among 22 projects. Those will be introduced at UMFF2019 as world premiere.

2019 울주서밋 지원작
Ulju Summit 2019 Projects

계양산
Gyeyangsan Mountain
최주영
CHOI Joo-young

미명
Before Dawn
김대철
KIM Dae-cheol

신시
Sinsi
장은주
JANG Eun-ju

여름에 내린 눈
A Summer Snow
이가경
LEE Ga-kyung

우디헤디 가는 길
Return to 'Udihedi'
인병훈
IN Byung-hoon

본심 심사위원
Final Jury

장규호
콘텐츠 로컬라이제이션 전문 프로덕션 푸르모디티 대표. 영화 <더 플랜>, <노무현입니다>, <자백> 등의 로컬라이제이션 라인프로듀서, 방송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누들로드」, 「북극의 눈물」 등의 현지화 버전 제작을 담당했다. 또한 국내 방송사 콘텐츠의 국제상 출품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프로덕션과 공동제작으로 다큐멘터리 <The Muse Story>와 <과속 스캔들> 베트남 리메이크 버전을 제작했다.

CHANG Kyu-ho
He is the representative of production company FURMO DT Inc, specializing in content Localization. He was the line producer of *The Plan*(2017), *Our President*(2017), and *Spy Nation*(2016). He produced the localized version of TV documentaries *Asian Corridor In Heaven*(2007), *The Noodle Road*(2007) and *Tears in the Arctic*(2009). He is in charge of submissions of domestic TV contents to international awards. He recently produced the documentary film *The Muse Story* and a Vietnamese version of *Speed Scandal*(2008) in collaboration with a Vietnamese production company.

최윤
프랑스 영화연구고급학교를 프로듀서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동의대학교 영화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이후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아시아영상위원회 네트워크 의장을 역임하였다. 영화 프로듀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제작사 ㈜유비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극영화 <앨리스: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2015)의 프로듀서 겸 제작자로 참여하였고, 극영화 <운동회>(2016), <아빠는 예쁘다>(2017)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CHOI Yoon
Choi Yoon graduated from ESEC (Ecole Supérieure Libre D'Etudes Cinématographiques) majoring in producing. He was a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Film Studies), and a Director of the Busan Film Commission and President of the Asian Film Commissions Network. He is an active producer on many other projects, and he is running the film production company named UbiContents. One of the latest films he produced is *Alice: The Boy from Wonderland*(2014). He also is the chief producer of *Field Day*(2016) and *Dad is pretty*(2017).

한선희
1972년생. 장편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 <만신>, <망원동 인공위성>을 제작했다. 연출과 제작을 겸한 장편 다큐멘터리 <올드 데이즈>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현재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국제영화비즈니스아카데미 교수를 맡고 있다.

HAN Sun-hee
She produced features *Talking Architect*(2011), *MAN SHIN: Ten Thousand Spirit*(2013), and *The Basement Satellite*(2013). *Old Days*(2016), a documentary she directed and produced, was invited to Jeonju IFF. Currently she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Film Business Academy at Busan Asian Film School.

예심 심사위원
Preliminary Jury

서원태
독립영화, 실험영화 작가. 첫 장편 <싱킹블루>(2007)는 제27회 밴쿠버국제영화제 용호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제9회 전주국제영화에 초청 상영되었다. 그의 영화가 소개된 영화제로는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2012, 2014), 밴쿠버국제영화제(2008, 2010, 2013), 전주국제영화제(2008, 2009, 2013), 부산국제영화제(2012) 등이 있고, 최근 참여한 전시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_식량도시」/돈의동박물관마을(2017), 「Save the earth」/UN Headquaters/ NY(2016), 「재난에 대처하는 법 준비족연대기」/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2017) 등이 있다.

SEO Won-tae
Seo Won-tae is a Korea-Born filmmaker and visual artist. His first feature film, *Synching Blue*(2007) was an official selection of 27th Vancouver IFF of a Dragon and Tiger Competition and 9th Jeonju IFF as part of a special Korean Cinema on the Move section. Some of recent shows and film festivals; Mar del Plata IFF(2012, 2014),the Vancouver IFF(2008,2010,2013), the Jeonju IFF(2008,2009,2013), Busan IFF(2012). Now he is a Prof. of Visual Communication at Konju National University.

안선경
철학을 전공했으며, 극단 연희단의 거리패 단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진학해 영화연출과를 졸업했으며, 졸업 작품인 <유령소나타>(2007)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인디포럼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첫 장편 <귀향>(2009)은 취리히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였고, 두 번째 장편 <파스카>(2013)는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2015년 여성영화인축제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작 <나의 연기 워크샵>(2016)은 부산국제영화제 비전-감독상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 독립영화계를 선도하는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다.

AHN Seon-kyoung
Majored in philosophy and worked as a member of Theatre Troupe Georipae. She graduated with a film directing degree from the Korean Academy; consequently, her graduation project *The Phantom Sonata*(2007) introduced as the opening film at the Independent Film & Video Maker's Forum. Her first feature film, *A Blind River*(2009) at the ZurichFF and the second feature *Pascha*(2013) won the New Currents Award at the Busan IFF and Best Screenplay at the Women in Film Korea 2015. Her latest *Hyeon's Quartet*(2016) won the Vision-Director's Award from the Busan IFF.

이정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이론전공 석사과정 졸업,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서 근무, 현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이다. 족자넷팩영화제, SRRRC 영화제 심사위원, 가오슝영화제 심사위원, 마르델플라타영화제 심사위원, 금마장영화제 심사위원 역임했다.

Jinna LEE
Jinna Lee is a programmer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She holds a MA degree Film Studies at Hanyang University in Seoul, and finished the film studies PhD. Course. Since 2005, she has worked at JeonjuIFF, Jaechun IMFF. She has been served jury works at Jokja Netpac Asian Film Festival(2015), SAARC Film Festival(2016), Kaohsiung Film Festival(2016), Mar del Pl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6) and Golden Horse Film Festival(2017).

진모영
1997년부터 방송국과 독립제작사에 근무하며 PD와 카메라맨으로 활동하며 다큐멘터리 교양 뉴스 프로그램을 연출, 기획, 촬영하였다. 2011년부터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시작, 2014년,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480만명의 관객을 기록했고 30여개의 국제영화제에서 다수 수상하였다. 2017년 11월 <올드 마린보이>를 개봉하여 큰 호평을 얻었다. 현재, 창작자로서 제작자로서 세계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JIN Mo-young
Working as a producer and cameraman at a TV station and an individual production company, he has produced, projected and shot documentaries, cultural shows and news programs since 1997. He started making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and released the documentary film,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in 2014. This film attracted 4.8 million viewers and won many awards around 30 IFFs. He received favorable comments when he presented *Old Marine Boy* in November 2017. He is currently active in the international documentary market as a creator and producer.

2018 울주멘터리
UljuMentary 2018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울주멘터리(UljuMentary)'는 울주(Ulju)와 다큐멘터리 (Documentary)의 합성어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하여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이다. '울주멘터리'에 선정된 팀은 총 4팀이며, 울주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멘토와 함께 진행한다. 팀당 1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각 팀에서는 15분 내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 완성된 영화는 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되며, 완성도에 따라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UljuMentary is a combination of the two words: Ulju and documentary. It is a media education program hosted by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ilms. A total of four teams were selected for UljuMentary for a chance to work with mentors in discovering and producing documentaries about Ulju. Each team will be given one million won in production costs, and will produce a short film under 15 minutes. Completed films will be formally screened during the film festival, and depending on merit, may be submitted to other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제작기간 Production Period	6월 16일(토) ~ 8월 10일(금)	Jun. 16(Sat) ~ Aug. 10(Fri)
상영 Screening	9월 10일(월) 16:00 ~ 17:30	Sep. 10(Mon) 16:00 ~ 17:30
장소 Venue	우리들의 영화관	We make UMFF Cinema
공동 주최 Joint Hosting	사단법인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ommunity Media Foundation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멘토
Mentor

김동균

김동균은 지면 중심의 미디어 플랫폼을 홈페이지와 SNS 등으로 확산시키며 미디어 다원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사 등의 지역신문사에서 사진기자, 인터넷방송VJ, 온라인 미디어 담당자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울산 및 울주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어 왔다. 현재는1인 미디어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KIM Dong-gyun

Kim Dong-gyun has advanced media diversification by expanding the focus of SNS & website media platform. He has handled Ulsan, Ulju stories while working as a photojournalist, webcast VJ, and online media manager about 20 years. Currently, he is working as a one person media.

김영조

김영조는 동의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과 교육전담교수이다. 현재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 대표 및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영화 <가족초상화>, <태백, 잉걸의 땅>,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들>, <마지막 광부>, <사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2017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2018 들꽃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KIM Young-jo

Kim Young-jo is a professor of Digital Culture Contents department at Dongeui University, president of the independent film production "Monday Morning", and BISFF's executive committee. *My Family Portrait, Taebaek, Land of Embers, Descendant of Prometheus, The Last Miner, The Hunt,* and *Still and All* which won the Best New Director Award in the Documentary section at the Wildflower Film Awards 2018.

김혜진

김혜진은 영남알프스학교 교무팀장이다. 2016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영상콘텐츠 부문<신불산 빨치산>으로 은상을 수상했고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에서 『영남알프스 속살이야기』, 2016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1회 『영남알프스 대호전』등의 전시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2017년 울산매일신문사에 '영남알프스 속살이야기'를 1년간 연재했다.

KIM Hye-jin

Kim Hye-jin is Yeongman Alps School academic team leader. Her film *Sinbulsan Partisan* won the Silver Award at ANLN';s video section. She also participated *Youngnam Alps Inside Story* and Yeongnam Alps Photography Exhibition Tiger&Leopard at UMFF. In 2017, she wrote the *Yeongnam Alps Inside Story* series for The Ulsan Maeil for a year.

신나리

신나리는 삶과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심도있게 풀어내는 감독이다. 영화<그 자리>로 2017 FIshEye영화제 나의 도시부문 1위를 수상하였으며, <천국 장의사>, <9월> 등을 연출했다. 특히<9월>은 2018 인디다큐페스티벌 및 2018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경쟁 부문에 상영되었다.

SHIN Na-ri

Director Shin Na-ri's documentaries provide an in-depth look into the hidden stories in life and cities. Her film *That Place* won first place in the My City section at the FIshEye Film Festival 2017. Other films include *Heaven's Touch* and *September*, screened at the SIFF 2018 and BISFF

울산과 함께하는 조정 Rowing with Ulsan

WUC | 09.10 | 16:00 | GV

김건하, 김남우, 은해수, 이지향 - **멘토** 김영조 | KIM Gun-ha, KIM Nam-u, EUN Hae-soo, LEE Ji-hyang - **Mentor** KIM Young-jo

울주군에 위치한 대학 유니스트의 청년들이 울산의 젖줄 태화강에서 '조정'을 통해 배와 물의 균형 그리고 인간대 인간의 균형을 느끼며 훈련하는 모습을 담았다. 인간의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 올리는 조정을 통해 투영된 패기로운 청년들의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균형이라는 관점을 통해 비춰지는 청년들의 노력과 그 결과를 보는 것이 관람포인트다.

The young students at the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Ulju-gun train to be rowers in the Taehwa River, learning and feeling the balance between water and boat, and the balance between humans. To watch for are the spirited young men as they test their physical limits through rowing, and their efforts and results being project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balance.

아이들은 지금 Life in Nature

WUC | 09.10 | 16:00 | GV

허현서, 윤다혜, 최준혁, 김영서, 황수빈 - **멘토** 김동균 | HEO Hyun-seo, YOON Da-hye, CHOI Jun-hyeok, KIM Young-seo, HWANG Su-bin - **Mentor** KIM Dong-

인구 120만, 한국 최대의 산업도시 울산.
울산의 울주군에 소호분교라는 작은 초등학교가 있다.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는 울주는 대자연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소호분교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끊임없는 경쟁을 배우는 대신 자연과 공존을 배우는 소호분교 학생의 학교생활과 일상에 주목해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다라 달라지는 교육. 자연 속에서 배우는 아이들을 입시경쟁 속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응시한다. 같은 시내에 살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아이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본다.

Ulsan, Korea's largest industrial city with a population of 1.2 million.
Soho Branch School - a small elementary school in Ulju-gun, Ulsan. Surrounded by nature and the Youngnam Alps, Soho Branch School focuses its education around this nature. The students are taught to focus on coexistence with nature rather than never-ending competition. Thus, education changes as the seasons change from spring to winter. As we focus on the student's school and daily life, high school students struggling to compete for the entrance exams watch the children learning within nature. They live in the same city but lead a different life. It helps us think about where our country's education stands today.

꿈엔들 잊으리오 Missing Homeland

WUC | 09.10 | 16:00 | GV

이병희, 김교학, 김아름 - **멘토** 김혜진 | LEE Byeong-hee, KIM Gyo-hak, KIM A-reum - **Mentor** KIM Hye-jin

대곡댐 건설로 수몰된 상삼정, 하삼정, 양수정, 방리마을. 고향을 곁에 두고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수몰지역 이주민들. 수몰 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그리움은 쉬이 없어지지 않는다. 고향 모습을 기억 속으로만 간직해야 하는 실향민들의 애끓는 그리움을 전달하고 실향민들이 직접 전하는 수몰 전 고향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어본다.

The construction of the Daegok dam submerged the villages of Sangsamjeong, Hasamjeong, Yangsoojeong, and Bangli. The residents of the submerged villages can only look longingly upon their old hometowns. Though much time has passed, this longing remains. Let's hear from them as the dispersed tell us about that yearning, and the villages before they were submerged.

근아의 마을. 그 나의 마을 Our Village

WUC | 09.10 | 16:00 | GV

김근아, 김민지, 박혜정, 정유희 - **멘토** 신나리 | KIM Geun-a, KIM Min-ji, PARK Hye-jeong, JEONG Yu-hui - **Mentor** SHIN Na-ri

근아는 어릴 적에 울주군 천상리로 이사를 왔다. 고등학생이 된 근아. 짧은 시간이지만 천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공터는 아파트가 되었고 문방구는 없어졌다. 어른들은 살기가 더 좋아졌다고 하지만 근아는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지금의 천상이 더 나은 모습이 맞는지. 근아의 어린 시절은 천상의 옛 모습이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천상의 옛 모습에서 지금까지를 추적해 보았다. 진짜 살기 좋은 마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Geun-a came to live in Cheonsang-li, Ulju-gun when she was little. She is now a high school student and Cheonsang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in the short time she has lived there. The vacant lot that was her playground is now an apartment building, and her stationary store is gone. Adults say that living has improved, but Geun-a wonders, has it really? Geun-a's childhood is the old Cheonsang. The film looks back to those days and the present day. What does a really good village look like?

2018 울주플랫폼
Ulju Platform 2018

일반인 대상 콘텐츠 공모전인 울주플랫폼은 산악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의 축적 개발을 위해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부터 진행해 온 공모전으로, 올해는 사진 부문을 새롭게 추가해 공모 부문을 확대하였다.

Ulju Platform is a competition program held since the fir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ith a mission to compile and develop content related to mountain culture. Beginning this year, we have added a section for photographs in addition to video, for a bigger competition and more awards.

상영 9월 10일(월) 16:00, 우리들의 영화관
Screening Sep.10(Mon) 16:00, We make UMFF Cinema

사진 Photo

최우수상 Grand Prize
깨어나는 아침 Awakening Morning
이순섭 LEE Soon-sub

우수상 Excellent Award
간월재의 일출 풍경 Sunrise in Ganwoljae
조성근 CHO Seong-keun

영상 Video

우수상 Excellent Award
호랑신이 만드는 아름다운 산 A Beatiful Mountain Made by Tiger
김지현 외 2명 KIM Ji-hyeon

우수상 Excellent Award
무룡산 전설 이야기 The Legend of Mt.Muryong
이희진 외 4명 LEE Hee-jin

우수상 Excellent Award
회귀(回歸) Return
조현우 외 3명 JO Hyun-woo

움프 라이프
UMFF Life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새롭게 신설한 움프 라이프는, 산과 자연을 매개로 한 영화 중 모든 연령층의 관객이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자연과 산을 다루면서도 가족과 함께 보면서 즐겁게 논의할 수 있는 영화(움프 투게더), 추억에 빠져 옛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영화들(움프 클래식), 그리고 기존에 극장에서 선보였으나, 바쁜 일상 때문에 보지 못한 영화들을, 자연의 푸르른 녹음과 함께 밤 하늘의 별을 프레임 삼아 친구,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자연에서 노래하다'라는 컨셉트로 영화와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움프 씨네 콘서트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UMFF Life is a new program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made up of films about mountains and nature, that is also appropriate for all ages. Four sections have been prepared: UMFF Together, introducing films to watch with the whole family; UMFF Classic, with films that help you reminisce about the old days watching Hollywood cinema in theaters; Starlight Screening, giving you a chance to catch up on films you missed on screen with the sounds of nature and stars acting as the frame of the film; and UMFF Cine Concert, with "Singing in Nature" concept bringing film and performance together into one.

움프 투게더
UMFF Together

움프 투게더 섹션은 자연과 인간을 소재로 한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영화를, 모든 연령대 관객-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게 차려진 상차림에 골라먹는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다.

UMFF Together is composed of various films, both feature and short, that will appeal to all ages from preschoolers to seniors. A total or 10 features and 18 shorts make up a feast from which you can take your pick.

로테와 루이즈
Lotte & Luise: Twins on Board

Germany | 2017 | 93min | Color | Fiction

SC | 09.10 | 10:00
HC | 09.11 | 10:30

오스트리아의 방학 여름 캠프에서 만난 로테와 루이즈는 서로 똑같이 생긴 얼굴에 놀라지만, 곧 둘 사이 관계의 비밀을 깨닫고 깜짝 놀랄만한 계획을 세운다. 에리히 캐스트너의 1949년 소설『로테와 루이제』는 이미 전세계에 알려진 아동소설이자 여러 나라에서 각색되어 영화화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원형의 스토리가 가진 강력한 재미의 요소를 그대로 담으면서 디지털화된 현시대성과 속도감을 잘 살려냈다. 스마트폰과 SNS는 두 소녀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속임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김세진)

When Lotte and Luise meet at an Austrian summer camp, they are shocked at seeing how similar they look. Once they figure out their secret relationship, they come up with an ingenious plan. Based on Erich Kästner's 1949 novel *Das doppelte Lottchen*, the story already has many versions in different countries. This film recaptures the best parts of the original story while adding digitalized modernity and speed.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become the two girls' best and most important weapons. (KIM Se-jin)

란셀럿 폰 나소

많은 상을 받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란셀럿 폰 나소는 2017년에 에리히 캐스트너 작가의 유명한 소설『로테와 루이제』를 새로운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Lancelot von NASO

Working as a scriptwriter, director with many awarded films, and teaching editing & film directing, he has produced a new version of the novel *Das doppelte Lottchen*.

바람과 함께 걷다
Walking with the Wind

India | 2017 | 79min | Color | Fiction

WUC | 09.08 | 16:00
SC | 09.11 | 16:30

Korean Premiere

10살 츠링은 매일 7km의 거리를 걸어 통학하는 산간 마을의 소년이다. 그런데 츠링은 실수로 친구의 의자를 망가뜨리고 만다. 의자를 고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주인공을 보면 자연스레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작품은 이 이란의 거장에 대한 존경 섞인 오마주를 오히려 전면에 드러낸다. 특히 '오래된 미래' 라다크의 현재를 그린 에피소드들과 미장센들이 돋보인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에 전통 문화와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라다크는 부러진 의자로 비유될 수 있겠지만, 그 결말은 냉혹하지 않고 여전히 따뜻하며 희망적이다. (김세진)

10-year-old Tsering, living at a small mountain village walks 7km every day to go to school. One day, Tsering breaks a friend's chair by mistake. The protagonist struggling to fix the broken chair reminds us of *Where Is the Friend's Home?* (1987) directed by Abbas Kiarostami, and the film explicitly expresses admiration and homage to the Iranian master. The episode about the present of Ladakh in Ancient Futures, along with Mise-en-Scene, is especially remarkable. Ladakh, whose traditional culture and community are facing a crisis due to inevitable changes, perhaps can be compared to the broken chair, yet the ending is warm and hopeful rather than harsh. (KIM Se-jin)

프라빈 모르칼레

인도 중부 출생. 몇 편의 단편영화와 연극작업 후, 그의 첫 장편 극영화 <맨발로 고아까지>(2013)로 평단의 인정을 받는다. 평론가들은 그의 현실적이면서도 미묘하고 미니멀한 그의 스타일에 대해 '뉴웨이브 인도 영화'라 칭하며 그의 등장을 환호했다.

Praveen MORCHHALE

Born in Central India, after few years of making short films and theatre working, he achieved recognition with his feature film debut *Barefoot to Goa(2013)* Critics hail him as a new wave Indian cinema filmmaker for his realistic subtle minimalist style.

바클리
Barkley

Taiwan, China | 2016 | 88min | Color | Animaition

HC | 09.10 | 10:30
SC | 09.11 | 09:30

위두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고 이후 어른들의 눈을 피해 집을 나가고, 우연히 고양이 바클리와 동물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동물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는 주대인이 관리하는 그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엄격한 위계질서와 밤이 되면 나타나는 '적'의 위협으로 인해 불안에 떤다. 주대인은 '적'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외치며 일체의 의심이나 불신도 허용하지 않는다. 과연 기존의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한 억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동물들의 그 세상은, 결코 낯설지 않은 데자뷰를 불러일으킨다. (안정아)

After his mom's accident, Fido leaves home and accidentally enters an animal city where he meets Barkley the cat and other animals. This city governed by 'god', whom all animals respect, seems to be peaceful, but is actually under oppression and in fear of the 'enemy' that comes out at night. 'god' convinces all animals that he will protect them from the 'enemy' and allows doubt from no one. Is such oppression justifiable to maintain existing order? There is a certain déjà vu in this animal city. (AHN Jung-ah)

치우 리웨이

베이징영화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그의 애니메이션은 2011년 중국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황금원숭이상, 2012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에서 상을 받았으며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포함되었다.

CHIU Li-wei

PH.D of Beijing Film Academy. His animated works has won numerous awards, including 2011 CICAF/Golden Monkey King Award, 2012 SICAF etc., and the films have been included in competitions at animation festivals in Poland, Spain, France and Germany.

보물섬
Tesoros

Mexico | 2017 | 96min | Color | Fiction

WUC | 09.08 | 10:00
SC | 09.11 | 13:00

Korean Premiere

태평양이 보이는 멕시코의 해안가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된 안드레아, 딜란, 루카스는 낯선 학교와 친구들을 만난다. 신대륙 시대 스페인 함대와 대적하던 영국의 해적 드레이크의 이야기는 딜란을 사로잡고, 딜란은 드레이크가 숨겨둔 보물을 찾으려 한다. 오랜 필모그래피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감독은 보물찾기 서사 뒤에 더 보물 같은 장면과 작은 이야기들을 배치한다. 아름다운 자연, 생명 존중을 배우는 아이들, 열심히 일하면서 다음 세대를 함께 가르치는 선한 어른들의 공동체가 진짜 보물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 작품이다. (김세진)

Andrea, Dylan and Lucas have just moved to a village by a sandy Mexican beach, where they meet new friends. Dylan is captivated by the story of British pirate Drake who fought against the Spanish Armada, and decides to hunt for Drake's treasures. This is the first film for children in the director's extensive filmography. Within the main story, he places treasures, picturesque scenes and a variety of other little stories. The beautiful landscape, children learning to respect life, hardworking adults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They all come together as a sparkling treasure. (KIM Se-jin)

마리아 노바로

마리아 노바로는 그녀의 두번째 장편영화 <단존>(1991)이 칸느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알렸다. 70년대말 그녀는 여성영화단체와 함께 16mm 다큐멘터리영화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영화를 직접 집필하고 직접 프로듀싱과 편집을 병행하기도 한다.

María NOVARO

She became well known with her second feature *Danzón*(1991) at the Cannes IFF. In the late 70's she made 16mm documentaries with the Colectivo Cine-Mujer. She has written all of her films, and she has also edited and produced some of them.

부탄의 후계자들
The Next Guardian

Hungary, Netherlands | 2017 | 74min
Color | Documentary

HC | 09.11 | 13:30

자식의 교육과 진로에 자신이 쌓은 경험과 통찰을 적용하고 싶은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탄에서 사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 젬보가 승려가 되어 가족의 유산을 수호하길 바란다. 축구를 하고 페이스북의 소녀들을 엿보는 보통의 소년에게 아버지의 '승려 행복론'은 공염불 같기만 하다. 젬보의 여동생 타쉬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자기 표현이 분명한 아이다. 자신의 젠더를 바꾸고 싶은 타쉬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묵묵부답인 젬보도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일면이다. 그 안에서 어느 형제보다 더 깊은 우애를 나누는 남매의 모습이 빛을 발한다. (한송이)

All parents want to express their own experience and insight in helping their children set a path for their future. Gyembo's father, who operates a temple in Bhutan, wants him to become a monk and keep money in the family. But to a normal boy who likes soccer and girls on Facebook, such a "happy monk" philosophy is nothing but empty prayers. Gyembo's younger sister Tashi makes it clear that she wants to become a soccer player. Someone like Tashi who wants to change her gender, and someone like Gyembo who is stuck between two paths both represent today's youth. And the love between brother and sister is quite brilliant. (HAN Song-i)

도로타 주르보, 아룬 바타라이

도로타 주르보는 연극영화예술학과 학생이자 동시에 트랜스미디어와 실험, 다큐멘터리를 강의하고 있다. 아룬 바라타이는 부탄방송국에서 TV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

Dorottya ZURBO, Arun BHATTARAI

Dorottya Zurbo is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Theatre and Film Arts and lecturer in the Field of Transmedia & Experimental Documentary. Arun Bhattarai used to be a TV director for youth documentaries and TV programs at Bhutan Broadcasting Service.

산속의 숨겨진 보물
Hidden Treasures in the Mountain

Taiwan | 2018 | 110min | Color | Fiction

HC | 09.08 | 17:00 | GV

International Premiere

홀로 산에서 생활하는 사냥꾼 두마스, 보스의 명령으로 깊은 산속에 숨겨둔 물건을 찾아야하는 도벌꾼 완더, 그리고 그의 연인 산림순찰원 신란,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른다. 그리고 산속에서 자살하려던 여장남자 패트릭도 이들과 합류하게 된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두마스와 어릴 적부터 대립해왔던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버리려 한 패트릭, 그리고 헤어지는 준비를 하는 신란과 그녀를 놓아줄 수 없는 완더는 이 여정을 거치며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 푸르른 숲과 산을 배경으로 가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잔잔한 힐링 영화. (안정아)

Three people hike up a mountain with different motives – Dumas is a lone hunter, Wan-de is a wood thief who must find a hidden object for his boss, and Shin-lan is his girlfriend and mountain patrol officer. They are joined by Patrick, a transvestite who tried to kill himself in the woods. Each must face their own ghosts – Dumas who lost a loving father, Patrick who had to fight his father all his life, Shin-lan who wants to break up, and Wan-de who doesn't. They all have a change of heart in this healing film set in the green forest that makes us think about our families. (AHN Jung-ah)

왕 다오난

왕 다오난은 배우, 작가 또는 감독으로 다양한 역할로서 그의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다수의 영화와 공연에 출연했고 많은 TV 드라마도 연출했다. <산속의 숨겨진 보물>은 그의 감독 데뷔작이다.

WANG Dao-Nan

He plays multiple roles in his career life, as an actor, a writer and a director. He was in movies with lots of other experiences in theatre performance as well. He also directed many TV dramas. *Hidden Treasures in the Mountain* is his director debut.

산을 움직이는 강한 햇살
Sunshine that Can Move Mountains

China | 2017 | 107min | Color | Fiction

HC | 09.09 | 10:30

Korean Premiere

티벳인들이 험준한 산길에서 오체투지의 삼보일배를 하는 모습을 언젠가 화면으로라도 본 적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참회의 연유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것을 그저 풍경으로 소비했을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그 고행의 내막을 친숙한 드라마적 서사와 상징적 수사로 파고 들어간다. 수도승 텐진이 어렵사리 당도한 고향집에는 식물상태인 동생과 그를 병수발 하는 어머니, 동생의 약혼녀가 있다. 시골의 공동체는 다정하되 관계를 얽어매고 당면한 현실은 그에게 환속을 요구한다. 미혹된 텐진의 업은 가지를 뻗어 결국 그 업의 씨앗을 가리킨다. 그것이 우리를 새삼 눈뜨게 한다. (한송이)

You perhaps have seen on TV Tibetans making a deep bow with their whole body on a rugged mountain. We might have considered it simply as a scene to watch without understanding the reason for the repentance. This film searches inside the penance with friendly dramatic narratives and symbolic rhetoric. Tibetan monk Tenzin barely manages to reach home, where he finds his brother in a vegetative state, his mother caring for him and his fiancée. People in the countryside are usually warm and friendly, but they force each other to be tied together and subjugated to the community. Bewildered Tenzin's karma is extended and eventually the origin of the karma is hidden. That opens up our eyes. (HAN Song-i)

왕 치앙

중국 만주 태생인 왕 치앙 감독의 다큐멘터리 <A Normal Life>(2015)는 아스트라 영화제에 소개되었고, <산을 움직이는 강한 햇살>(2017)은 홍콩국제영화제에서 Early Bird New Directors Film Fund를 받았다.

WANG Qiang

Wang Qiang is a Manchu director in China. His documentary, *A Normal Life*(2015) was nominated at the Astra Film Festival. He won the Early Bird New Directors Film Fund of Hong Kong IFF for *Sunshine that Can Move Mountains*(2017).

수도원 아이들
A Little Wisdom

Nepal, Canada, China | 2017 | 90min | Color | Documentary

WUC | 09.07 | 12:00

새벽에 일어나 불경을 외고 수업을 듣고 몸싸움을 하다 영웅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잠이 든다. 영화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티벳 불교 수도원의 생활 속에서 장기간 부모와 떨어진 채 혹은 고아인 채 자신의 역할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소년들에 집중한다. 매일 티격태격 하면서도 형제는 서툴게 서로를 보듬고, 미래를 걱정하던 소년은 이미 어른의 테를 둘렀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면서도 아이들은 규칙을 익히고 세상의 이치를 체화한다. 감독이 포착해낸 일상 속에서 그들은 평범한 악동 같다가도 어느새 보편성의 옷을 입고 선의 편에 선 작은 수도승들 같다. (한송이)

They wake up in the early morning, chant Buddhist scriptures, attend classes, fight, and fall asleep while listening to heroic stories. The film focuses on the young boys living in a Tibetan Buddhist monastery. Though constantly bickering, brothers clumsily take care of one another, and the boy worried about his future is already a semi-adult. Though isolated from the rest of world, the boys learn the rules and wisdoms of the world. In the daily life captured by the director, they seem at times like ordinary brats, and at times like little monks standing on the side of righteousness. (HAN Song-i)

강우기

중국 내몽고 출생, 소수민족으로 자란 그녀에게 영화는, 그녀의 삶의 경험과 직면하고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수도원 아이들>은 첫 장편영화로, 이 영화는 감독이 뉴욕시각예술학교에서 사회다큐멘터리영화를 전공할 때 시작, 완성되었다.

KANG Yuqi

Kang was born in Inner Mongolia, China. Growing up as an ethnic minority, art became the medium through which she began to confront and articulate her lived experience. *A Little Wisdom* is Kang Yuqi's feature directorial debut.

Happy run together

히말라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휴먼스쿨 Human School

엄홍길휴먼재단은 16개 휴먼스쿨 건립을 목표로 지난 2010년 5월5일에
1차 망보체 휴먼스쿨을 준공하여 2018년 8월 현재 14개 휴먼스쿨과
1개 병원을 준공하였으며, 2개 휴먼스쿨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엄홍길휴먼재단
UM HONG GIL HUMAN FOUNDATION

오스카의 아메리카
Oskar's America

Norway | 2017 | 79min | Color | Fiction

GC | 09.11 | 13:30

엄마에게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적대적인 주변인들에 둘러싸인 10살 소년 오스카의 우정과 모험을 담은 영화다.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헤어진 채 괴팍한 외조부와 더부살이하게 된 오스카는 지적장애를 가졌지만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는 아저씨 레비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간다. 오스카와 레비는 누구라도 말릴 법한 모험여행을 준비하지만 그들의 일관된 진심에는 건투를 빌 수밖에 없다.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은 어른의 세계를 벗어나 오스카와 함께 떠나고 싶은지 내면에 남은 동심을 발견할 좋은 기회다. 오스카의 '미국'은 상징일 뿐, 그곳은 어디나 가능하다. (한송이)

A film about 10-year-old Oskar's friendships and adventures. When Oskar is separated from his mom, he is stuck living with his grandfather, and gets to know Levi, an older man who is mentally handicapped but somewhat like him. They plan an impossible adventure – no one would sanction it, but anyone would pray for their success upon seeing their sincerity. Discover your inner innocence as you contemplate leaving a world of lies and hypocrisy with Oskar. Oskar's "America" is merely symbolic – it can be anywhere. (HAN Song-i)

토르핀 이베르센

노를란 영화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인랜드 노르웨이 대학에서 영화학 학사를 수료했다. 11살 부터 단편영화들을 만들었고 몇몇의 영화들은 국내외 단편영화제들에 초청되었다.

Torfinn IVERSEN

Graduated from Nordland kunst- og filmfagskole and holds a BA degree in Film Studies from Inland Norway University. He started directing short films at age eleven. Several of his films has compete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징기스칸의 아이들
The Children of Genghis

Mongolia, USA | 2017 | 101min | Color | Fiction

SC | 09.10 | 12:30 | GV

'전통'을 중요시하는 내몽고의 한 촌락에 아동 인권 보호 운동가가 등장하고, 그녀는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말을 타는 아이들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아홉살 비얌바는 마을의 전통 경마대회에 나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나 몰래 말 타는 연습을 하는 비얌바를 보며 아버지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함께 대회를 준비한다. 전통과 변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이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한 폭의 그림 같은 내몽고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안정아)

A children's rights activist arrives in a very traditional Inner Mongolian village. She is worried about the children riding horses without any protective gear. Meanwhile, 9-year-old Byamba wants to participate in the traditional horse race, but doesn't have his father's permission. He trains secretly, and when his father finds out, he changes his mind and helps Byamba train for the race. Keywords penetrating the film are tradition and change, inner and outside worlds, conflict and compromise between the existing and new generations. They create a harmony with the picturesque inner Mongolian landscape as the backdrop. (AHN Jung-ah)

졸바야르 도르즈

졸바야르 도르즈는 다양한 직함과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2017년에 제작한 <징기스칸의 아이들>의 감독이자 제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 도르즈는 결혼해서 세 명의 아이들과 살고 있다.

Zolbayar DORJ

Zolbayar Dorj has been given many awards and has stood in many positions as well as holding various titles, for instance, director, producer and screenwriter for films like *The Children of Genghis*(2017). Dorj is married with three children.

32킬로미터-60년 32km-60 Years

International Premiere

Taiwan | 2018 | 26min | Color, B&W | Documentary

일제 강점기와 국민당 통치 시절, 평화로운 난아오 촌에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곳 사람들은 강제로 고향을 등지고 산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제 모두 백발이 된 사람들은 그 곳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긴 했어도 행복했다며 고향을 그리워한다. 일본이든 국민당이든 그들에게는 그저 그 시절을 떠올리는 수식어일 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 (안정아)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rule by the Nationalist Party, soldiers raid the peaceful Nanao village and force its occupants to move out. The dispersed are now all silver haired, but continue to miss their old hometown. To them, who held power during the time is not important - just a name to help remember those days when cherry blossoms bloomed at home (AHN Jung-ah)

GC | 09.10 | 13:30
GC | 09.11 | 16:30

라하 메보우

그녀는 대만 최초의 여성 원주민 영화 감독이다. 시나리오 작성과 연출을 공부했고, TV제작에도 경험이 많다. 그녀는 원주민 테마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Laha MEBOW

She is the first female aboriginal film director in Taiwan. She has trainings in scriptwriting and directing and is also an experienced TV producer. Due to her indigenous identity, she specialises in indigenous theme.

개미 Ant

Germany | 2017 | 4min | Color | Animation

모든 개미가 열심히 규칙에 맞춰 일하고 있다. 그 중 한 개미는 남들과 다르게 일하는데… 그 개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정진)

The Ants are working together perfectly. But there is one ant who is working differently and changed everything.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줄리아 오커

1982년 독일 출생. 어둡고 무서운 드라마 영화 <Kellerkind>부터 기발하고 재미난 <얼룩말>까지 줄리아 오커의 영화들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룬다. 2017년 그녀는 동물을 소재로 하는 영화 시리즈 <Animanimals>을 제작했다.

Julia OCKER

Born in 1982 in Germany. Her films cover a wide range of subjects, from her dark and frightening drama film *Kellerkind* to the ingeniously funny *Zebra*. In 2017 she made a whole series of animal films called *Animanimals*.

거인의 길 Way of Giants

Brazil | 2016 | 12min | Color | Animation

아마존의 숲 속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서 토착민 오퀴라는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무 피리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녀가 만든 나무 피리는 여느 피리와 달리 거인과 하나가 되고, 자신의 피리를 빼앗길까 두려운 오퀴라는 그녀만의 여정을 떠난다. 자연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메시지가 환상적 음악과 이야기 사이를 유영하는 애니메이션. (이정진)

Oquirá, an Amazon native living amongst the gigantic trees in the forest, is busy making wooden flutes like any other child. However, the wooden flute she makes, unlike other flutes, becomes one with a Giant. In fear she may get her flute stolen, she embarks on her own journey. It is an animation that freely floats in between fantastic music and story, delivering the message that human must exist within nature.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알로이스 디 레오

페루의 리마에서 태어나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자랐다. 그가 설립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SINLOGO 역시 상파울로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사자가 되고 싶은 소년>은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몇 차례 수상경력이 있다.

Alois Di LEO

Born in Lima, Peru and raised in São Paulo, Brasil where he founded the animation studio SINLOGO. His short animated film *The Boy who Wanted to be a Lion* has played in several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won a few awards.

고슴도치의 집 Hedgehog's Home

Korean Premiere

Canada, Croatia | 2017 | 10min | Color | Animation

고슴도치가 사는 숲 속 한 오두막. 그는 다른 동물들의 존경과 시샘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고슴도치의 이러한 집에 대한 정성은 다른 동물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작가 브란코 초비치가 쓴 단편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세상 어디에도 집 만한 곳이 없음을 일깨워준다. (이정진)

In a lush and lively forest lives a hedgehog. He is respected and envied by the other animals. However, the Hedgehog's unwavering devotion to his home annoys a quartet of insatiable beasts. Together, they march off towards Hedgehog's home and spark a tense and prickly standoff. Based on the classic story by Branko Ćopić , a writer from the former Yugoslavia, *Hedgehog's Home* is a warm and universal tale for young and old that reminds us there truly is no place like home. (Jinna LEE)

GC | 09.10 | 10:30
GC | 09.11 | 10:30

에바 크피야노비츠
만화 영화 제작을 포함한 다큐멘터리, 인형극, 비디오 게임 등의 많은 경험으로 양털, 수채화, 파스텔을 사용하여, 유명한 발칸 이야기로 기반을 둔 <고슴도치의 집>을 제작하였다.

Eva CVIJANOVIĆ
A diverse animator and filmmaker, with experience working with documentaries, puppet films, video games with felted wool, watercolor and pastels, has produced her latest project, *Hedgehog's Home*, a stop-motion short film based on a famous Balkan tale.

날개 Hsiang Yi

Taiwan | 2016 | 16min | Color | Fiction

동생 샤오이를 돌보며 어딘가로 향하는 샤오샹. 나른한 오후 햇살 아래 느닷없이 들리는 굉음은 두 소년에게 예고없이 들이닥친 사고를 암시하는 듯 하다. 날개, 새를 연상시키는 형제의 이름처럼 소중한 누군가도 그들 곁에서 새처럼 날아가버릴 것만 같다. 영화는 군더더기 없고 깨끗한 영상미를 선보이며 형제의 나른한 일상을 무심한 듯 잔잔하게 그려낸다. (안정아)

Xiao Hsiang and his younger brother Xiao Yi are going somewhere. The deafening noise that breaks the sunshine of the lazy afternoon seems to foreshadow a sudden accident. The brothers' names sound like wing and bird, giving the impression that someone important to them will fly away. The film's clear imagery creates a seemingly indifferent portrayal of the brother's quiet day. (AHN Jung-ah)

GC | 09.10 | 10:30
GC | 09.11 | 10:30

우 지엔
1990년 생.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솔직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간의 투쟁과 자기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WU Zi En
Born in 1990. Major in department of Filmmaking i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With honesty as the guiding principle, he explores the themes about human struggles and self-identity.

네거티브 스페이스 Negative Space

France | 2017 | 6min | Color | Animation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여행 가방 싸는 법을 배우며 자란 나. 이제 아버지를 따라 완벽하게 가방을 싸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딘가로 떠나기 위한 준비과정은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라는 아버지의 교육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이정진)

My dad taught me how to pack. I followed and copied his way of packing perfectly, but he passed away. (Jinna LEE)

GC | 09.10 | 10:30
GC | 09.11 | 10:30

맥스 포터, 루 쿠와하타
미국 볼티모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2인조 영화감독. 10년이 넘는 세월의 협업으로 그들은 다수의 단편영화, TV광고, 뮤직비디오, 만화 등을 연출 제작해왔다. <네거티브 스페이스>는 그들의 네번째 작품이다.

Max PORTER, Ru KUWAHATA
A filmmaking duo based in Baltimore, USA.Colla -borating for over a decade as Tiny Inventions, they have directed short films, TV commercials, music videos and comics. *Negative Space* is their fourth professional film.

목소리 큰 나무 The Gruff-voiced Tree

Asian Premiere

France, Belgium | 2017 | 7min | Color | Animation

나무에서 무시무시하게 큰 훈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는 쥐에서 다람쥐로, 토끼에서 거북이로 점차 다른 동물들로 전파되고, 결국 큰 목소리의 주인공이 밝혀지는데… 아프리카에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으로, 어린이들의 교우관계 등을 돌아보게 만드는 애니메이션. (이정진)

A little mouse tries to take shelter inside the trunk of an old tree, when it suddenly scolds her in a gruff, menacing voice. The mouse runs away and meets a squirrel, who disbelievingly scampers up to the tree but soon beats a hasty retreat. A rabbit then a chaffinch receive the same treatment, when finally a tortoise comes along who does not let herself be taken in. An educational tale for toddlers, *The Gruff-voiced Tree* is a variation on a light-hearted African story.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아나이스 소렌티노
프랑스 애니메이션 학교 ESAAT와 스핀포콤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하이드라비전 엔터테인먼트에서 3D 애니메이터로 일했고, 그 후 마이티 로켓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부서 책임자로 활동했다. 2014년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연출하면서 연출을 시작했다.

Anaïs SORRENTINO
Studied animation in the French animation schools ESAAT and Supinfocom. She worked as a 3D animator at Hydravision Entertainment, then as head of the Animation Department of Mighty Rocket Studio. She came back to direct animated short films in 2014.

붉은 곡 The Red Cave

World Premiere

Korea | 2018 | 15min | Color | Documentary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는 일제 강점기 시기, 금이 필요했던 일본이 개발했던 광산이 있다. 현재 폐광이 된 이곳은 일본이 조선인들을 징용하여 운영했던 8천여 개의 강제동원지 중 하나였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감독은 폐쇄되어 사라질 일광 광산의 모습을 주민의 이야기와 함께 담아낸다. 여전히 붉은 물을 토해내는 이 곳의 아픈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 곁에 남았다. (조지훈)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Japan excavated a mine to find gold. Now abandoned, this mine was just one of the 8,000 or so forced labor camps operated by the Japanese using Koreans. The Busan born and raised director tells the mine's story along with its inhabitants. Thus remains the painful history of this area that still sheds red water. (JO Ji-hoon)

GC | 09.10 | 13:30 | GV
GC | 09.11 | 16:30 | GV

신나리
영화 작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태프를 한 후 그 경험으로 연출을 하게 된다. 해 본 작업 중 사람의 숨결, 공간과 시간의 결을 담는 다큐 작업이 좋아서 하는 중이다.

SHIN Na-ri
After working on many films as a staff, she began to direct her own films. Currently working as a documentary film director, she tries to put in her works people's breath and texture of places.

빅 피쉬 Big Fish

Korea | 2017 | 8min | Color | Animation

폭풍우가 치는 바다, 아이를 삼킨 빅 피쉬를 찾아 위태로운 조각배의 노를 젓는 요나. 평온해진 바다에서 요나는 빅 피쉬를 만나 스스로 뱃속으로 뛰어드는데… 엄마와 아이의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게 만든다. (이정진)

Yona braves the stormy sea on a small boat, searching for the big fish that swallowed her daughter Mika. When she sails beyond the storm and arrives at the calm sea, she encounters the big fish and leaps into its mouth. (Jinna LEE)

GC | 09.10 | 10:30
GC | 09.11 | 10:30

박재범
1990년 창원 출생. 2009년도에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에 입학하여 2015년에 졸업하였다. 현재 중앙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재직 중이다.

김정석
1987년 인천 출생. 2006년도에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에 입학하여 2014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중앙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였다.

PARK Jae-beom
1990 Born in Chang-won, Korea. 2015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of Art design, Animation Dept. He is working at Central(Chung-Ang) Animation Studio as an animator.

KIM Jeong-seok
1987 Born in In-cheon, Korea. 2014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of Art design, Animation Dept. He worked at Central(Chung-Ang) Animation Studio as an animator.

사냥 The Hunt

Korean Premiere

France | 2017 | 6min | Color | Animation

개와 함께 사냥을 나선 사냥꾼, 사냥감을 뒤쫓던 그는 개 대신 토끼와 함께 하게 되고 결국 어떤동물도 해치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 유럽식 위트가 넘치는 작품. (이정진)

The disappointments of a short-sighted and harmless hunter who took with him by mistake a rabbit instead of his dog to go hunting in the forest. No animal has been injured.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알렉세이 알렉세예프

25년동안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많은 단편영화와 TV프로그램의 연출자로서, 슈퍼바이저로서 활동해왔고 국제영화제에서 70여개의 상을 수상했다.

Alexey ALEKSEEV

He works in animation since 25 years, and in the past 20 years, he has worked as a director and supervisor of many short films and TV series, and won 70 awards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산이 말하길 Let the Mountain Speak

Asian Premiere

USA | 2017 | 5min | Color | Documentary

하와이 원주민이 두려워하는 마우나케아 산. 하와이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휴화산인 이곳은, 30미터 높이의 세계 최대 관측대가 세워져 있다. 누구나 이 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산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시적으로 표현된 작품. (이정진)

A Tribute to the tallest mountain in the world which is the perfect site for scientific exploration, Mauna Kea on the island of Hawaii is sacred to the Native Hawaiians, many of whom are opposed to the proposed building of a 30-meter telescope. This visual poem explores what the mountain might want. (Jinna LEE)

GC | 09.10 | 13:30
GC | 09.11 | 16:30

빌소니 헤레니코

빌소니 헤레니코는 미디어 창작 전공 하와이 아카데미 대학의 교수로, 기후 변화나 토착민의 스토리텔링, 문화정체성, 재현의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연구, 강의, 창작을 하고 있다.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연극 각본가로도 활동 하고 있다.

Vilsoni HERENIKO

Vilsoni Hereniko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awaii's Academy for Creative Media., where his research, teaching, and creative work focus on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indigenous storytelling,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all kinds of media. As an award-winning filmmaker and theater artist he is a writer/director.

아마도 외계인? Maybe Aliens

Korean Premiere

Philippines | 2017 | 8min | Color | Fiction

형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말한다. "아마도 외계인이겠지?" 필리핀 사회에 만연한 외국 노동자 부모를 둔 아이들의 헤어짐과 결핍 등을 배경으로 한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지켜줄 것만 같은, 위안을 찾으려는 심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버즈 아이 뷰 쇼트로만 온전히 담아냈다. (이정진)

As two brothers try to understand and cope up with loss and separation, they look at the sky for answers. "Could it be aliens?" This film is a commentary on the diaspora of migrant workers that has been happening in the Philippines where people being left behind, particularly kids, is a common occurrence. This film is shot entirely with a drone and it evokes the feeling of distance and alienation immediately. (Jinna LEE)

GC | 09.10 | 10:30 | GV
GC | 09.11 | 10:30 | GV

글렌 바릿

필리핀의 영화감독.그의 단편 극영화 <Bundok Chubibo>(2014)는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에서 최우수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가장 최신작 <아마도 외계인?>은 시나그 마닐라 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단편상을, 시네말라야 영화제에서 넷팩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Glenn BARIT

A filmmaker from Philippines. His narrative short, *Bundok Chubibo*(2014), was awarded Best Short Film at Metro Mania Film Festival. His most recent work, *Maybe Aliens*, has won Best Short Film in Sinag Maynila, NETPAC Special Jury Prize in Cinemalaya.

아이들을 기다리며 The Children Will Come

Korean Premiere

Macedonia | 2017 | 19min | Color | Fiction

젊은 교사 베리카, 오지 마을로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관리자 할머니만이 학교를 지키고 있을 뿐. 시간이 가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베리카는 점점 지쳐간다. 할머니는 그녀가 성냥을 켜고 교실을 따뜻하게 만들면 아이들이 올 것이라 하지만, 성냥 켜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베리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스터리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 단편은, 어른이 되어 현실에 치여 잊게 되는 조상의 지혜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정진)

Velika, a young teacher, is sent to a remote village in the mountains to teach the children who live there. However, the children never seem to come. The old lady who works in the school is the only living soul that meets her. As the days go by and Velika becomes impatient, the old lady explains to her that the children will come once she learns to light a fire. This is a film about our ancestor's wisdom that we so easily take for granted and let slip past us. (Jinna LEE)

GC | 09.10 | 10:30
GC | 09.11 | 10:30

아나 야킨스카

마케도니아 스코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감독. 그녀는 단편영화 <아이들을 기다리며>로 데뷔했다. 그녀의 데뷔작은 20회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단편영화상인 골든 고블렛상에 후보로 올랐으며, 전세계에서 다수의 영화상을 수상했다.

Ana JAKIMSKA

A filmmaker based in Skopje, Macedonia. Her debut is the short film *The Children Will Come*, which won the Golden Goblet Nomination for Best Short Live Action Film at the 20th Shanghai IFF and won many other awards worldwide.

우가 Wooga

World Premiere

Korea | 2018 | 6min | Color | Animation

용감하고 무식한 원시인이 있었다. 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약자에겐 약하다는 점! 어느 날 정체불명의 알 하나가 나타나고, 이 단단한 알을 깨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게 되는데… 도구와 진화에 대한 상상력이 알과 원시인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감독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 (이정진)

There is a brave and ignorant cave man. He has the fatal weakness that he is weak for the weak! Meanwhile, before him, an unidentified egg appears, and an episode to break open the egg begins.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안정호

1992년 서울출생. 2012년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4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AN Jeong-ho

Born in 1992, Seoul, Korea. He has been majoring in Animation at Chungkang College since 2012.

재즈동물원 Jazzoo

Sweden | 2017 | 9min | Color | Animation

어린이를 위한 어드벤처 뮤지컬 애니메이션. 동물원의 코알라도 만나고, 캥거루와 하마, 애벌레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다. 오드잡 음악가의 재즈 선율에 맞춰 매끄럽게 화면전환하며 이어지는 동물의 향연은 온 가족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정진)

Jazzoo is an animated musical adventure for young kids. Here we meet the Koala who wants to jump as a kangaroo, the over-heated Hippo and the Caterpillar with the bad temper. Come spend some time with great music from Oddjob, funny surprises and stories for both young and old.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아담 마르코 노드

스톡홀롬 대학, 유럽영화학교 스톡홀롬 예술학교에서 수학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이념사에 대한 다수의 책과 에세이, 논문을 출판했다.

Adam MARCO-NORD

Educated at Stockholm University, European Film College and Stockholm College of Fine Arts. He has published several books, essays and articles on the history of film, animation and history of ideas.

치리파하스 Chiripajas

Asian Premiere

Spain, Russia | 2017 | 2min | Color | Animation

작은 거북이 앞에 큰 세상으로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이는 가족을 찾아 떠나는 거북이에게 오염된 바다를 직면하게 만든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표현한 이 단편은, 길이에 반비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정진)

An ecological film about the big adventure of one small turtle, who is trying to find his family when faced with the pressing problem of the polluted oceans. This film has a strong message: Leave clean the sea and the ocean.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하우메 퀼레스, 올가 폴릭토바
퀼레스의 최근 내러티브 미니멀리즘을 시도한 실험영화를 완성했고, 환경영화제 중 하나인 시골영화제 Rural Film Fest의 공동 집행위원장이다. 폴릭토바는 쌍둥이 자매 타티아나와 함께 애니메이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Jaume QUILES, Olga POLIEKTOVA
Quiles' latest works approach narrative minimalism as a mode of artistic expression within the experimental cinema and co-founder of Rural Film Festival. Poliektova and twin sister Tatiana started to work together as a film director duo and animators, making several short animation films.

포토제닉 Undiscovered

Korean Premiere

USA | 2017 | 3min | Color | Animation

잘 나온 사진을 갖고 싶은 설인, 숲 속으로 하이킹 온 사람들에게 같이 사진을 찍거나 멋지게 사진 찍히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사람들은 그의 선의를 알지 못한다. 감독의 첫 작품이라 믿기 않을 정도로 매끄러운 이야기 전개와 계속 사진을 찍히고 싶어하는 착한 설인의 다양한 시도에 살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이정진)

Undiscovered follows Sasquatch on his quest for a good photo of himself. His attempts to jump into a photo before scaring away the hikers who are taking them are thwarted by the usual suspects--food in his teeth, closed eyes, mussed-up hair, an out-of-focus shot--resulting in deleted photos every time. (Jinna LEE)

WUC | 09.10 | 10:00
WUC | 09.11 | 10:00

사라 리첸버거
애니메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2017년 사바나 예술대학에서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예술학사를 취득했다. 친구들과 함께 10편 이상의 학생단편영화에 참여했다. <포토제닉>은 그녀가 처음으로 연출, 제작한 영화이다.

Sara LITZENBERGER
An animatorand illustrator. She earned her B.F.A. in Animation in 2017 from the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She has worked on over 10 student films with her friends and classmates; *Undiscovered* is the first she's directed and produced.

하마마와 칼루나 Hamama & Caluna

International Premiere

Switzerland | 2018 | 23min | Color | Documentary

조국에서 도망쳐 유럽에 도착한 하마마와 칼루나는 이탈리아 북부의 어느 난민 캠프에서 우연히 안드레아스 무글리 감독을 만나고 셋은 친구가 된다. 감독은 피난처를 찾아 알프스를 넘기로 한 이 두 난민 청년의 여정에 동참한다. 감독의 카메라는 자유를 향한 험난하고 고독한 이들의 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면서 이젠 우리에게도 남의 일만이 아니게 된 난민 문제를 인권의 시선으로 성찰케 한다. (조지훈)

After fleeing their country, Hamama and Caluna arrive at a refugee camp in Northern Italy. They meet director Andreas Muggli and the three become friends. When the two refugees decide to climb the Alps to find a safe haven, Muggli joins them in their journey. His camera follows them as they make this dangerous and lonely journey to find freedom. His warm perspective helps us reflect on the refugee problem with a mind to human rights. (JO Ji-hoon)

GC | 09.10 | 13:30
GC | 09.11 | 16:30

안드레아스 무글리
루체른 예술과학대학에서 비디오학을 수학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단편 다큐멘터리 <Where Euphrates and Sava Flow Together>(2016)이다.

Andreas MUGGLI
Finished studies at the Video Department of the 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First film project was the short documentary *Where Euphrates and Sava Flow Together*(2016).

INNOVATIVE
FLAMELESS COOKER

YABUL COOK : World's 1st Silicone Flameless Cooker

Innovative flameless cooker to enjoy food anytime anywhere.
Lightweight. Compact. Eco-friendly.

움프 클래식
UMFF Classic

중 · 장년층의 젊은 날을 함께 한 할리우드 고전 영화 3편 - 최연소 아카데미상 수상자 셜리 템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이디>, 뮤지컬 영화의 명불허전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스펜서 트레이시가 주연한 휴먼 드라마이자 진정한 산악 드라마 <산>을 만나볼 수 있다.

Come join us on this journey back to classic Hollywood films from our younger days – youngest Academy Award recipient Shirley Temple's *Heidi*, the unparalleled musical *The Sound of Music*, and Spencer Tracy's true mountain film and human drama *The Mountain*.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USA | 1965 | 172min | Color | Fiction

WUC | 09.09 | 16:00

'도레미송', '배우 줄리 앤드루스',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유명한 할리우드 고전 뮤지컬 영화. 2차 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자연 알프스가 배경이다. 7명의 자녀를 둔 퇴역 대령이자 홀아비, 트라프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좌충우돌 수녀, 마리아는 엄격한 군인의 차가움으로 가득 찬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좀처럼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랑에도 눈을 뜬다. 1949년 출판된 마리아 폰 트라프의 자전소설 『트랩가 합창단 이야기』가 원작으로 3시간 가까운 긴 상영시간에도 불구하고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와 춤, 극적인 로맨스 덕에 지루할 틈이 없다. (유순희)

Other than 'Do-Re-Mi' and 'Julie Andrews', we don't have to mention anything else to introduce the classic Hollywood musical film. The setting is during World War Ⅱ, in the beautiful Austrian Alps. Free-spirited nun Maria becomes governess to the von Trapp family, with a widowed, retired captain and his seven children. She brings warmth to a strict military household and falls in love. Based on Maria von Trapp's autobiography *The Story of the Trapp Family Singers* (1949), the film lasts almost 3 hours, but no one's the wiser amid the stupendous musical numbers, dance, and romance. (YOO Sun-hee)

로버트 와이즈

리듬감 있고 긴장감 넘치는 편집과 세심한 이미지 구성이 특기인 로버트 와이즈는 영화 작업을 철두철미하게 지휘하며 수많은 작품에 감독 겸 편집자로 참여하였다. 2005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Robert WISE

Wise was an editor and director of many films. He proved that he was a filmmaker still in full command of his craft, with carefully composed images, tight editing and unflagging pace. He died in 2005; he was 91.

산
The Mountain

USA | 1956 | 105min | Color | Fiction

WUC | 09.09 | 13:00

베테랑 등반 가이드였지만 사고 후 '산이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산에 오르기를 포기한 주인공, 재커리 텔러. 그에겐 돌아가신 엄마가 앞날을 부탁한 동생 크리스가 있다. 철없고 이기적인 동생이지만 부모 노릇을 자임하느라 결혼도 포기한 상태다. 어느 날, 그들이 사는 에베레스트에 비행기가 추락했다. 항공사에서 마을의 베테랑 구조대를 급파하고 실패했을 때조차 애써 고개를 돌렸던 그이지만, 동생 크리스의 무모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산에 오르게 된다. 1956년작, 영화 <산>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휴먼드라마이면서 진정한 산악인의 모습, 산악영화의 긴장감을 잘 드러낸 작품이기도 하다. (유순희)

Skilled mountain climber Zachary Teller has given up climbing after an accident, believing that "the mountain doesn't allow" him. His mother died leaving his younger brother Chris in his care. To act as parent to his selfish and immature brother, Zachary has also given up on getting married himself. When a plane crashes on Mount Everest where they live, Zachary forces himself to ignore the callings for a rescue mission, but can't ignore Chris and his greedy pursuit. A 1956 film, *The Mountain* is a typical Hollywood human drama that well reflects the true mountaineer and the tension of a mountain film. (YOO Sun-hee)

에드워드 드미트릭

어린 시절의 비극과 트라우마를 딛고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온 그는 1940년대까지만해도 재능 있고 촉망 받는 감독이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할리우드의 외면을 받았다. 이후에는 교수로서 영화이론 및 제작을 가르쳤다.

Edward DMYTRYK

From childhood tragedy and trauma to obstacles and life choices, by the 1940s he was considered one of Hollywood's rising directing talents and then political circumstances caused Hollywood to shun him. He later was a professor of film theory and production.

하이디
Heidi

USA | 1937 | 88min | Color | Fiction

WUC | 09.08 | 13:30

요하나 슈피리의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 『하이디』는 일본 애니, TV만화 시리즈로도 유명하지만 이 영화는 193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첫 실사영화이다. 영화는 고아가 돼 이모 손에 길러지던 하이디가 독일 알프스 산속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집에 오면서 시작된다. 대체로 원작의 뼈대를 따라가긴 하나 각색으로 작품의 배경 및 등장인물의 설정 디테일이 원작과 다르고 할리우드 영화 특유의 권선징악 구도, 긴장감 있는 액션 등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또한 밝고 사랑스러운 하이디를 자신만의 이미지 캐릭터로 훌륭히 소화해낸 아역배우의 대명사이자 아카데미 최연소 수상자,'셜리 템플'의 인생작이기도 하다. (유순희)

Johanna Spyri's novel *Heidi* is famous for its Japanese animation and TV series, but the first film based on this book was made in the US in 1937. The film begins when Heidi, an orphan girl being raised by her aunt, comes to stay with her grandfather, who lives alone in the German Alps. For the most part, the film follows the book closely, but certain backgrounds and character details differ, and includes Hollywood-style morals and suspenseful action. The bright and lovable Heidi is expertly portrayed by the youngest Academy Award recipient, Shirley Temple. (YOO Sun-hee)

앨런 드완

감독 겸 작가인 앨런 드완은 1885년 4월 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태어났다. 대표작으로는 <모로코에 묶이다>(1918)와 <망가진 인형>(1921), <판디아>(1917) 등이 있다. 1981년 12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하였다.

Allan DWAN

Allan Dwan was born on April 3, 1885 in Toronto, Ontario, Canada. He was a director and writer, known for *Bound in Morocco*(1918), *A Broken Doll*(1921) and *Panthea*(1917). He died on Dec. 28, 1981 in Los Angeles, California, USA.

별이 빛나는 밤
Starlight Screening

자연 속 인간의 다양한 모험과 탐험을 그린 극영화, 애니메이션이 관객을 기다린다.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숲속 극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등억알프스야영장 “별빛 극장”에서는 어린이의 모험을, 그리고 움프 시네마에서는 자연과 하나되어 음악 공연과 영화가 어우러진다.

Various fictional films and animations about various human adventures and explorations in nature await the audience. An animation at the Forest Cinema, a children’s adventure at the Starlight Cinema, and a film plus music performance will be presented at the UMFF Cinema.

걷기왕
Queen of Walking

Korea | 2016 | 93min | Color | Fiction

UC | 09.10 | 20:00

선천적 멀미증후군으로 그 어떤 교통수단도 탈 수 없는 여고생 만복은 왕복 4시간의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만복에게 열혈 담임 선생님은 육상부 가입을 권하고, 만복은 경보를 시작한다. 다소 과장된 코믹 캐릭터로 설정된 주인공에게 예상되는 뻔한 전개와 승리의 구조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배반당한다. 현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특히 어리고 젊은 청춘들에게 꼭 너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과 어른들에게 따뜻하면서도 진실한 깨달음을 주는 작품. 맞다, 꼭 뭔가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들인 것을. (김세진)

Unable to take any kind of vehicle due to congenital motion sickness syndrome, Man-bok walks 4 hours to go to school every day. While she continues with her boring school life, her teacher asks her to join the track and field team, where she starts race walking. The film seems like it will end up with a predictable victorious ending because of the excessively funny protagonist, yet the result betrays the viewer. It teaches the older generation, who force all the people in the real world, especially the youth, to become somebody, what warm and real truth is. That is right. They are precious individuals as they are whether or not they grow up as important people. (KIM Se-jin)

백승화

1982년 출생.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였다. <반드시 크게 들을 것>(2009)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지필름이터나상,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을 받았으며 <반드시 크게 들을 것 2: WILD DAYS>(2012)로 DMZ 국제다큐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BAEK Seung-hwa

Born in 1982. He majored in animation at University. The music documentary *Turn It Up To 11*(2009) and the sequel *Turn It up to Eleven2 : WILD DAYS*(2012) won several awards. He made his feature film debut with *Queen of Walking*(2016).

나의 붉은 고래
Big Fish & Begonia

China | 2016 | 102min | Color | Animation

FR | 09.08 | 20:00

소녀 ‘춘’은 성인식을 맞아 고래로 변신해 인간 세상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지만 인간 소년 ‘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난다. 그러나 ‘곤’은 목숨을 잃고 만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춘’은 ‘곤’을 되살리기 위해 금기를 깨고 ‘곤’의 영혼이 깃든 새끼 고래를 몰래 키워 인간으로 환생시키기로 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고래가 된 소년을 인간 세상에 돌려보내기 위한 한 소녀의 감동적인 모험담을 12년에 걸쳐 동양적 색채와 아름다운 비주얼, 마음을 울리는 음악으로 버무려 담아낸 가족 애니메이션이다. (조지훈)

Chun participates in a coming-of-age ritual where she goes into the human world as a dolphin. There, she barely escapes death with the help of Kun, a human boy, who dies to save her. Upon returning to her world, Chun violates a taboo to save Kun, by raising a baby dolphin with his soul inside to return him to the human world. However, this violation brings disaster into her world. This family animation took 12 years in the making, incorporating Oriental colors, beautiful visuals, and touching music into the epic tale of a girl trying to return a boy to his world. (JO Ji-hoon)

양선, 장춘

양선과 장춘 감독은 <Swallowtail Butterfly>(2007)라는 단편영화 제작을 계기로, 2013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데 성공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Enlight Media 눈에 띄어 제작 지원을 받게 되었다.

LIANG Xuan, ZHANG Chun

Liang and Zhang's short film *Swallowtail Butterfly*(2007) was inspired to make a feature length film. They succeeded in obtaining 1.58 million yuan through a crowfunding campaign in 2013, which drew the attention of Enlight Media which financed the production.

리틀 포레스트
Little Forest

Korea | 2018 | 103min | Color | Fiction

UC | 09.09 | 20:30

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안 되는 일상을 멈추고 귀향한 혜원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한다. 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낸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봄을 시작한다. 임순례 감독의 최신작이자 2018년 상반기 최고 흥행작 중 한편으로 이 시대 청춘들의 고민과 성장을 담은 사려 깊은 청춘 영화이자, 소박하지만 입맛이 도는 예쁜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맛깔스러운 음식영화이다. (조지훈)

When nothing goes to plan, be it tests, romance, or employment, Hye-won returns to her rural hometown and there she spends her winter, then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again. After living through these four special seasons, Hye-won realizes her real reason for returning home, and begins a new spring. The film is director Yim Soon-rye’s latest, and it was a box-office hit in the first half of 2018. It is a young adult film portraying this generation’s concerns and maturity, with a delicious array of simple, but mouthwatering dishes. (JO Ji-hoon)

임순례

1960년 인천 출생.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등을 통해 부드럽고도 힘있는 연출로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미안해, 고마워>(2011) 등으로 제작자로서도 자리매김했으며 <리틀 포레스트>로 4년 만에 복귀했다.

YIM Soon-rye

Born in 1960, Incheon, Yim Soon-rye has been recognized by critics and viewers for her gentle but powerful directing in films such as *Waikiki Brothers*(2001) and *Forever the Moment*(2008). *Little Forest* is her first film in four years.

벨과 세바스찬
Belle and Sebastien

France | 2013 | 98min | Color | Fiction

SL | 09.08 | 20:00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군이 점령해있던 프랑스의 작은 산간 마을, 어린 세바스찬은 갈 곳 없이 떠돌던 큰 개 벨과 우정을 나눈다. 동물과 소년의 애틋한 관계를 그린 아동영화의 전형성을 넘어서는 지점은 바로 이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다. 위험한 짐승처럼 취급되는 벨은 외로운 처지의 소년과 제일 먼저 동화되지만, 실상 그 시기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기는 유태인들과, 또 겉모습으로 인해 오해 받는 또 다른 극중 인물과도 닮아 있다. 아름답기도 위협적이기도 한 알프스의 풍경에 슬픔의 정서가 함께 덧대어져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좋은 작품이다. (김세진)

In a remote mountain village in France occupied by Germans during WWII, young Sebastien befriends a homeless dog, Belle. The time and place of this film's background elevates it from remaining a mere children's film. Treated as a dangerous animal, Belle is first assimilated with the lonely Sebastien, but she is also like the persecuted Jews of the times, and another character who is misunderstood because of appearances. The beautiful, yet dangerous, Alps is overlapped with sadness, making the film suited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KIM Se-jin)

니콜라스 베니어

1962년 세네갈 다카르 출생으로 <벨과 세바스찬>, <루프> 등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가이자 감독이다.

Nicolas VANIER

Born in Dakar, Senegal in 1962. he is a writer and director of *Belle and Sebastien* and *Loup*.

사샤의 북극 대모험
Long Way North

France | 2015 | 81min | Color | Fiction

SL | 09.09 | 20:00

북극점을 탐험하기 위해 떠난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사샤는 그를 찾기 위해 아주 먼 북극으로의 도전을 시작한다. 러시아 제정 시대, 백작 가문의 고귀한 영애로서 곱게만 자랐던 주인공이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스토리가 큰 재미의 요소를 차지한다. 특히 애니메이션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북극으로의 여정에는 생생한 리얼리티가 넘치며, 탐험과 도전의 의미를 공감하게 만든다. 화려한 색감 대신에 다소 톤 다운된 컬러를 주로 사용하나 그 균형과 조화가 매우 아름다워 절제된 아트워크를 보는 재미가 있으며 음영의 사용과 자유로운 앵글도 개성적이며 특별하다. (김세진)

When her grandfather fails to return from an expedition to the North Pole, Sasha sets out on a quest to find him. This coming-of-age story about a Russian aristocrat girl in Imperial Russia headed for the North Pole is full of vivid reality, and helps us to feel the meaning of adventure and challenge. The colors are rather toned down, but they are beautifully balanced and harmonized, creating a controlled artwork. The shading and free angles are also unique and characteristic. (KIM Se-jin)

레미 사예

레미 사예 감독은 스토리보드와 레이아웃 작업에 집중하여 여러 작품의 조감독이나 스토리보더로서 <Brendan and the Secret of Kells>(2009) 등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사샤의 북극 대모험>(2015)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Rémi CHAYE

Trained on storyboard and layout work, Rémi worked on several films such as *Brendan and the Secret of Kells*(2009), *The Painting*(2011), *Kerity la maison des contes*(2009). His directorial debut was *Long Way North*(2015)

유니콘 원정대: 비밀의 다이어리
The Shonku Diaries-A Unicorn Adventure

India | 2016 | 92min | Color | Animation

FR | 09.07 | 20:00

첨단 과학적 상상력과 고고학적 신비가 어우러진 모험 판타지다. 고고학자인 아버지가 실종되자 두 남매는 천재 과학자인 존스 박사를 찾아간다. 우연찮게 합류한 이웃집 농부와 똘똘한 로봇까지 모두 합심하여 단서를 찾아 떠난다. 여러 유적의 비밀을 풀어내고 탐욕스러운 악당과의 한판승부도 펼쳐진다. 빠지면 섭섭한 롤러코스터 액션도 곳곳에 배치됐다. 무엇보다 이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존스 박사가 고안한 각종 기기장치들이 창의력을 자극하는 근미래적인 것들이라는 점과 예측을 빗나가는 결말에 있다. 과학적 호기심과 꿈의 모험을 즐기는 어린 자녀를 위한 작품이다. (한송이)

An adventure fantasy incorporating high-tech imagination and archaeological mystery. When their archaeologist father goes missing, determined siblings ask for the help of genius scientist Professor Shonku. They are joined by a smart robot and a stowaway neighboring farmer in their search. In their journey, they uncover the secrets of many artifacts and fight off a greedy villain. The best part of this animation is in Professor Shonku's futuristic and imagination-inspiring inventions, as well as in the unpredictable conclusion. It is a wonderful film for children full of scientific curiosity, wishing for fantastic adventures. (HAN Song-i)

카말 반살

반살은 40년이 넘는 동안 자국 인도 영화와 해외 수입 영화를 배급을 해왔다. 최근에는 '앵무새 이야기' 시리즈나 인도 국민감독 사티야지트 레이의 원안을 바탕으로 한 '유니콘 원정대' 시리즈 등을 제작했다.

Kamal BANSAL

He has been Distributing Indian and International films in India for 40 years. Movies imported by his Company into India. Presently he is working on a television series 'Parrot Tales' and 'The Shonku Diaries' based on Satyajit Ray's story.

히말라야
The Himalayas

Korea | 2015 | 124min | Color | Fiction

UC | 09.08 | 19:00 | GV

히말라야 등정과 같은 익스트림한 도전이란 사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우와, 대단하다'라는 1차원적 반응 다음에 '도대체 왜 그런걸 하지?'라는 의아함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엄홍길 대장을 비롯한 클라이머들은 끊임없이 인터뷰를 당하며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말들이 쉽게 이해되진 않는다. 그러나 죽은 대원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산을 오르는 인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가치와 의미는 말 몇 마디로 정리될 수는 없는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실화를 극화한 이 작품의 힘이다. (김세진)

Extreme challenges such as climbing the Himalayas bring two reactions by ordinary folks. The first is, "wow, that's incredible!" It is followed by, "but why do they do it?" In this film, climbers including captain Um Hong-gil are repeatedly interviewed and tell us about the value and meaning of their climb, but they are not easy to understand. Watching them reclimb the mountain to collect the bodies of their former members, however, we understand that the value and meaning cannot be expressed in a few words. That's the power of this film that is based on a true story. (KIM Se-jin)

이석훈

<댄싱퀸>(2012)과 여름 블록 버스터 <해적: 바다로 간 산적>(2014)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감독으로 인정받았다. 2015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히말라야>를 만들었다.

LEE Seok-hoon

He established himself as a commercially successful director with *Dancing Queen*(2012) and the summer blockbuster *The Pirates*(2014). In 2015 he took on the humanistic drama *The Himalayas*, based on a true story.

울주세계산악문화상 강연 : 크리스 보닝턴 경

일시 9월 8일(토) 16:00 ~ 18: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2018년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의 수상자 크리스 보닝턴 경의 강연은 9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된다. 1996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은 크리스 보닝턴 경은 알피니즘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등반가이자 모험가이다. 이번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관객들에게 등반과 그의 삶을 들려주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크리스 보닝턴 경

1934년 영국의 런던, 햄스테드에서 태어난 크리스 보닝턴 경은 세계적인 알피니스트이자 탐험가, 작가 그리고 사진가이다. 안나푸르나2봉, 몽블랑 프레네이 중앙 필러, 오거, 콩구르 등 많은 루트를 개척했고, 여든의 나이에 올드맨 오브 호이를 재등반했다. 1996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고, 2015년 황금피켈상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사회 신영철

18차례에 걸쳐 히말라야를 원정한 산악인이자 작가. 1995년 대통령 표창, 2011년 한국산악회 이은상 상을 받았다. 저서로 『히말라야 이야기』, 『가슴속에 핀 에델바이스』, 『걷는 자의 꿈, 존 뮤어 트레일』 등이 있으며, 1989년 월간 『사람과 산』 창간 멤버로 참여해 현재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MBC다큐멘터리 「사람, 산」의 메인 MC로 방송을 이끌고 있다.

UMCA's Lecture : Sir Chris BONINGTON

Time Sep. 8(Sat) 16:00 ~ 18: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18's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recipient Sir Chris Bonington will give a special lecture on Saturday, September 8. As a mountaineer and adventurist, Bonington was knighted by the queen of England in 1996, and is known as a living legend in alpinism. He will visit Korea to tell us about his life and climbing during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ir Chris BONINGTON

Sir Chris Bonington (born 1934, Hampstead, London, England) is a world class alpinist, explorer, author and photographer. He has pioneered numerous routes including Annapurna II, the Central Pillar of Freney in Mont Blanc, the Ogre, and Kongur. He also reclimbed The Old Man of Hoy when he was 80 years old. He was knighted in 1996, and received the Piolets d'Or Carriere –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s in 2015.

Moderator SHIN Young-chul

Shin Young-chul climbed the Himalayas 18 times, and received a presidential citation in 1995 and Lee Eun-sang Awards in 2011. He wrote books including *The story of the Himalayas, Edelweiss Blooming in the Heart* and *John Muir Trail*. He is the founding member and executive editor of *Monthly Man & Mountain* and worked as the host of a documentary *People, Mountain*

워크숍 Workshop : 크리슬 라이트의 어드벤처 사진 촬영

일시 9월 9일(일) 17:00 ~ 19: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상영작인 <끝없는 모험>과 <여자들은 다 어디갔지?>의 촬영감독이자 연출가인 크리슬 라이트 감독이 산, 바다, 사막, 암벽과 극지에서 직접 촬영한 어드벤처 사진에 대한 특강과 수강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사진에 대한 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Workshop : Krystle WRIGHT's Adventure Photography

Time Sep. 9(Sun) 17:00 ~ 19: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Krystle Wright, a Director of Photography and director of *In Perpetual Motion* and *Where the Wild Things Play,* screened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is year, will give a special lecture about adventure pictures she shot herself at mountains, seas, deserts, rock walls and polar areas and have a mentoring time about pictures submitted in advance by attendees.

패널 토크 1: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를 말하다

일시 9월 8일(토) 11:00 ~ 13:00
장소 히말라야-네팔관

올해 초 국내외 산악인들의 애도 속에 향년 94세의 나이로 네팔 카트만두에서 타계한 '히말라야의 영원한 기록자'로 불린 엘리자베스 홀리 여사에 대한 다큐영화 <히말라야의 기록자-엘리자베스 홀리> 상영 후 한국인 최초로 산악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황금 피켈상'을 수상한 김창호 대장의 사회로 생전의 홀리 여사를 직접 만나봤던 허영호 대장, 여성 산악인 곽정혜 그리고 등반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홀리 여사와의 인터뷰 및 등반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엘리자베스 홀리

1923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녀는 1960년 네팔에 정착해 로이터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고봉에 도전하는 산악인들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후 전 세계 히말라야 등반대의 9,600건에 달하는 등반 사실을 꼼꼼히 기록해 '산악계의 셜록 홈즈'로 불리기도 했다.

사회

김창호(산악인)
한국인 최초 황금피켈상 수상자,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대사

패널

허영호(산악인), **곽정혜**(산악인)
한필석(『월간 산』 前편집장)
서기석((사)한국등산레저산업연구원장)

Panel Talk 1: Keeper of the Himalayas-Elizabeth HAWLEY

Time Sep. 8(Sat) 11:00 ~ 13:00
Venue Himalaya-Nepal Cinema

After *Keeper of the Mountains*, a documentary film about Elizabeth Hawley, who passed away early this year at the age of 94, is screened, Heo Young-ho, who met Mrs. Hawley, Gwak Jeong-hye, and other people in the climbing industry will have a conversation about interviews with her under the emceeing of Kim Chang-ho.

Elizabeth HAWLEY

Born in Chicago in 1923, she settled in Nepal in 1960, where she, as a correspondent for Reuters, interviewed mountaineers. Then she wrote down every detail about 9,600 events of climbing teams, for which she was called the 'Sherlock Holmes of Mountaineering'.

Moderator

KIM Chang-ho(Mountaineer)
The first Korean to win the Piolets d'or, UMFFinist for the 2n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Panel

HEO Yeong-ho (Mountaineer), **GWAK Jeong-hye** (Mountaineer)
HAN Peel-seok (Ex-editor of Monthly Magazine *San (Mountain)*)
SEO Ki-seok (Director of Korean Climbing and Leisure Industry Research Institute)

패널 토크 2: 여성 그리고 등반

일시 9월 9일(일) 13:00 ~ 15:00
장소 산악문화센터 2층 세미나실

올해 '울주비전: 여성 그리고 산'의 상영작인 <어머니 산> 상영 후 영화의 주인공인 네팔 출신 산악인 파상 라무 셰르파 아키타와 한국의 여성 등반가들이 여성 산악인 그리고 등반가로서의 삶에 대해 관객과 함께 이야기한다.

사회

배경미(산악인)
(사)대한산악연맹 국제교류 이사, 아시아산악연맹 사무총장

패널

파상 라무 셰르파 아키타 네팔 솔루쿰부 출신의 네팔 최초 여성 산악강사. 네팔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의 K2를 등정했으며, 201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올해의 모험가로 선정되었다.

이명희 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소속. 현재까지 27년간 활동 중인 알파인 등반과 거벽 전문 등반가. 2006년 알프스 그랑드조라스 북벽, 2008년 파타고니아 파이네 중앙봉과 세로토레를 등반했다.

Panel Talk 2: Women and Mountaineering

Time Sep. 9(Sun) 13:00 ~ 15:00
Venue Seminar Room, 2nd Floor, Mountain Culture Center

After the screening of *Mothered by Mountains* at Ulju Vision: Women and Mountains, there will be an occasion for viewers to talk about the life of female mountaineers and climbers with Korean female climbers as well as Pasang Lhamu Sherpa Akita, protagonist of the film and climber from Nepal.

Moderator

Christine PAE(Mountaineer)
Director in International Exchange of Korean Alpine Federation and Secretary General of Union of Asian Alpine Association

Panel

Pasang Lhamu Sherpa AKITA She is the first female mountain instructor in Nepal from Solukhumbu, Nepal. She is also the first female mountaineer to climb K2 and was named as the adventurer of the year by National Geographic 2016.

LEE Myeong-hui As a member of North Face Climbing Team, she has been a professional climber specialized in alpine climbing and big wall climbing for 27 years. She climbed north face of Grandes Jorasses of the Alps in 2006, and the Central Tower of Paine and Cerro Torre in Patagonia in 2008.

움프 씨네 콘서트
UMFF Cine Concert

자연과 인간의 공존, 삶을 찬미하기 위해 기획된 '움프 씨네 콘서트'는 자연을 담은 영화, 자연을 닮은 노래, 자연을 표현한 글이 우리의 삶과 어우러져 펼쳐진다.

영화 × 글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영화 × 음악 '자연에서 노래하다'
영화 × 삶 '자연에서 놀다: 울주人 한마당'

UMFF Cine Concert has been planned to laud the life and coexistence of nature and man. Films, songs and writings about nature will harmonize with our life.

Film × writing 'Reading in Nature'
Film × music 'Singing in Nature'
Film × life 'Playing in Nature: Ulju IN Festival'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의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자연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자연에서 이야기하다'는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선보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산과 삶을 이야기하는 문학인과 관객이 함께, 삶의 의미와 자연에서의 휴식을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진다.

8일(토)부터 10일(월), 3일 동안 소설가, 시인들의 이색적인 강연 및 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일정

9월 8일(토) 14:00 ~ 16:00, 히말라야-네팔관, 소설가 김훈
9월 9일(일) 14:00 ~ 15:30, 히말라야-네팔관, 시인 정호승
9월 9일(일) 16:00 ~ 17:30, 히말라야-네팔관, 시인 이동순
9월 10일(월) 11:00 ~ 11:30, 우리들의 영화관, 시인·가수 백창우

Reading in Nature

We wish to take you out to nature to read, to heal you from the busy city life. Reading in Nature is a healing program of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at takes you on a journey with literary men discussing mountains and life to find the meaning of life and rest in nature.

Let's take a dive and mingle with the novelists and poets as they bring unique lectures and performances between Saturday the 8th, and Monday the 10th.

Schedule

Sep. 8(Sat) 14:00 ~ 16:00, Himalaya-Nepal Cinema, author KIM Hoon
Sep. 9(Sun) 14:00 ~ 15:30, Himalaya-Nepal Cinema, poet JEONG Ho-seung
Sep. 9(Sun) 16:00 ~ 17:30, Himalaya-Nepal Cinema, poet LEE Dong-soon
Sep. 10(Mon) 11:00 ~ 11:30, We make UMFF Cinema, poet/singer BACK Chang-woo

김훈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사대문안에서 자랐다. 장편소설 『공터에서』,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등이 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다.

KIM Hoon

Kim Hoon was born in 1948 in Seoul and raised within the four walls of Seoul. He has authored books such as *In the Empty* Lot, and the essay collection *As I Cook Ramen*. Currently, he lives in Ilsan, Goyang-si, Gyeonggi-do.

정호승

시인 정호승은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로 문단에 등단했다.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새벽편지』,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밥값』, 『여행』,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선화에게』, 영한시집 『부치지 않은 편지』,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외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의 번역시집이 있고,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등이 있다.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동서문학상, 편운문학상, 가톨릭문학상, 상화시인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EONG Ho-seung

Poet Jeong Ho-seung began his literary career with a poem in Daehan Daily New Spring Literary Contest in 1973, and a short story in Chosun Ilbo New Spring Literary Contest in 1982. His poetry books include *From Sorrow to Joy, Dawn Letter, Love Then Die, To be Lonely Is to Be Human, Earning My Keep, Travels, No to Hope, The People I Love, To Daffodils,* Korean-English bilingual edition *A Letter Not Sent, Blossoms May Fall but I Never Forget You,* as well as some translated into Japanese, Spanish, Russian, and Chinese. Some of his essay collections include *Words That Have Given Me Strength, Words That Have Given Me Courage,* and *Without You, There Is No ME*.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So-Wol Literary Prize, Jeong Ji-yong Literary Prize, Dongsuh Poetry Prize, Pyeonun Poetry Prize, Catholic Poetry Prize, Sangwha Poetry Prize, and Gongcho Poetry Prize.

이동순

이동순(李東洵) 시인은 1973년 동아일보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개밥풀』, 『물의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철조망 조국』 등 16권 발간. 분단시대 매몰시인 백석의 시작품을 최초로 발굴 정리하여 『백석 시전집』(1987)을 발간하고 시인을 민족문학사에 복원시켰다. 『잃어버린 문학사의 복원과 현장』 등 각종 저서 55권을 펴내었다. 신동엽문학상, 김삿갓문학상, 시와시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LEE Dong-soon

Poet Lee Dong-soon began his literary career when his poem *The Sleep of th Devil* won the Dongah Sinchoon in 1973. He published 16 poetry books such as *Duckweed, The Song of Water, I Miss You Now,* and *Barbed-wire Homeland*. He also published *The complete Works of Baek Seok*(1987), after he collected and organized the poems by Baek Seok, one of the forgotten poets from the decades of division, and restored him to the national history of literature. He has also authored 55 books including *Restoration and Site of the Forgotten History of Literature*, and has received various prizes including Sin Dong-yup Prize for Literature, Kim Sakkat Poetry Prize, and Jeong Ji-young Literary Prize.

백창우, 굴렁쇠아이들

시, 작곡, 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 백창우는 포크 그룹 노래마을로 80년대 말 포크를 이끌며,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나이 서른에 우린'과 같은 노래를 발표했다. '사랑'(강영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임희숙),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쓰인 '부치지 못한 편지'(김광석) 등을 작곡했다. 동시노래 시리즈 '보리어린이 노래마을'로 제44회 백상출판상(어린이·청소년 부문)을,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로 제1회 대한민국출판상을 수상했고, 제1회 풀꽃동요상을 받았다. 시노래 모임 나팔꽃 동인이며, 현재 어린이 노래패 굴렁쇠아이들과 함께 동시노래를 만들고 전래동요를 재해석해 음반과 책으로 내고 있다.

BACK Chang-woo, Gulleongseo-aideul

Back Chang-woo is a singer and songwriter talented in poetry, composition, and singing. In the late 80s, his folk group Noraemaeul led the Korean folk scene with songs like, *If This Song Can Become One Ray of Sunshine in This Shady Land* and *We at Thirty*. He has composed such songs as *Love*(Kang Young-suk), *After My One and Only Has Left*(Im Heui-suk), and *Letter Unmailed*(Kim Kwang-seok), which was used in the film *Joint Security Area*. His series of children's songs Bori Children's Singing Village won him the 44th Baeksang Publishing Awards in the children and teenager section. 'Mr. Baek Changwoo's Sotrehouse of Songs' won him the 1st Korean Publishing Awards and the 1st Pulkot Children's Song Awards. He is a driving member of Lobedleaf Pharbitis, a poetry and song club. Currently, he is making children's songs with the children singing group Gulleongseo-aideul and reinterpreting nursery rhymes to record albums and publish books.

자연에서 노래하다

개막공연

일시 9월 7일(금) 19:00
장소 움프 시네마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개막식은 올해의 슬로건 '새로운 도전'에 맞춰 장르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 가수 김연우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7일 금요일, 수려한 신불산 경관 속에서 '보컬의 신'이라 불리우는 김연우와 함께 3번째 축제를 여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개막작 <던월>은 공연 이후 상영된다.

Singing in Nature

Opening Performance

Time Sep. 7(Fri) 19:00
Venue UMFF Cinema

In harmony with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logan "New Journey", the opening ceremony will begin with a performance by singer Kim Yeon-woo, who is reaching beyond his limits as he attempts various musical styles. On Friday the 7th, this "vocal god" will open the 3rd UMFF with the beautiful Sinbulsan as his backdrop.

The opening film *The Dawn Wall* will be screened after the performance.

김연우

신이라 불리는 남자 연우신, 김연우! 오직 노래로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 김연우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찾아온다. 김연우는 '여전히 아름다운지',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등을 통해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 받으며 대한민국 최정상 가수의 자리에 섰고,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에게 더 또렷이 각인되었다. 아름다운 산악의 밤, 그와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KIM Yeon-woo

In harmony with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logan "New Journey", the opening ceremony will begin with a performance by singer Kim Yeon-woo, who is reaching beyond his limits as he attempts various musical styles. On Friday the 7th, this "vocal god" will open the 3rd UMFF with the beautiful Sinbulsan as his backdrop. The opening film *The Dawn Wall* will be screened after the performance.

개막작 Opening Film

던월 The Dawn Wall

감독 조시 로웰, 피터 모티머
Director Josh LOWEL, Peter MORTIMER

USA | 2017 | 100min | Color | Documentary

페막공연

일시 9월 11일(화) 20:30
장소 움프 시네마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끝자락에 락을 만나다.

대한민국 최고 락가수 3인 김경호, 김종서, 박완규가 함께하는 슈퍼 락 콘서트. 그들의 노래와 함께 영화제의 끝이 아닌 다음 영화제를 위한 도약의 장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폐막작 <클라우드보이> 상영 이후 진행된다.

Closing Performance

Time Sep. 11(Tue) 20:30
Venue UMFF Cinema

The 3rd UMFF meets rock at its closing.

A super rock concert by Korea's 3 best rock singers – Kim Kyung-ho, Kim Jong-seo, and Park Wan-gyu. Their performance do not signify the end of the festival, but the leap into the next one, and provide an arena for everyone to become one and have fun.

The Colsing Films will be screened before performance.

김경호

국민 락커라 불리는 김경호는 1994년 1집 앨범 타이틀곡 <마지막 기도>로 데뷔했다. 1989년 KBS청소년 창작가요제 동상 '꿈 그리고 사랑'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폭발적인 가창력과 극강의 스타성으로 락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KIM Kyung-ho

Kim Kyung-ho, one of the most beloved rock singers in Korea, debuted in 1994 with an album whose title song is *Last Prayer*. Acknowledged with many prizes, he has led the popularization of rock music with his unparalleled voice and stardom.

김종서

대한민국의 락씬의 살아있는 전설인 김종서는 그룹 시나위의 보컬로 데뷔했다. 이후 <아름다운 구속>, <겨울비> 등 수많은 명곡들로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골든디스크부문 본상 등 많은 상들을 수상했다.

KIM Jong-seo

Kim Jong-seo is a legendary rock singer in Korea and debuted as the lead vocalist of the band Sinawi. With his many beloved songs such as *Beautiful Binding* and *Winter Rain*,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박완규

1996년 부활의 보컬로 데뷔한 락 보컬리스트 박완규는 허스키한 보이스로 <천년의 사랑>라는 크게 인기를 얻은 대표곡이 있으며, 2012년 제39회 한국방송대상 가수상을 수상했다.

PARK Wan-gyu

A rock vocalist Park Wan-gyu debuted as the lead singer of the band Boohwal in 1996 and is well known for his mega hit song '*Love for a Thousand Years*. He received a musical artist awards in 2012 at the 39th Korea Broadcasting Prizes.

히말라야 + 김창완 밴드

일시 9월 8일(토) 18:30
장소 움프 시네마

<히말라야>에서 극중 엄홍길 대장의 애창곡 산울림의 '창문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가 흘러나오는 두 장면은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는 힘든 등반 과정 속 평화로움을, 관객들에게는 깊은 여운을 주며 인상 깊게 남는다.

8일(토) 이석훈 감독의 <히말라야> 상영 후, '창문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어머니와 고등어', '꼬마', '산 할아버지' 의 김창완 밴드의 공연으로 그 감동의 깊이를 더해가고자 한다.

*영화상영 전 게스트와의 만남.

The Himalayas + KIMCHANGWAN BAND

Time Sep. 8(Sat) 18:30
Venue UMFF Cinema

In the film *The Himalayas*, the two scenes in which Corporal Um Hong-gil's favorite song, SanWoolim's *One Day A Vague Memory is playing in the background* leaves a deep impression on the audience and brings peace to the characters toiling on their climb.

On Saturday the 8th, we will be further touched when director Lee Seok-hoon's *The Himalayas* is screened along with a performance by KIMCHANGWAN BAND, who sing such songs as *One Day A Vague Memory, Mother and Mackerel, Child,* and *Mountain Grandpa.*

*Before film's screening, Guest Visit.

김창완 밴드

1970년대 산울림을 결성해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너의 의미> 등 주옥 같은 명반을 쏟아낸 김창완은 '산울림 13집' 이후, 김창완밴드로 돌아와 산울림의 음악적 감각과 정통성을 계승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현재진행형 아티스트이다. 음악으로 전세대를 관통하는 힘을 가진 김창완밴드는 오는 9월 8일 공연을 통해 관객과 영화 <히말라야>의 감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KIMCHANGWAN BAND

Kim Chang-wan formed the group SanWoolim in the 70s, opening a new era in Korean music with signature hits like *Spread Silk on My Heart* and *The Meaning of You*. After their 13th album, he returns with KIMCHANGWAN BAND following in SanWoolim's traditional musical sensibility, but also exploring new musical directions. The band will join us on September 8 for the film *The Himalayas*, and give us a touching performance.

폐막작 Closing Film

클라우드보이 Cloudboy

감독 메이케미너 클린크스포
Director Meikeminne CLINCKSPOOR

Belgium, Sweden, Norway, Netherlands
2017 | 77min | Color | Fiction

히말라야 The Himalayas

감독 이석훈
Director LEE Seok-hoon

Korea | 2015 | 124min | Color | Fiction

푸른곰팡이 + 리틀 포레스트

일시 9월 9일(일) 19:00
장소 움프 시네마

일요일은 모든 직장인들이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다. 9일(일)의 프로그램은 척박한 도시의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나무가 되어' '나뭇잎 자리로' '행복한 사람' 자연과 삶을 노래한 故조동진의 따스한 시선으로 고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조동희, 장필순, 권진원의 목소리를 그 속에 담아 자연을 노래하고자 한다. 함께 상영될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는 지친 삶 속에 다시 향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PENICILLIUMUSIC + Little Forest

Time Sep. 9(Sun) 19:00
Venue UMFF Cinema

Saturday is a day of sweet rest for all office workers. The Sunday program is designed to allow them a chance to leave the sterile offices behind and become one with nature. We hope to bring them comfort through the warm songs of the late Jo Dong-jin, who sang songs about life and nature such as *To Become a Tree*, *In Place of a Tree Leaf*, and *Happy Person* Jo Dong-hee, Jang Pil-soon, and Kwon Jin-won will provide the voices for his songs. Director Yim Soon-rye's *Little Forest* will also be screened, helping the audience see a new lifestyle that can bring renewed energy into their tired lives.

조동희

음악공동체 하나음악의 두 기둥 조동진, 조동익의 막내 동생이기도 한 조동희는 2011년 정규 1집 '비둘기'로 데뷔했으며 시대정신과 작가정신이 있는 <다섯 개의 사랑이야기>, <바다로 가는 기차> 등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다. 또한 드라마 「시그널」의 O.S.T '행복한 사람' 등 드라마, 영화음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JO Dong-hee

Jo Dong-hee is the youngest sister of Jo Dong-jin and Dong-ik. She debuted as a singer with an album 'Dove' in 2011 and presented social consciousness as well as artist spirit through songs including *Five Stories of Love* and *A Train to the Sea*. She also sang *Signal* sound track '*Happy Person*' and has been extending career in drama and film industry.

장필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장필순은 여성 듀엣 소리두울로 1988년 독집 앨범을 발표하고 1989년 솔로 1집으로 데뷔했다. 2015년부터 <Rework>와 <소길화> 등의 프로젝트로 노래들을 공개했고 스테디셀러 곡<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가 대표적이다.

JANG Pil-soon

Jang Pil-so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singers and song writers in Korea. She had her first album in 1988 singing, duo Soridoowool and released her next album as a solo singer in 1989. Her recent songs include 'Rework' and 'Flowers of Sogil', and her best-known song is *When My Loneliness Calls Out to You*.

권진원

1985년 제6회 MBC 강변가요제에서 데뷔했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일원이 되어 <저 평등의 땅에>, <사랑 노래> 등으로 자유와 평등을 노래했다. 1992년 솔로로 독립하여 <북녘 파랑새>, <나무> 등을 다양한 명반을 발표하며 현재도 꾸준히 활동 중이다.

KWON Jin-won

Kwon Jin-won debuted in 1985. Afterwards she became a member of the group 'People who search for songs' and took part in singing such songs as *In the Land of Equality* and *Love Song*. She began singing as a solo singer and has released many magnificent albums including *Bluebird in the North* and *Tree*.

리틀 포레스트 Little Forest

감독 임순례
Director YIM Soon-rye

Korea | 2018 | 103min | Color | Fiction

여행스케치 + 걷기왕

일시 9월 10일(월) 19:00

장소 움프 시네마

현대인은 뒤쳐질까 두려워하는 것일까? 경쟁에 중독되어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느리고, 여유롭고, 즐기는 법을 알아가야 했다. '별이 진다네'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었어' 등 친숙한 통기타와 자연의 소리로 노래하는 여행스케치는 그들만의 특유의 편안함으로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던 경쟁의 열기를 잠시 식혀준다. 이와 함께 존재와 경쟁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백승화 감독의 <걷기왕>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는 일요일 밤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Journey Sketch + Queen of Walking

Time Sep. 10(Mon) 19:00

Venue UMFF Cinema

The modern man is afraid of falling behind? As we become more addicted to competition, perhaps this is the time to learn to slow down, relax, and enjoy life. Journey Sketch and their familiar acoustic guitar tunes of *When the Star Falls* and *That is How Life Goes* will cool our competition fever with their unique easy style. Along with their performance, director Baek Seung-hwa's *Queen of Walking*, which provides a perspective on existence and the speed of competition, will lure us to enjoy our Sunday night as we recharge for a new start.

여행스케치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건강하고 풍성한 문화의
숲을 만들어가는 뮤지션 여행스케치'

1989년 1집 타이틀 '별이 진다네'로 데뷔했으며,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보컬을 맡은 루카(조병석)와 보컬과 연주를 맡은 남준봉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별이 진다네>, <옛친구에게>,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운명>,<집밥>등 수많은 대표 곡들을 가지고 있다.

Journey Sketch

'Journey Sketch is a group of musicians who make
the forest of culture healthier and richer like an old giant tree.'

Journey Sketch debuted with *When the Star Falls,* the title song of their first album in 1989. With Luka (Cho Byung-suk), a songwriter, arranger, player and vocalist, and Nam Joon-bong, a player and vocalist, as main members, the group is well known for their numerous popular songs such as *When the Star Falls, To My Old Friend, That Is How Life Goes, Destiny* and *Homemade Food*.

걷기왕 Queen of Walking

감독 백승화
Director BAEK Seung-hwa

Korea | 2016 | 93min | Color | Fiction

자연에서 놀다: 울주人 한마당

일시 9. 10(월) 13:00 ~ 18:00
장소 움프 시네마
상금 총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자연에서 놀다: 울주人 한마당'은 영화제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으로, 울주人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불산의 아름다운 산천 속에서 펼쳐지는 참가 16팀의 공연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영화제를 즐길 예정이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16팀에 대한 본선 심사는 공연 당일에 진행되며 6개 부문의 수상 부문에 선정된 팀은 폐막식에서 발표되며, 총 상금 8백만원 상당한 상금이 수여된다.

1부
민요 / 합창
13:00 ~ 14:00

경기민요(우현지, 우현정)
울주알프스합창단
아우름 앙상블
언양주민자치센터 합창단
울산여성합창단

2부
댄스 / 악기
14:30 ~ 16:00

범서읍 댄스스포츠
위풍당당 노풍당당
태화강 색소폰
칸타로카
오아시스 색소폰 앙상블
언양읍 주민자치센터 아코디언반

3부
밴드
16:3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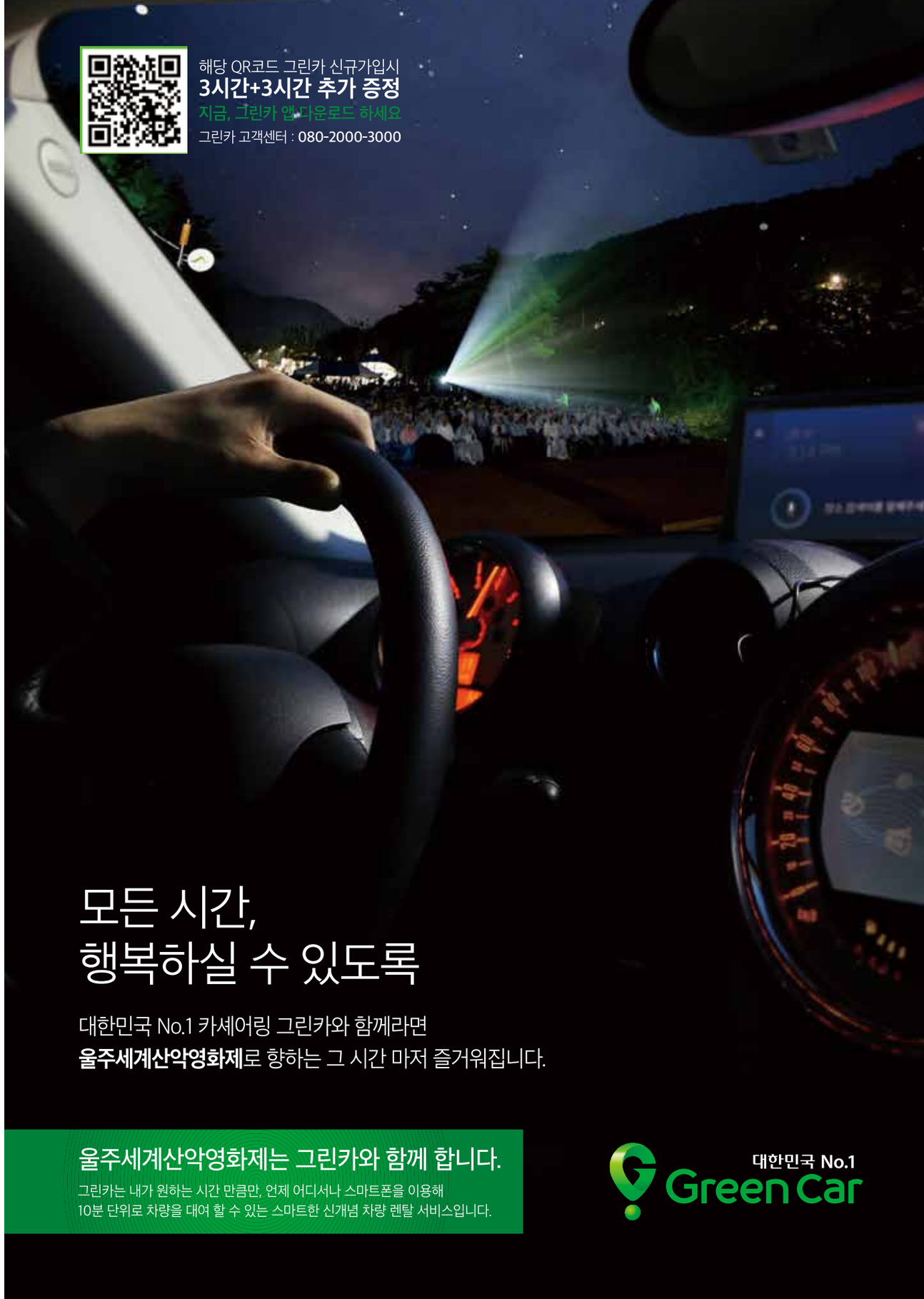
가지산밴드
천상에 기타
팔공비피엠
범서읍 주민자치센터 성기열 기타반
신은섭밴드

Playing in Nature: Ulju IN Festival

Time Sep. 10(Mon) 13:00 ~ 18:00
Venue UMFF Cinema
Award gift cards totaling 8 million won

Playing in the Nature: Ulju IN Festival is a program that allows the festival audience to mingle with the people of Ulju. Inside the beautiful Sinbulsan, the 16 participating teams will give various performances and enjoy the film festival with the audience.

The 16 chosen finalist teams will be judged on the day of their performances. Teams selected for awards in 6 different sections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closing ceremony and take home 8 million won.



작품색인

A-Z
77 14+1
101 32킬로미터-60년
43 W

ㄱ
101 개미
101 거인의 길
110 걷기왕
68 검은 닭
83 결(結)
60 경이로운 자연
59 고래의 섬, 페로
36 고산중독
102 고슴도치의 집
91 근아의 마을. 그 나의 마을
77 꿈꾸는 자전거
91 꿈엔들 잊으리오
77 끝없는 모험

ㄴ
111 나의 붉은 고래
60 나의 아들 이르닉
102 날개
102 네거티브 스페이스
60 놀라운 적응력: 방글라데시
61 눈의 끝
61 늑대
61 늑대를 찾아서
49 니콜라스 뮐러의 삶과 꿈

ㄷ
73 댐
36 더트백: 프레드 베키의 전설
32 던월
49 도착하면 안 돼
39 돌아서지 않는다
43 돌파요정
43 동강이
78 드날리의 파일럿
52 드림라이드 2
57 땡큐 포 더 레인

ㄹ
44 라이프 코치
83 레지나
95 로테와 루이즈
39 루낙 리
78 리브가 걸어온 길
111 리틀 포레스트

ㅁ
78 마마
37 마운틴
57 마지막 사냥꾼
85 매리 그레이스
103 목소리 큰 나무
39 몬타니스타스
92 무룡산 전설이야기

ㅂ
52 바다를 품은 사람들
96 바람과 함께 걷다
62 바람의 땅
96 바클리
46 반란의 계곡
44 베른트 아놀드-내면의 소리
112 벨과 세바스찬
97 보물섬
52 보쉬 프로젝트
44 부가부 우루카 II
97 부탄의 후계자들
103 붉은 곡
103 빅 피쉬

ㅅ
104 사냥
112 사샤의 북극 대모험
58 사선에서
108 사운드 오브 뮤직
37 사이코 버티컬
79 사티
109 산
84 산 너머 보리밭
98 산속의 숨겨진 보물
98 산을 움직이는 강한 햇살
104 산이 말하길
87 산적의 꿈
58 살아있는 지구 II, 산
69 새의 해
50 서핑 유럽
72 세 농부와 아들
59 세뇨리따 마리아
85 소니타
99 수도원 아이들
53 수직의 마법사-하인즈 잭
40 시험의 길
73 신의 그림자

ㅇ
50 아름다운 패자들
74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서
104 아마도 외계인?
91 아이들은 지금
105 아이들을 기다리며
45 아이스 콜링
40 아파 셰르파의 이야기
45 안전제삼
62 알라마르
53 알타이 스키 어드벤처
63 야생과 함께 살기
79 어머니 산
40 에베레스트 그린
79 에베레스트의 그늘에서
80 에지
80 여자들은 다 어디갔지?
53 오르다
100 오스카의 아메리카
105 우가
80 우리들의 이야기
91 울산과 함께하는 조정
51 울트라
54 윈터서프 2
113 유니콘 원정대 : 비밀의 다이어리
54 이미지네이션

ㅈ
63 장남
105 재즈동물원
54 젊음의 샘
100 징기스칸의 아이들

ㅊ
63 최후의 벌꿀 사냥꾼
106 치리파하스

ㅋ
87 카일라스 가는 길
74 칼리파트리아
45 코코넛 커넥션
38 크리스 보닝턴-산악인
46 크리스 샤마의 딥워터 솔로잉
33 클라우드보이

ㅌ
55 탈출

ㅍ
106 포토제닉
64 푸른 심장
69 풀시리
55 프리스키 전성시대
69 플루트

ㅎ
106 하마마와 칼루나
109 하이디
64 학교 가는 길
64 헌팅 자이언츠
70 호기심 소녀
92 호랑신이 만드는 아름다운 산
55 홋카이도 스키탐험
51 화이트 워터
73 황혼의 로맨스
92 회귀(回歸)
68 흔들리는 산
113 히말라야
81 히말라야의 기록자 -엘리자베스 홀리

Index of Films

0-9
77 14+1
101 32km-60 Years

A
46 Above the Sea
60 Adaptation: Bangladesh-Sea Level Rise
36 Addicted to Altitude
62 Alamar
61 Alone with Wolves
53 Altay Wild Snow
101 Ant
53 Ascend

B
87 Bandit's Dream
96 Barkley
84 Barley Fields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92 Beautiful Mountain Made by Tiger, A
112 Belle and Sebastien
103 Big Fish
111 Big Fish & Begonia
68 Black Hen, The
64 Blue Heart
38 Bonington-Mountaineer
52 Bothy Project, The
43 Break on Through

C
74 CALIPATRIA
100 Children of Genghis, The
105 Children Will Come, The
106 Chiripajas
33 Cloudboy
45 Coconut Connection
58 Conflict Tiger
83 CRUX
70 Curious Girl, A

D
73 Dam, The
32 Dawn Wall, The
78 Denali's Raven
36 Dirtbag: The Legend of Fred Beckey
52 DreamRide 2

E
80 Edges
63 Eldest Son, The
61 End of Snow, The
50 Endless Winter II; Surfing Europe, The
55 Escape
40 Everest Green

F
52 Fishpeople
69 Flute, The
54 Fountain of Youth
49 Fruition, The Life and Dreams of Nicolas Muller

G
55 Generations of Freeskiing
73 God's Shadow, A
103 Gruff-voiced Tree, The

H
106 Hamama & Caluna
39 Hansjorg Auer-No Turning Back
102 Hedgehog's Home
109 Heidi
53 Heinz Zak?A Free Spirit in the Vertical World
98 Hidden Treasures in the Mountain
113 Himalayas, The
55 Hokkaido Calling
102 Hsiang Yi
104 Hunt, The
64 Hunting Giants

I
45 Ice Calling
54 Imagination: Tom Wallisch
74 In a Beautiful and Quiet Location
77 In Perpetual Motion
79 In the Shadow of Everest
44 Inwards
59 Islands and the Whales, The

J
105 Jazzoo
87 Journey to Kailash

K
81 Keeper of the Mountains

L
62 Land of the Wind
63 Last Honey Hunter, The
57 Last Ice Hunters, The
73 Late Season
92 Legend of Mt.Muryong, The
104 Let the Mountain Speak
44 Life Coach
91 Life in Nature
111 Little Forest
77 Little House Wip, The
99 Little Wisdom, A
78 Liv along the Way
63 Living with Wildlife
64 Lonely Road, The
112 Long Way North
95 Lotte & Luise: Twins on Board
40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39 Lunag Ri

M
78 Mama
85 Marygrace
104 Maybe Aliens
59 Miss Maria, Skirting the Mountain
91 Missing Homeland
79 Mothered by Mountains
37 Mountain
109 Mountain, The
39 Mountaineers
60 My Irnik

N
102 Negative Space
49 Never Arrive, Ever
97 Next Guardian, The

O
100 Oskar's America
91 Our Villiage

P
69 Phulsiri
58 Planet Earth II, Mountains
37 Psycho Vertical

Q
110 Queen of Walking

R
103 Red Cave, The
83 Resina
92 Return
91 Rowing with Ulsan

S
45 Safety Third
79 Sati
60 Sense of Wonder, A
113 Shonku Diaries-A Unicorn Adventure, The
85 Sonita
108 Sound of Music, The
43 Stumped
98 Sunshine that Can Move Mountains

T
97 Tesoros
57 Thank You for the Rain
72 Three Farmers and a Son
68 Trembling Mountain

U
51 Ultra
106 Undiscovered
44 Uruca II?Bugaboos Edition

V
46 Valley Uprising
40 Viacruxis

W
43 W
96 Walking with the Wind
101 Way of Giants
80 Where the Wild Things Play
51 White Waters, The
54 Winter Surf 2: Passion, The
61 Wolf, The
80 Women's Ways
50 Wonderful Losers: A Different World
105 Wooga

Y
69 Year of the Bird

감독색인

ㄱ
99 강우기
104 글렌 바릿
74 게르하르트 트레믈
91 김건하
91 김교학
91 김근아
91 김남우
54 김동기
91 김민지
54 김성은
91 김아름
91 김영서
103 김정석
92 김지현

ㄴ
69 니마 겔루 라마
73 니콜라스 뮐러
112 니콜라스 배니어
43, 46 닉 로젠

ㄷ
73 다니엘라 라이트너
39 다미아노 레바티
54 데이브 모솝
36 데이브 오리스케
97 도로탸 주르보

ㄹ
70 라제시 프라사드 카트리
101 라하 메보우
95 란셀럿 폰 나소
112 레미 사예
74 레오 칼리스
55 레오 후른
83 렌초 카르보네라
62 로라 벨린키
108 로버트 와이즈
57 로즐 브리가
85 로크사레 가엠 마가미
102 루 쿠와하타
59 루벤 멘도자
74 루카스 막스트
44, 78, 79 르넌 오즈턱
63 리안느 앨리슨

ㅁ
49 마르틴 룩싱거
97 마리아 노바로
54 마이크 더글라스
59 마이크 데이
52 마이크 홉킨스
60 마티유 르 레이
55 막시밀리안 뉘히테른
53 말트 로퍼
50 매튜 크로커
60 매튜 후드
43 매티 홍
102 맥스 포터
33 메이케미너 클린크스포
61 모건 하임
64 모함마드레자 하페지
68, 69 민 바하두르 밤

ㅂ
49 바르토시 리섹
79 바르트워미에이 스위더스키
61 바실리 사라나
103 박재범
91 박혜정
51 발라주 시모니
110 백승화
73 베른하르트 헤체나우어
63 벤 나이트
45 벤야민 소토 페라리스
61 벤야민 툼
78 보이첵 코자키비치
38 브라이언 홀
64 브리튼 카유에트
77 비다 발렌치치
104 빌소니 헤레니코

ㅅ
106 사라 리첸버거
58 사샤 스노우
53 사이먼 퍼킨스
80 산드라 뒤카스
69 세낭 기암조 타망
45 숀 빌라누에바 오드리스콜
49 숀 피
64 숀 홀러
53 슈앙 리
64 스티브 아담스
43 스티븐 슈와블
43, 45 시더 라이트
103 신나리

ㅇ
105 아나 야킨스카
103 아나이스 소렌티노
105 아담 마르코 노드
50 아루나스 마텔리스
97 아룬 바타라이
79 안나 테레사 피에트라스젝
106 안드레아스 무글리
78 안소니 보넬로
55 안잘리 나야르
105 안정호
104 알렉세이 알렉세예프
101 알로이스 디 레오
109 앨런 드완
81 앨리슨 오토
74 야쿱 브르바
111 양선
87 양태진
109 에드워드 드미트릭
44 에릭 그리고로브스키
40 에릭 크로슬랜드
102 에바 크피야노비츠
63 에이미 벤슨
106 올가 폴릭토바
98 왕 다오난
98 왕 치앙
39 요아킴 헬링거
102 우 지엔
44 울프 보겐스타인
91 윤다혜
91 은해수
40 이그나시 로페스 파브레가스
91 이병희
113 이석훈
91 이지향
92 이희진
111 임순례

ㅈ
40 장 미셸 조르다
111 장춘
60 저스틴 드쉴즈
58 저스틴 앤더슨
91 정유희
87 정형민
37 제니퍼 피돔
50 제임스 딘
37, 52 젠 랜달
32, 46 조시 로웰
92 조현우
100 졸바야르 도르즈
57 주어 브레첼니크
57 줄리아 다르
101 줄리아 오커
72 지그문트 스타이너

ㅊ
91 최준혁
96 치우 리웨이

ㅋ
113 카말 반살
68 케상 체텐 라마
80 케이티 스티언홈
39 크리스찬 슈미트
45 크리스토발 드 알바 드 라 페냐
77, 80 크리슬 라이트
52 키스 말로이
38 키스 패트리지

ㅌ
39 타티아나 그라우예라
43, 45 테일러 키팅
100 토르핀 이베르센
84 티안 체링

ㅍ
36 파볼 바라바스
85 팸 브랜든
62 페드로 곤살레스-루비오
96 프라빈 모르칼레
60 프랑수아 르뷰
32, 43, 46 피터 모티머

ㅎ
106 하우메 퀼레스
39 한스 피터 스타우버
91 허현서
83 호 씬청
77 호세 코보
91 황수빈
77 후안 리스
51 휴고 클루조

Index of Directors

A
105 Adam MARCO-NORD
104 Alexey ALEKSEEV
109 Allan DWAN
81 Allison OTTO
101 Alois Di LEO
63 Amy BENSON
105 AN Jeong-ho
105 Ana JAKIMSKA
103 Anaïs SORRENTINO
106 Andreas MUGGLI
55 Anjali NAYAR
79 Anna Teresa PIETRASZEK
78 Anthony BONELLO
97 Arun BHATTARAI
50 Arūnas MATELIS

B
110 BAEK Seung-hwa
51 Balazs SIMONYI
79 Bartłomiej ŚWIDERSKI
49 Bartosz LISEK
63 Ben KNIGHT
45 Benjamín SOTO FERRARIS
61 Benjamin THUM
73 Bernhard HETZENAUER
38 Brian HALL
64 Britton CAILLOUETTE

C
43, 45 Cedar WRIGHT
96 CHIU Li-wei
91 CHOI Jun-hyeok
39 Christian SCHMIDT
45 Cristobal DE ALBA DE LA PEÑA

D
39 Damiano LEVATI
73 Daniela LEITNER
54 Dave MOSSOP
36 Dave O'LESKE
97 Dorottya ZURBO

E
109 Edward DMYTRYK
40 Eric CROSLAND
44 Erick GRIGOROVSKI
91 EUN Hae-soo
102 Eva CVIJANOVIĆ

F
60 François LEBEAU

G
74 Gerhard TREML
104 Glenn BARIT

H
39 Hans-Peter STAUBER
91 HEO Hyun-seo
83 HO Sinchung
51 Hugo CLOUZEAU
91 HWANG Su-bin

I
40 Ignasi LÓPEZ FÀBREGAS

J
74 Jakub VRBA
50 James DEAN
106 Jaume QUILES
40 Jean-Michel JORDA
37, 52 Jen RANDALL
37 Jennifer PEEDOM
91 JEONG Yu-hui
92 JO Hyun-woo
39 Joachim HELLINGER
77 José COBO
32, 46 Josh LOWELL
77 Juan REECE
57 Julia DAHR
101 Julia OCKER
87 JUNG Hyung-min
57 Jure BRECELJNIK
58 Justin ANDERSON
60 Justin DESHIELDS

K
113 Kamal BANSAL
99 KANG Yuqi
80 Katie STJERNHOLM
52 Keith MALLOY
38 Keith PARTRIDGE
68 Kesang Tseten LAMA
91 KIM A-reum
54 KIM Dong-gi
91 KIM Geun-a
91 KIM Gun-ha
91 KIM Gyo-hak
103 KIM Jeong-seok
92 KIM Ji-hyeon
91 KIM Min-ji
91 KIM Nam-u
54 KIM Seong-eun
91 KIM Young-seo
77, 80 Krystle WRIGHT

L
101 Laha MEBOW
95 Lancelot von NASO
62 Laura BELINKY
63 Leanne ALLISON
91 LEE Byeong-hee
92 LEE Hee-jin
91 LEE Ji-hyang
113 LEE Seok-hoon
74 Leo CALICE
55 Leo HOORN
111 LIANG Xuan
74 Lukas MARXT

M
53 Malte ROEPER
97 María NOVARO
49 Martin LUCHSINGER
60 Mathieu LE LAY
50 Matthew CROCKER
60 Matthew HOOD
43 Matty HONG
102 Max PORTER
55 Maximilian NÜCHTERN
33 Meikeminne CLINCKSPOOR
59 Mike DAY
54 Mike DOUGLAS
52 Mike HOPKINS
68, 69 Min Bahadur BHAM
64 Mohammadreza HAFEZI
61 Morgan HEIM

N
69 Ngima Gelu LAMA
43, 46 Nick ROSEN
112 Nicolas VANIER
73 Nikolaus MÜLLER

O
106 Olga POLIEKTOVA

P
85 Pam BRANDON
91 PARK Hye-jeong
103 PARK Jae-beom
36 Pavol BARABAS
62 Pedro GONZÁLEZ-RUBIO
32, 43, 46 Peter MORTIMER
96 Praveen MORCHHALE

R
70 Rajesh Prasad KHATRI
112 Rémi CHAYE
44, 78, 79 Renan OZTURK
83 Renzo CARBONERA
108 Robert WISE
85 Rokhsareh Ghaem MAGHAMI
57 Rožle BREGAR
102 Ru KUWAHATA
59 Rubén MENDOZA

S
80 Sandra DUCASSE
106 Sara LITZENBERGER
58 Sasha SNOW
49 Sean FEE
64 Sean HORLOR
45 Sean VILLANUEVA O'DRISCOLL
69 Shenang Gyamjo TAMANG
103 SHIN Na-ri
53 Shuang LI
72 Sigmund STEINER
53 Simon PERKINS
64 Steve ADAMS
43 Steven SCHWABL

T
39 Tatiana GRAULLERA
43, 45 Taylor KEATING
84 Tian TSERING
100 Torfinn IVERSEN

U
44 Ulf WOGENSTEIN

V
61 Vasiliy SARANA
77 Vida VALENCIC
104 Vilsoni HERENIKO

W
98 WANG Dao-Nan
98 WANG Qiang
78 Wojtek KOZAKIEWICZ
102 WU Zi En

Y
87 YANG Tae-jin
111 YIM Soon-rye
91 YOON Da-hye

Z
111 ZHANG Chun
100 Zolbayar DORJ

상영본 제공처

Contacts

14+1
Rai
elena.strummiello@rai.it

32km-60 Years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PTSFestival@gmail.com

Above the Sea
Red Bull Media House GmbH
info@at.redbullmediahouse.com

Adaptation: Bangladesh-Sea Level Rise
Alize CARRERE
ac@alizecarrere.com

Addicted to Altitude
K2 Studio
k2@k2studio.sk

Alamar
mk2 films
intlfest@mk2.com

Alone with Wolves
Siberian Films
siberian.film@rambler.ru

Altay Wild Snow
Titan Media Group Co., Ltd.
jiangyuer@sina.com

Ant
Studio FILM BILDER GmbH
studio@filmbilder.de

Ascend
Sharptail Media
info@sharptailmedia.com

Bandit's Dream
Root Communications
mytjin21@naver.com

Barkley
studio2 Animation Lab
chelsea@studio2.com.tw

Barley Fields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Visit Films
jy@visitfilms.com

Beautiful Mountain Made by Tiger, A
KIM Jihyeon
ehowl8v8@naver.com

Belle and Sebastien
Greennaraemedia
bryantbae@greennaraemedia.com

Big Fish
AniSEED
kaniseed@naver.com

Big Fish & Begonia
Big Film
big@bigfilm.co.kr

Black Hen, The
Wide management
ma@widemanagement.com

Blue Heart
Patagonia
monika.mcclure@patagonia.com

Bonington-Mountaineer
Brian HALL
brian@filmandmountain.com

Bothy Project, The
Light Shed Pictures
lightshedpictures@gmail.com

Break on Through
REEL ROCK
contact@reelrocktour.com

CALIPATRIA
sixpackfilm
dietmar@sixpackfilm.com

Children of Genghis, The
Culture Distributor LLC
culturedistributor@gmail.com

Children Will Come, The
Ana JAKIMSKA
ana.jakimska@gmail.com

Chiripajas
Olga POLIEKTOVA
olyjau@gmail.com

Cloudboy
LevelK
Niklas@levelk.dk

Coconut Connection
Sean VILLANUEVA O'DRISCOLL
seanbreaksrocks@hotmail.com

Conflict Tiger
Sasha Snow Film Production
film@sashasnow.com

CRUX
Zentral Production
zentralpro@gmail.com

Curious Girl, A
Shooney Films
shooneyfilm@gmail.com

Dam, The
Soleil film
nikolaus.mueller@gmx.at

Dawn Wall, The
Red Bull Media House GmbH
info@at.redbullmediahouse.com

Denali's Raven
Camp4 Collective
kristin@camp4collective.com

Dirtbag: The Legend of Fred Beckey
Fred Beckey Film, LLC
info@dirtbagmovie.com

DreamRide 2
Juicy Studios
mikehopkins.com@gmail.com

Edges
Balcony Nine Media
info@balconynine.com

Eldest Son, The
Nonfiction Media
benson@nonfictionmedia.com

End of Snow, The
Day's Edge Productions
info@daysedge.com

Endless Winter II; Surfing Europe, The
Level Films
matt@levelfilms.co.uk

Escape
MEC
shortdocs@mec.ca

Everest Green
Block 8
contact@block8production.com

Fishpeople
Patagonia
monika.mcclure@patagonia.com

Flute, The
Shooney Films
shooneyfilm@gmail.com

Fountain of Youth
Switchback Entertainment
mike@switchbackentertainment.com

Fruition, The Life and Dreams of Nicolas Müller
Tasty Pictures
seanfee@tastypictures.ch

Generations of Freeskiing
Red Bull Media House
theodor.berr@de.redbull.com

God's Shadow, A
sixpackfilm
dietmar@sixpackfilm.com

Gruff-voiced Tree, The
The Short Film Agency
info@agencecm.com

Hamama & Caluna
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chantal.molleur@hslu.ch

Hansjorg Auer-No Turning Back
Storyteller-Labs
adm@storyteller-labs.com

Hedgehog's Hom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D.Dussault@nfb.ca

Heidi
Park Circus
graham@parkcircus.com

Heinz Zak?A Free Spirit in the Vertical World
Servus TV
Carmen.Tomandl@servustv.com

Hidden Treasures in the Mountain
Sky Film
cs98h040@gmail.com

Himalayas, The
CJ Entertainment
kate.kim1@cj.net

Hokkaido Calling
Sherpas Cinema
info@sherpascinema.com

Hsiang Yi
WU ZI En
nlu331@gmail.com

Hunt, The
The Short Film Agency
info@agencecm.com

Hunting Giants
Nootka St. Film Company
sean@nootkastreet.co

Ice Calling
Zenith Adventure Media
Fernando@zenithadventuremedia.com

Imagination: Tom Wallisch
Sherpas Cinema
info@sherpascinema.com

In a Beautiful and Quiet Location
sixpackfilm
dietmar@sixpackfilm.com

In Perpetual Motion
Pool Collective
cameron@thepoolcollective.com

In the Shadow of Everest
TVP Film Agency
Jacek.Kurski@Tvp.Pl

Inwards
Wogenstein Pictures
ulf@wogenstein.tv

Islands and the Whales, The
Intrepid Cinema
mike@intrepidcinema.com

Jazzoo
Swedish Film Institute
jing.haase@filminstitutet.se

Journey to Kailash
Big Tree
makalu21@naver.com

Keeper of the Mountains
X-Treme Video
hello@x-tremevideo.com

Land of the Wind
Wild River Films
contact@wildriverfilms.com

Last Honey Hunter, The
Felt Soul Media
travisrummel@gmail.com

Last Ice Hunters, The
Film IT d.o.o.o
info@filmit.si

Late Season
sixpackfilm
dietmar@sixpackfilm.com

Legend of Mt.Muryong, The
KIM Daehyun
01065457788@hanmail.net

Let the Mountain Speak
Vilsoni HERENIKO
vili@hawaii.edu

Life Coach
Camp4 Collective
kristin@camp4collective.com

Life in Nature
UMFF
uljusummit@gmail.com

Little Forest
MEGABOX
hong.shinki@megabox.co.kr

Little House Wip, The
Afuera Producciones
info@afuera.com.ec

Little Wisdom, A
Journeyman Picture
alittlewisdomfilm@gmail.com

Liv along the Way
Switchback Entertainment
anthony@switchbackentertainment.com

Living with Wildlife
Necessary Journeys
leanne@necessaryjourneys.ca

Lonely Road, The
Simin F.Ahmadi
sieliss@gmail.com

Long Way North
CHALLAN
hr@challan.co.kr

Lotte & Luise: Twins on Board
Global Screen
info@globalscreen.de

Loved by All: The Story of Apa Sherpa
Sherpas Cinema
info@sherpascinema.com

Lunag Ri
HelliVentures Filmproduktion GmbH
festival@helliventures.de

Mama
Projektorownia
wojtek@vacaspurpuras.com

Marygrace
Dajen Production
Dave@dajen.com

Maybe Aliens
Glenn BARIT
barit.glenn@gmail.com

Miss Maria, Skirting the Mountain
Habanero Film Sales
acalvino@habanerofilmsales.com

Missing Homeland
UMFF
uljusummit@gmail.com

Mothered by Mountains
Camp4 Collective
kristin@camp4collective.com

Mountain
Dogwoof Ltd
luke@dogwoof.com

Mountain, The
Park Circus
graham@parkcircus.com

Mountaineers
IMCINE
festivals@imcine.gob.mx

My Irnik
HoodVisuals
info@hoodvisuals.com

Negative Space
MIYU Distribution
laure@miyu.fr

Never Arrive, Ever
Bartosz LISEK
lisek.bartosz@gmail.com

Next Guardian, The
Syndicado Film Sales LLC
admin@syndicado.com

Oskar's America
LevelK
david@levelk.dk

Our Villiage
UMFF
uljusummit@gmail.com

Phulsiri
Ama Dablam Pictures
amadablampictures@gmail.com

Planet Earth II, Mountains
BBC Studios Asia Ltd
asiapacific.sales@bbc.com

Psycho Vertical
Light Shed Pictures
lightshedpictures@gmail.com

Queen of Walking
CJ CGV ARTHOUSE
jeonghyo.park1@cj.net

Red Cave, The
SHIN Na-ri
sinari1225@naver.com

Resina
Wide management
ma@widemanagement.com

Return
JO Hyunwoo
vlvk2028@naver.com

Rowing with Ulsan
UMFF
uljusummit@gmail.com

Safety Third
Cedar WRIGHT
cedarwright@gmail.com

Sati
Krakow Film Foundation
info@kff.com.pl

Sense of Wonder, A
Mathieu Le Lay Productions
mathieu.lelay@gmail.com

Shonku Diaries-A Unicorn Adventure, The
Greennaraemedia
bryantbae@greennaraemedia.com

Sonita
CAT & DOCS
maelle@catndocs.com

Sound of Music, The
Park Circus
graham@parkcircus.com

Stumped
Cedar WRIGHT
cedarwright@gmail.com

Sunshine that Can Move Mountains
Good Move Media
chan@goodmovemedia.com

Tesoros
Figa Films
sandro@figafilms.com

Thank You for the Rain
AUTLOOK Filmsales GmbH
stephanie@autlookfilms.com

Three Farmers and a Son
La Banda Film
flavio@labandafilm.at

Trembling Mountain
Shunyata Film
shunyatafilm@gmail.com

Ultra
CAT & DOCS
maelle@catndocs.com

Undiscovered
Sara LITZENBERGER
sara.litzenberger@gmail.com

Uruca II?Bugaboos Edition
I am Grigo
egrigo@gmail.com

Valley Uprising
Sender Films
info@senderfilms.com

Viacruxis
Ana VEGA
anabenignavega@gmail.com

W
Bergfilm
thisbesteve@gmail.com
Walking with the Wind
Trippy Turtle Production
praveen.morchhale@gmail.com

Way of Giants
Sinlogo Animation
aldileo@sinlogobr.com

Where the Wild Things Play
Pool Collective
cameron@thepoolcollective.com

White Waters, The
WE ARE HUNGRY
wearehungry.contact@gmail.com

Winter Surf 2: Passion, The
38 Production
director@38productions.com

Wolf, The
Creativ Studio
info@creativ-studio.it

Women's Ways
FotoVertical
contact@fotovertical.com
Wonderful Losers: A Different World
Deckert Distribution GmbH
info@deckert-distribution.com

Wooga
AniSEED
kaniseed@naver.com

Year of the Bird
Shooney Films
shooneyfilm@gmail.com

도움주신 분들

Acknowlegements

신장열	초대 이사장
이춘근, 박경례, 홍경숙, 이동학	울주군
경민정	IT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울주군의회
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김성일	현대미디어 ONT
김인철	YTN 울산지국
배준호	사회적경제개발원
유문화	(주)답사친구
장영은	연합뉴스
전찬일	영화평론가
정훈식	The MC 협동조합
최낙용	영화사 백두대간
최정화	영화사 문샷필름 / PGK

고영웅, 신동환	무주산골영화제
공은우	무학
곽연옥, 김다혜, 지세연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김기형, 노지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동백	망고미디어
김성준, 문병용	전주국제영화제
김수진	주한네팔대사관
김신년, 조수란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김영오	울산광역시교육청
김영화	락오디세이
김은혜	착한음식
김탁균	트랑고
김휘연, 장슬기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나윤환	엄홍길휴먼재단
모은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문명호	그린카
민병헌, 성연태, 장광헌, 최영진	한국영상자료원
박근오, 이진아	FedEx
박도원	콜핑
박종민	국립산악박물관
변기태	하루재북클럽
심윤정	서울환경영화제
심지홍, 유정화, 이미경, 전진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유시열, 최성훈	문화체육관광부
유재균	일시정지시네마
유해연	스탠리
이영준	마운틴저널
이재명	하이트진로
이정선	남부지방삼림청
이현상	제로그램
이현주	라마당
임종훈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장은석	부산국제영화제
전영선	건국대학교
전정연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정연지	굿데이(GD)투어
정은선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정희숙	통일부
조아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최현석	AGCOFFEE
한승완	가지산막걸리
한재권	영화음악감독
허송회	부토라
허은석	알프스시네마
황찬우	트레비어
Ryan Cheng	Film Critic

*가나다 순

조직 Organization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Chairman of Board

이선호 LEE Sun-ho

이사
Board Members

김달줄 KIM Dal-jul
김대창 Kim Dae-chang
김상용 KIM Sang-yong
김영달 KIM Young-dal
김은영 KIM Eun-young
김인수 KIM In-soo
김진택 Kim Jin-taek
김해숙 Kim Hae-sook
박만영 PARK Man-young
박수곤 PARK Soo-gon
배창호 BAE Chang-ho
서석광 SEO Seok-kwang
서휘웅 SEO Hwi-woong
송삼원 SONG Sam-won
신영철 SHIN Young-chul
오세필 OH Se-pil
우하용 WOO Ha-yong
유홍섭 YOU Hong-sub
이순우 LEE Soon-woo
이창세 LEE Chang-se
정일근 JUNG Il-geun

감사
Auditor

이창림 LEE Chang-rim

고문
Advisor

이인정 LEE In-jung
정기범 JUNG Ki-bum

집행위원회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배창호 BAE Chang-ho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s

김은영 KIM Eun-young
김인수 KIM In-soo
박만영 PARK Man-young
신영철 SHIN Young-chul
심 산 SIM San
이창세 LEE Chang-se
채윤희 CHAE Yoon-hee
홍종오 HONG Jong-oh

스태프 Staff

영화제 사무국
Festival Office

프로그래머
Programmer

최선희 Billy CHOI
이정진 Jinna LEE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홍영주 HONG Yung-joo

정책실장
Policy Advisor

김정서 Justine KIM

기획운영실
Planning & Managing Department

권준형 KWON Jun-hyung
김경빈 KIM Kyung-bin
김민제 KIM Min-je
김소희 KIM So-hui
김예은 KIM Ye-eun
김채원 KIM Chae-won
손가영 SON Ga-young
유현주 YOU Hyun-ju
이서하 LEE Seo-ha
이주희 LEE Ju-hee
이지연 Zoe Jiyeon Lee
장민승 JANG Min-seung
최성호 CHOI Sung-ho

홍보마케팅실
Publicity & Marketing Department

김민정 KIM Min-jeong
김상현 KIM Sang-hyun
김희진 KIM hee-jin
서하나 SEO Ha-na
유정아 YOO Jeong-ah
윤영신 YOON Young-sin
황혜성 HWANG Hae-sung

행정지원팀
Assistant Team

정상훈 JEONG Sang-hun

디자인
Design of Festival

데이워크 studio thwk
무소속 연구소 Musosok Lab
보이드에이 건축사사무소
VOID. A Architects & Planners
조경훈 JO Kyung-hoon

기술
Technical Team

진미디어 JINMEDIA

자막
Subtitle

㈜푸르모디티 FURMO DT

발행인
Publisher

배창호 BAE Chang-ho

책임편집
Chief Editor

최선희 Billy CHOI
이정진 Jinna LEE

프로그램 노트
Progrom Notes

곽정혜 Gwak Jeong-hye
김세진 KIM Se-jin
김형석 KIM Hyung-seok
맹수진 MAENG Soo-jin
배경미 Christine PAE
신영철 SHIN Young-chul
안정아 AHN Jung-ah
유순희 YOO Sun-hee
이정진 Jinna LEE
장보영 JANG Bo-young
조지훈 JO Ji-hoon
최선희 Billy CHOI
한송이 Han Song-i

콘텐츠
Contents

김소희 KIM So-hui
김채원 KIM Chae-won
서하나 SEO Ha-na
손가영 SON Ga-young
유정아 YOO Jeong-ah
윤영신 YOON Young-sin
이서하 LEE Seo-Ha

번역
Translation

최진아 CHOL Jinah
비비안(박송이) Vivian PARK
정주현 CHUNG Joo-hyun
이지연 Zoe Ji-yeon LEE
한상우 Tony HAN

감수
Sentiment

배리 웰시 Barry Welsh
제이슨 배셔베이즈 Jason Becherva

디자인
Design

데이워크 Studio thwk

인쇄
Print

윤호기획 Yoonho Media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
Ulju Mountain Film Festival

449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2층

103-8, Alpeuseuoncheon 5-gil,
Ulju-gun, Ulsan, Korea 44952

T 82 52 229 6450
F 82 52 248 6455

www.umff.kr

* 본 책자는 **8월 13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his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August 13**, Please check our official website for any changes after August 13.